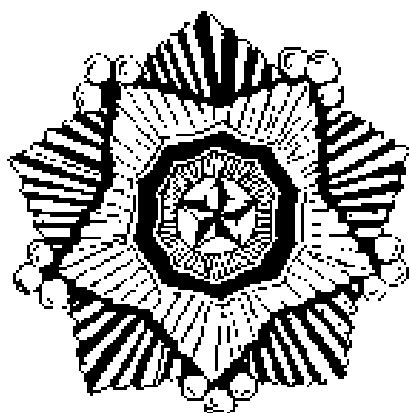


10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10호

(루계 제696호)

◆◆◆◆◆◆◆◆◆◆ 차 례 ◆◆◆◆◆◆◆◆◆◆

어머니 당에	4
우리 당의 붓대철학과 작가의 시대적사명	5
우리 당	8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	9
아버이	10
사랑의 행군길	11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19
닭알에 대한 이야기	20
하나의 생활세부도	21
오직 한분	22
90년대의 《적기가》	23
빛나라 우리의 10월	24
뜨거운 석양	25
보통당원	36
10월 원무곡	36
선군령장	37
《씨름군행렬도》	37

주체문학의 대강	38
새 세기의 태양에 대한 새로운 예술적탐구	38
인민의 트랙	41
병사사랑의 날	41
더 높은 창작성으로 우리 당의 역사를 빛내여나가겠다.....	42
수령형상문학의 숲이 무성하기까지	42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44
우리 당의 령도밑에 소설문학이 걸어온 60년 역사	45
당과 함께 걸어온 노래의 행군길	47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48
60년전 그날은	49
10월의 포전길을 걸으며	50
소 묘.....	50
10월의 광장에 들어서며	51
8도강산.....	51
우리의 《아리랑》	52
《E.C》의 대오는 오늘도 자란다.....	54
내 고향의 구호나무	54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55
착상과 어리석음	55
고향집의 밤	56
삶의 첫 기슭에 대한 추억.....	57
10월 9일	58
산정의 소나무	59
바쁜 사람.....	66
조국땅 멀리에서	74
자유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적해명	76
경구격언	79
시 한수로 나라의 존엄을 과시한 시인	80

어머니 당에

김명철

내 나라를 찾아주시고
내 조국을 빛내주시려
천만고생 다 겪어온 당이여
그대의 모습을 우러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영원한 모습이 어려웁니다

당! 그대의 모습은 어머니
당! 그대의 품은 어머니의 품
천만년 세월이 흐른다해도
오직 그대의 모습 그대의 품은
천만자식 거느린 수령님의 품입니다

그 사랑의 품이 아니었다면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불바다에 헤매던 민족이
어찌 해방의 새날을 맞아
세상 만복을 누릴수 있겠습니까

그 만복 어떻게 온것입니까
수령님 지새우신 발머리에서 꽃피고
수령님 찾으신 구내길에서 다져지고
수령님 헤치신 전선길에서 넓어져
무궁세월으로 이어진 만복인것입니다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을 지키시려
김일성 민족의 존엄을 떨치시려
자신의 뉘도 숨결도 다 바쳐온 당이여
그대의 불멸의 공헌을 생각하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그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웁니다

당! 그대의 모습은 어머니
당! 그대의 품은 어머니의 품
자나깨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모습 그 품은
아이적이나 어른이 된 오늘이나
그 모습 잃으면 세계를 잃는 장군님의
모습입니다

용해장을 찾으시여 죄물을 보실 때면
그 모습은 수수한 용해공의 모습
밭머리에서 땅금을 그으시며
농장살림을 의논하실 때면
그 모습은 농사일에 밝으신 농민의 모습

최전연고지에 거연히 서시면
그 모습은 백승만을 떨치는 조선의 모습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계실 때면
그 모습 만시름 잃은 어머니 모습같아
세월도 그이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꿈을 꾸는
품

아 만복이여라 행복이여라
위대한 당을 어머니로 모신 인민
위대한 당을 어머니로 받들어 사는 인민
받는것만이 행복이었던가
바치는것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는 인민이여

우리 그 무엇 서슴드리오까
선군의 보검으로 우리 운명 지켜주시고
선군의 무기로 우리 존엄 만대로 이어준
위대한 선군의 어머니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

걸어온 길 뒤돌아보아도
어머니당만 따라온 승리의 길
걸어갈 길 바라보아도
어머니당만 믿고 따라갈 영광의 길
그 길은 장군님 손잡고 가는 무궁번영의 길

오! 당이여 그대는
김일성-김정일 동지!
이 행성 달리 부르는 세월이 온다 해도
우리 달리 부를수 없고 다른 모습 없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에
인민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당의 붓대철학과 작가의 시대적사명

박춘택

붓대는 총대와 함께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총대가 적들과의 물리적대결에서 판가리 무기라면 붓대는 혁명과 반혁명, 정의와 부정의와의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사상적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혁명의 붓대를 들어온 문필가들은 대중을 각성시키는 시대의 선각자이며 그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불러일으키는 사상전선의 전초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발전과 혁명투쟁에서 붓대가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을 치차라고 한다면 지식인들, 문필가들을 상징하는 붓대는 윤활유라고 할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치차와 윤활유, 그것은 마치와 낫과 붓대의 호상관계를 가장 정확히 밝혀준 명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윤활유가 없으면 치차가 잘 돌아가지 못하고 인차 마모되는것처럼 문필가가 없으면혁명과 건설이 생기와 활력을 잃게 되며 붓대가 있어야 혁명이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붓대의 역할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의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필가들에 의하여 혁명이 생기와 활력과 량만에 넘쳐 힘차게 전진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붓대철학입니다.》

심오한 진리가 담겨진 붓대철학에 대한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정식화는 작가들의 사회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붓대철학의 기초에는 문학의 본성과 사명, 그 역할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이 놓여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 우리 문학은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생활인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문화정서적수양의 친근한 벗으로 되고있다.

시대의 지향과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담은 훌륭한 문학작품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며 혁명적인

소설은 금보다 훨씬 값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이다. 우리의 선군문학은 선군시대의 위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선군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문학이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문학이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는 선군문학은 선군사상을 구현함으로써 선군시대의 인간과그 생활, 선군시대의 혁명적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한다.

우리 당의 붓대철학의 기초에는 또한 창작의 주체인 작가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관점이 놓여있다.

작가는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한길에서 당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이며 당의 의도와 구상,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장깊이 새기고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성공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작가들을 중시하시고 작가의 창작활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을 대중을 각성시키는 시대의 선각자로 대중속에 혁명의 불을 지펴주어 그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불러주시며 력사상 처음으로 작가들의 지위와 역할을 사회와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밝힌 철학, 문필가들에 의하여 혁명이 생기와 활력과 량만에 넘쳐 힘있게 전진한다는 붓대철학을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의 붓대철학에 의하여 우리 작가들은 인류문예사상 최대의 영예를 받아안았으며 작가들의 지위와 역할은 최상의 높이에 오르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붓대철학의 위대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으며 생활력이 있다.

이 땅에 인류가 생기고 문학이 생겨난지도 수천년, 그때로부터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이 생겨나 오랜 력사와 기록을 남겨오지만 어느 력사, 어느 시대에도 작가들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이처럼 혁명과 건설, 인간생활에 생기와 활력, 량만을 안겨주며 혁명의 즐거운 전진

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밝힌 레는 없었다.

이 문제는 당의 위업수행에서 총대와 함께 붓대를 위력한 무기로 삼고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위대한 정치가, 결출한 창조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에 의해서 비로소 해명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작품창작을 기본으로 하는 작가라는 직업이 출현한 이래 작가의 사회적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하는 견해와 립장은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찌기 문학을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는 사회적인식형태로 인정하면서 그 창조자인 작가를 사회의 진보적세력으로 이해하였으며 그를 정의와 진리, 량심의 대변자로 내세우는데 불과하였다.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투쟁이 심화되면서 작가의 진보적역할에 눈을 돌린 사상가들은 그를 애국주의 높이에 세우기도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와서는 혁명투사의 대오에 함께 세우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이 모든 견해들은 작가를 사회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력량의 편에 세운 일련의 타당성을 가진 긍정적인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경우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작품이 가지는 인식교양적기능으로부터 작가의 정신로동, 창작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견해였을뿐 사회적존재로서의 작가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에 대한 철학적리해에 기초하여 작가의 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필가들에 의하여 혁명이 생기와 활력과 량만에 넘쳐 전진한다는 붓대철학에 대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작가들에게 인류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최고의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우리 당의 붓대철학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의 제시야말로 작가의 사회적력량에 대한 수령의 숭고한 정치적인임을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붓대철학의 위대성은 오늘의 세계현실을 통하여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버림받은 수많은 붓대들이 매문의 문을 두드리고있으며 황금에 유혹되어 량심과 지조를 쫓아내고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와 같이 대중에게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의욕과 불신을 고취하는 앞장에 나선것도 《문필가》들이었으며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 정치무대에 등장하여 악랄하게 날친것도 《문필가》들이었다.

이 엄혹한 사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작가, 문필가의 사회적존재와 활동을 불신과 의혹에

차서 바라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현시기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작가, 문필가의 사회적위치와 운명문제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시대적문제로서 나서게 되었다.

세계진보적인류가 문필가의 사회적존재를 의혹에 차서 대하고있는 때에 문필가들을 혁명과 건설이 패기와 활력과 량만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믿음직한 창조적인 력량으로 믿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는 그 얼마나 견결한것이며 그사랑은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가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선행한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최상의 경지에서 철학적으로, 독창적으로 해명하신것은 인류문예사에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붓대철학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붓대관, 숭고한 붓대사랑이 깃들어 있다.

우리 작가, 문필가들을 력사의 당당한 주체, 인민대중의 주요구성부분으로 보시고 그들을 새 사회건설의 역군으로, 문화전선의 투사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붓대철학에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붓대사랑의 빛깔은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따듯이 비쳐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동무들이 나를 그리워하듯이 나도 동무들을 그리워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붓대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선군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좋은 작품을 써내고있는 우리 작가들을 굳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도 힘겨울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작가들이 쓴 시들은 나에게 큰 고무를 주었다고, 나는 힘을 주는 글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붓대를 잡은 우리 작가들을 총권 병사들과 함께 영광의 상봉에 높이 내세워주시고 총포소리가 울리지 않는 전쟁에서 붓대가 수천수백만의 총폭탄을 대신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신다.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붓대를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어려운 때 총대와 함께 붓대를 들어주시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짓부셔버리시며 붓대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승리의 위대한 력사를 수놓아오시었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이 쓴 한편한편의 글을 보시며 거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을 읽으시고 선군혁명에 대한 신념을 굳히시며 선군장정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평범한 작가들의 작품도 시대의 명작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는 우리 장군님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붓대사랑을 체현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오늘 선군혁명是我们 작가들이 틀어쥔 붓대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곡히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적들과의 치열한 정치사상적대결전을 벌리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정치사상적진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면 인민들의 마음을 틀어잡고 그들을 위훈과 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당과 국가를 허물고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안팎으로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작가의 붓대가 흔들리고 변하면 문학이 변색되고 사회에 온갖 부르조아사상문화가 침투하게 되며 나중에는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먹게 된다. 이것은 붕괴된 사회주의나라들이 남긴 력사의 교훈이다.

세계를 자본주의화하고 저들의 지배밑에 두려는 미제의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자면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여기에서 붓대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붓대철학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의 붓대, 정의와 량심의 붓대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작가들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는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고 참다운 선군혁명동지가 되는것은 수령결사옹위의 붓대를 높이 들고 선군정치를 받들어어나가는 참다운 혁명적작가의 기본풍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작가는 신념과 량심, 열정을 가지고 심장으로 정신로동을 하는 지성인이다. 작가는 현실생활을 대할 때 긍정의 열정이 불타올라 자기의 신념과 량심으로 작품을 쓰는것이다. 작가는 적의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내가 쓴 작품은 나의 신념이고 량심이라고 당당히 웨치는 바로 이런 작가가 우리 당의 작가, 혁명적작가라고 할수 있다.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훌륭한 작품은 작가의 가슴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당의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어나

가려는 혁명적신념과 의리가 깊이 간직되어있을 때라야 창작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우리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해나가는 지성인들이다. 우리는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충성다하는것을 삶의 목적과 행복으로 알고 운명과 미래를 그이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영원한 선군혁명동지로 될것을 위대한 령도자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흔들림없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충성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가는것, 바로 여기에 선군작가의 참모습이 있고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혁명적붓대의 위력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은 관직을 따를것이 아니라 사상을 따라야 한다. 관직을 따르는 사람은 시세에 따라 변하지만 사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닥쳐도 변하지 않는다. 위인에 대한 매혹은 바로 그의 사상에 대한 매혹인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당을 따라 선군의 길을 끝까지 갈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최고사령부의 종군작가로서,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 시대적사명을 다하고 선군붓대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선군정치의 대변자들인 우리 작가들은 한편 한편의 작품을 당의 사상이 맥박치고 당의 의도가 뚜렷이 반영되게 써야 하며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 배짱을 반영한 작품을 훌륭하게 써내어 군대와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주고 무적의 힘을 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하여 당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생활력을 깊이있게 선전하며 인민들을 혁명투쟁으로 고무하고 붓대포로 미제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밟아버려야 한다.

현시기 붓대의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작가들이 시대의 선각자, 당정책의 대변자답게 정세발전의 추이와 당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당의 정책과 로선, 의도에 따라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어있으며 문학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작가들이 정세발전의 추이와 당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하지 못하면 붓대의 위력을 떨칠수 없다. 작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의도와 주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성과로 받아들여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이 높아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높은 정치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붓대의 위력을 높이 펼쳐나가려면 또한 현실체험을 잘하여야 한다

작품의 철학적인 종자도 현실속에 있고 그것을 꽃피울수 있는 형상도 현실속에 있다.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승리의 신심도 현실에 나가보아야 깊이 느낄수 있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현실체험, 바로 여기에 선군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창작의 비결이 있다. 현실속에서만이 작가의 붓대가 무디여지지 않고 예리하게 버려진다. 모두다 배낭을 메고 현실속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 작가들의 창작활동의 철칙으로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작가수양의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작가들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제일선에 서있는 혁명적인 작가답게 머리속에 주체사상, 선군사상만이 꼭 차있어야 한다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붓대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오늘 작가들은 문필가들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참다운 선군혁명동지의 붓대를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우리의 붓대는 위대한 동지적민음과 사랑의 붓대 이다.

령도자와 작가들사이에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적민음과 사랑, 이 혈연의 관계는 붓대의 위력으로 선군문학창조의 역사를 빛내이고있다.

불길속에서 강쇠가 버려지듯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붓대를 억세게 버려온 우리 작가들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신념과 절개의 붓대를 끝까지 지켜 갈것이며 오직 선군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선군 시대의 나팔소리,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가를 장엄하게 울려갈것이다.

우리 당

신문경

백두의 수천만리 혈전의 길을 걸어
우리 당이 탄생한 집은
너무도 소박하다
수수한 2층집

혁명의 첫 기슭에서 밭길을 걸으며
동지를 찾아떠난 우리 수령님
다진 맹세 변치말자 수첩에 남긴
그 굴발을 마음속에 규약처럼 품고서
한사람 또 한사람 뭉쳐진 대오

서재에서 펜으로 강령을 쓰기 전에
총대로 피를 나누며 뜻을 합쳐야 했고
들고 갈 당기발을 만들기 전에
혈전의 붉은기를 추켜들어야 했거니

김일성!

그 이름은 곧 혁명의 표대였고
그이의 뜻은 곧 혁명의 붉은기였으며
그이는 곧 우리 당, 우리 조국이였다

계급의 리익을 지키기 전에

민족의 운명을 건져야 했고
서둘러 당창건을 선포하기 전에
뜻을 나눌 동지를 찾아
사선을 헤치며 걷고 또 걸어야 했거니

김일성동지!

그이 아닌 그 누가
천만의 심장들을 하나로 뭉쳐주고
그이 아닌 그 누가
일심단결의 중심에 서게실수 있었던가

아, 인민의 운명을 안고 태어나
시련속에서 더 억세어진 당
인민의 존엄을 지키는
투쟁속에서 로속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

부를수록
위대한 한평생이 어려와
시련의 날에도 승리의 날에도
그 부름과 함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아, 우리 당! 아, 우리 수령님!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

라자구밀림속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

어느날 몇명 안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행군길을 이어가시던 백두산대장수님께서서는 전방에 적이 나타났다는 신호를 받으시었다.

이미 뒤에는 수십배나 되는 왜놈 《토벌》대가 찰거마리처럼 붙어 뒤쫓아오고있었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정황은 위급하였고 접전은 피할수 없었다.

친솔부하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대장수님의 지략과 술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왔음을 모르는바가 아니었으나 원체 인원이 적다보니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벌써 부하들은 총가목을 부여잡고 총탄을 세어 총에 재웠다. 판가리결전이 눈앞에 박두하였다는것을 누구나 간파하였다. 한목숨 바쳐서라도 대장수님을 보위하고 최후를 멋있게 마무리라!

이때 대장수님의 연락병이 뛰어와 소대장을 찾는것이였다.

《대장수님께서 왜 행군속도를 늦추었는가고 물으십니다》

《영? 앞에 적정이...》

소대장은 어리둥절해하였다.

전방척후의 소식을 방금 자기가 직접 대장수님께 보고드리고온 길이였다.

적정보고에 의하면 앞에 나타난 적은 뒤따르는 《토벌》대병력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런데 행군속도를 높이라니...

소대장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이 모든것을 손금보듯하시고 내리시는 명령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여 다시 물었다.

《분명 대장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었소?》

《예!》

전령병은 그러면서 대장수님께서 적정보고를 받으신 후 잠간 둔덕에 올라 지형을 살펴보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덧붙였다.

《그렇소?》

소대장의 얼굴은 금시 확 밝아졌다 대장수님께서 둔덕에 오르시어 천기조화를 살피시고 지형들을 눈에 익히신 후 내리신 명령이니 이번에도 왜놈들이 즉살탕을 맞을것은 뻔한 노릇이였다.

다시 행군이 시작되어 얼마쯤 갔을 때였다.

사령부전령병이 다시 뛰어왔다.

《대장수님께서 이제 곧 진대나무림이 나질것

이니 지체 말고 그 나무들에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

소대장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진대나무림이라니? 사방은 이렇게 쭉 개활지대가 나지지 않았는가. 진대나무가 있다면 큰수림이 있어야 하고 오랜 나무들이 있어야 하는건데 주변에는 낮은 야산들뿐이였다. 그러나 행군대오가 조금 앞으로 나갔을 때 누군가가 《진대나무림이다!》 하고 완성을 울리였다.

여름철에 행군대오의 자취를 감추는데서는 진대나무를 타는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니 대장군님께서 벌써 천리혜안으로 이것을 예견하시고 대오를 이곳으로 이끄신것이였다.

한편 행군대오들 앞뒤로 조여들던 왜놈 《토벌》대놈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앞에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날 행군대오의 뒤를 정신없이 따르던 《토벌》대장놈은 상부로부터 행군대오의 앞길을 차단하였다는 소식을 받고 《요시-》하고 무릎을 탁 쳤다.

《사사끼가 앞을 막았던 말이지. 이젠 제아무리 신출귀몰하는 빨찌산이라고 해도 빠질 길은 없다. 야! 두달동안이나 밀림속의 깔따구와 진드기에 물어뜯기면서도 검질기게 추격해온 보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최후승리를 위하여 육탄으로 도즈께끼!-》

밀림속에서 코가 얼어 시뻘개진 신파로 《토벌》대장놈은 일본도를 뽑아들고 제법 돌격구령까지 내리였다.

맞은쪽에서도 행군대오의 앞길을 막고있는 사사끼 《경찰대장》이 그에 질세라 목에 피대를 둘러 소래기를 질러댔다.

《야야, 저절로 굴러온 호박을 저 돼지같은 신파로에게 빼앗길수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렸다가 빨찌산이 나타나면 모조리 생포하라!》

하지만 멀리서부터 포위환을 좁히며 들어오던 신파로네 부대도 횡재를 기다리며 매복을 하고있던 사사끼경찰대도 결국 헛탕을 치고 개싸움만 벌리다가 돌아갔다.

정신없이 서로 치고받고하던 두놈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로 토의를 하고 문구를 맞추어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천황폐하》의 아들들인 신파로 《토벌》대

와 사사끼경찰대는 《도뜨께끼-》를 웨치면서 용맹하게 진격하였으나 헛물만 켜고말았은즉 사면포위에 빠졌던 빨찌산이 갑자기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것을 각하께 보고드리 는바입니다.

그것은 아래에 열거하게 되는 각 징후들을 보고 알수 있는바

첫째로, 무연했던 라자구등판에 전에 없던 진 대나무림이 갑자기 나타난것이며

둘째로, 빨찌산이 사라진 곳을 보니 그 진대 나무들이 하늘로 오르는 계단처럼 차곡차곡 포 개져있었다는사실 ...

셋째로, 황군의 두 부대가 맞붙어 싸우고있을 때 하늘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는 움 직일수 없는 사실들이옵니다.

그러나 《천황폐하》의 충직하고 정직한 제 국장교들로서 가장 솔직히 말하게 되는것은 우 에 열거한 각 징후에 앞서 패전의 중요한 요인 이 바로 빨찌산소부대속에 신출귀몰하는 축지 법장군 백두산대장수가 계셨다는 사실이옵니다.

각하도 잘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백두산대장 수는 우리 백만관동군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천출명장이라 허허벌판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 다리썸 만들어내는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빨찌산추격전의 실패는 천만번 웅당한것임을 아뢰나이다.

제국에 충실한 두 장교로부터 ...

김종석

아버이

김 연

1

우리 손이 오늘처럼 이렇게 억세인것은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기때문입니다
반만년력사 그 누구도 잡아본적 없는
인민의 그 손을
바로 그이가 잡아주셨기때문입니다

저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함을 주시고
저 백두의 거창한 산악파도 같은
불굴함을 주신 수령님의 손길!
그 손길에서 인민은
운명의 화불인 주체를 받아쥐였습니다
아, 우리 수령님 잡아주심으로 하여
우리의 손은
운명개척의 고삐를 틀어쥔
무궁무진한 힘이 되었습니다

2

우리 삶이 무척 아름다운것은
우리 수령님의 력사가 우리앞에
눈부셨기때문입니다
단 한걸음도 자신을 위해 걸으신적 없으신
그 한생의 빛이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닦아주었기때문입니다
산에 산을 넘고
눈에 눈을 헤쳐

피바다 불바다 다 넘으시며
조국과 민족위해 바쳐오신 한평생!
수령님을 닮아
값높은 자기 헌신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
혁명위해 바치지 않고서는 부끄러운 이 시대!
인민의 삶이 이처럼 궁지로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 수령님의 탄생과 더불어
김일성민족의 긍지안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인민의 력사가
되었습니다

3

우리 녀이 류달리 강한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처럼 억세고 강한 자신의 모든것을
바로 우리 심장에 주셨기때문입니다
백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없는 그 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언제한번 주저하거나 뚫지 못한적 없는
불굴의 그 녀이 오늘은
선군으로 승리를 펼쳐가는
내 조국을 굳게굳게 떠받들고있습니다
그 녀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아, 민족의 녀이며 조선의 녀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이시여!
조선의 영원한 아버이이시여!



진재환

련대는 산언덕을 내려 흰하게 열려진 골짜기에 들어섰다. 시루속처럼 숨막히는 수림속을 헤쳐 또 하나의 험한 산을 넘어선 대원들은 짜거운 땀이 습배인 눈을 크게 뜨고 앞길을 바라보았다. 더위와 행군에 지친 그들은 골바닥에 내려서면서 시원한 한줄기의 강물이 흐를것을 바랐으며 서늘한 바람이 불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골바닥의 더위는 더 심했다. 뙰아진 신바닥은 단 돌에 녹아붙고 메워진 운두구멍으로 박여든 돌부스레기는 총알처럼 발잔등을 따갑혔다.

땡별은 정수리를 지지고 열풍은 숨통을 죄었다.

덩지 큰 산들도 더위에 까무라친듯 기척없이 꾸역꾸역 흰구름을 뿜어올리고있었다.

행군은 간고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불사신처럼 대형과 간격을 보존하면서 불도가니속같은 산골짜기를 건너지나고있었다.

경애하는 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선두중대의 마지막위치에서 행군하고계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두리에는 이번 초여름에 유격근거지를 떠날 때 입대한 어린 대원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따라걸고있었다. 그들이 얼마만큼 잘 걸어내는가 하는데 따라 이번 행군의 속도가 결정된다.

어린 대원들을 친히 거느리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번갈아가며 그들의 총과 배낭을 대신 메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피곤을 느낄새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며 앞장선 중대와 뒤따르는 중대들을 살펴보시였다.

어린 대원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것이였다.

《야, 숲속보다 더위가 더 심한데...》

누구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다. 산언덕을 내려설 때는 산을 오르기가 더 힘든가 내리기가 더 힘든가 하고 끝없이 속삭이던 그들이였다. 그들은 다시금 겨울추위가 더 배찬가 여름의 더위가 더 배찬가 하며 속삭이고있었다. 그렇지만 눈이그뻑 쌓였으면 좋겠다는 말에는 모두가 동감이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단 인두처럼 뜨거운 충신을 옮겨메시며 생각하시였다.

(모두들 무더위와 갈증에 태를 치는군!)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대렬앞쪽을 살펴보시였다.

(눈은 커녕 샘구멍이라도 하나 나졌으면.)

대렬은 조용히 걸어가고있었다. 무더위와 갈증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의지와 패기의 상징인 대오의 줄기찬 전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오가 골바닥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묵묵히 걸어가던 대렬에 약간한 파문이 생긴것을 감촉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선두중대 행렬에서 대원들의 감정에 영향을 준 어떤 정황이 생겼으며 그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대형의 균형과 간격이 흐트러졌으며 정상적이고 고르로운 행군속도가 깨여졌음을 감촉하시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미가 대원들의 심정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적과 부딪혔을 때처럼 긴장되고 엄숙한것은 아니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손채양을 지으시고 앞쪽을 바라보시였다.

제일 앞에서 걸던 련대장이 옷단추를 채우며

부지런히 돌파서 오고 있었다. 남들은 더위에 노그라져 땀투성이가 된다고 하지만 이현결찬 런대장은 힘이 넘치며 땀을 뺏는다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고 묻는 듯 하는 수많은 대원들의 눈길을 외면하면서 바쁘게 걸어오고 있었다. 런대장이 그쯤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령관동지!》

런대장은 어버이장군님 앞에 서서 보고할 자세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대오의 행군을 계속시키기 위하여 옆으로 서너걸음 물러서시었다.

《행군을 잠시 중지하고 간단한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런대장의 얼굴에는 갈피없는 불안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땀범치고 있었다.

《런대장동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회의는 왜 하려고 합니까?》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손수건으로 눈언저리를 짖으시며 물으시었다. 런대장은 실수한 듯 미소를 지었으나 불안한 기색은 지우지 못했다.

《사령관동지, 방금 대오앞에 원두막이 나졌습니다. 참외밭이었습니 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런대장에게 되물으시었다.

《참외밭이 있단 말입니까?》

런대장은 어버이장군님께 보고를 계속 올리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참외밭이 있을 줄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동무들이 참외밭이 있는 것을 보자 너무나 신기하여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소식이 삼시에 퍼지자 온 중대가 웅성거립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생각해 보시었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한 60리 더 가면 500호쯤 되는 큰 《집단부락》이 있다. 그러니 원두막이 나질 법 하기도 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참외밭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자 빙그레 웃으시었다.

《우리 동무들이 신기해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동무들은 없었습니까?》

런대장은 어버이장군님께 말씀 올리였다.

《더위때문에 모두 갈증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외 한개만 먹으면 숨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이러하니까 어린 대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특히 우리 인민혁명군의 규률에 익숙되지 않은 신입대원들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 참외밭을 지나기 전에 간단한 회의를 열고 참외냉쿨 하나 밹지 않도록 미리 정치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백명이 지나

가느라 참외 냉쿨을 밹을 수도 있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런대장이 제때에 보고해왔다고 생각하시었다. 런대장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규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드릴 수 없는 규률의 하나이다.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강철같은 규률정신으로 교양되고 자라난 런대장은 전번에 있는 북만원정의 길에서 자기가 류숙하기로 된 집이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집안에 들어가기로 끝내 거절하고 봉당에서 추운 겨울밤을 지새운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런대장은 자기 런대에서 군중규률을 위반한 일은 한번도 없었으나 그래도 선손을 써서 대원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때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얼핏 어린 대원들에게로 눈길이 가시었다. 서너걸음 밖에 서있는 어린 대원들은 저희끼리 속삭이고 있었다.

《야, 참외! 참외를 한개만 먹었으면!》

《참외라는 게 뭔데?》

《동문 참외도 몰라? 촌에서 살았다면서.》

《모르는 사람까지 알려줄 필요 없다. 이런 때 한개 서걱서걱 먹어봤으면, 야.》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얼굴을 살펴 보시었다.

참외라는 말만 듣고도 기뻐하고 있었으며 생기를 띠우는 것이었다.

런대장도 그들의 말을 들은 모양 한층 더 절박하게 말했다.

《대원들에게 참외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옆에도 가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런대장의 절절한 이야기 보다는 어린 대원들의 얼굴에 관심이 가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참외를 모른다는 대원의 짧은 경력을 회고해 보시었다. 정말 그는 참외를 보지 못했을 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자식들에게 꼭 배워주어야 할 것을 아직 배워주지 못하신 것 같으셨다.

그리고 참외가 무엇인지 알고 얼굴에 욕망과 기대를 그리는 어린 대원들에게서 눈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었다.

회의를 한다면 규률은 강해질 것이다. 참외밭에 가기는 커녕 눈길도 돌리지 않을 것이며 모르고 밹을 걱정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의만 해서는 참외를 먹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할 수 있겠는가! 욕망은 규률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 대원들을 위해서는 규률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그들의 욕망도 풀어주어야 할 지휘관들이 아닌가 지휘관은 그래서 병사들의 만형이

되어야 하며 만수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렬은 참외이야기로 웅성거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런대장은 자주 앞길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인가가 참외밭을 밟을것 같아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런대장동무의 생각대로 하시오. 아무튼 행군을 멈추시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원두막에 가봅시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지시하시였다.

《휴식-》

《휴식-》

앞으로 뒤로 명령이 전해졌다. 강물도 없고 음달도 없는 뺑벌밀에서 때아닌 휴식명령을 받은 대원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모두 참외, 참외하며 웅성거리였다.

런대장은 재빨리 런대정치위원회에 자기의 생각을 전하여 사업을 벌리게 하고 총망히 사령관동지를 따라섰다.

참외밭은 되바라진 산밭밀에 있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산기슭을 따라 걸으시며 참외밭을 살펴보시였다. 사태가 길게 늘어져있는 꽤 큰 참외밭이었다. 참외넙쿨은 더위를 타서 뒤집혀지고 잎은 오그라들어 바람이 불면 날아날것 같은데 이파리속에서 영가시같은 손이 빠져져나와있었다. 이랑에는 번들번들한 참외가 데굴데굴 깔려있었다. 열골내기, 땡쫂이참외, 노랑참외들이 섞여있었다. 밭쪽에서는 잘 익은 참외의 향그런 맛이 풍기여왔다. 참외밭둘레와 네귀에는 콩, 팥. 광증이, 록두, 강냉이, 수수. 기장 같은 낫익은 곡식들이 몇대씩 서있었다. 에부수수한 이랑우에는 이따금 상추며 중갈이배추며 근대들이 피엎피엎 널려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돌연 어린 시절이 떠오르시였다.

할아버님께서도 여름마다 원두를 놓으시곤 하시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더위와 모기를 피하시여 원두막에서 책을 읽으시고 밤을 보내시던 일이 옛그제 일 같으시였다. 원두막다락에서 대동강물결소리를 들으시며 책을 읽으시기도 하시고 할아버님의 일을 도와주시기도 하시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주변을 둘러보시였다. 화라지가 찍 갈라진 락락장송밀에 기르마만 한 원두막이 있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스적스적 원두막으로 향하시였다.

그곳에는 발주인이 없었다. 원두막안팎에는 부지런한 주인이 방금까지 앉아있은 흔적이 력력했다.

나무가지와 새초를 돌기돌기 쌓아 만든 곱새막의 경사진 지붕에는 날림으로 걸은 짜리채와 타래를 친 비사리가 되는데로 없혀있었다. 원두막앞에는 가운데가 패어들어간 개상이 놓여있었는데 그옆에는 호심경같은 달밀이 반들반들 윤이 나는 웅술이 뒤집혀져있었다. 멍석이 깔린 움막안에는 조자리를 제물땀한 중두리가 놓여있고 다른쪽에는 불돌과 부처가락이 담긴 오지화로가 놓여있었다.

멍석자리가운데에는 목침과 나무로 만든 담배통이 놓여있었고 담배통안에는 막불경이 한 줌과 동거리담배대가 들어있었다. 그옆에는 호미자루와 호미날이 저마끔 떨어져있었는데 호미의 슴베에 삼오리를 감다가 그대로 놓아둔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신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원두막주인이 방금 호미자루를 맞추다가 사람들이 나타난것을 보고 어디론가 숨어버린것이라고 짐작하시였다. 그러니 이 주인은 산속에 살면서도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사람단련을 받아온것이 틀림없었다.

《원두막주인을 찾아보시오. 가까운데 숨어서 걱정하고있을것입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엄숙히 따라선 지휘관들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곧 원두막주인을 찾으러 대원들이 떠났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이 하얗게 땀이 워진 달밀을 이상한 눈길로 보는것을 느끼시고 말씀하시였다.

《짐승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발주인은 달밀을 치며 쇠소리를 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만한 호신책이 될수 없습니다. 막에서 곧바로 나무로 올라갈수있게 막자리를 정한것을 보시오. 큰 짐승과 맞다들리면 나무로 올라가야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바람벽에 작은 짚신이 걸려있는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어보시였다.

《원두막주인에게는 어린 손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막안을 보시고도 주인의 살림형편과 가족까지 짐작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인을 기다리시며 원두막뒤쪽을 살펴보시였다. 그곳에는 군불을 때는 아궁이 있었는데 아궁이에서는 지금도 아지랑이같은 가느다란 연기가 가물거리고있었다. 아궁이옆에는 화로에 쓸수 있는 돌들(뜬숯)과 냉파리(팔은숯)가 따로 무져있었고 한쪽에 놓여있는 짜리섬에는 참숯이 빼곡이 차있었다. 원두막주인은 귀한 성냥을 마질겸 숯을 구워들겸 불을 죽이지 않고 혼한 장작을 군불로 때고있었다.

막주변에는 따비며 우비칼이며 도끼, 호미 등 연장들과 멍구럭, 줄망태, 밭채기에 오갱이, 짜

리섬들이 저마끔 흩어져있었다.

《산속에서 로력으로 바꿀수 있는 물건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 한 이불 한패기 보이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만경대초가집과 할아버님이 생각키우시였다. 바자게에 얹혀있는 밧그스레한 짜리밧채는 할아버님께서 쓰시던것과 똑같아보이시였다.

아마 이 참외밭주인도 자식들과 손자들을 많이 둔 할아버지일것이었다. 몇푼의 돈을 구해 공한 살림을 보탬하려고 이런 깊은 산속에 원두를 놓았을것이었다. 참외는 소담할 정도로 잘 되였다. 그러다가 웬 사람들이 나타나자 한해농사를 거덜냈다고 생각하며 어디에 숨어서 속을 태울것이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나무그늘밑에 앉으시였다. 새록새록 일어나는 고향생각으로 원두막주인을 만나시고싶은 마음이 더 굳어지시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로인이 습배에 삼오리를 감은 호미를 드시고 자루를 박으시였다.

《그래 회의를 했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련대장에게 물으시였다.

《지금 곧 시작할것입니다. 그런데 참외밭이 있다는 말을 듣자 모두 참외밭이 어느쪽인가고 물으며 너물너물합니다.》

이때 선두위치에 있던 중대장이 웬 늙은이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희치희치한 벼옷으로 간신히 알몸뚱이를 가린 늙은이는 두손을 맞잡고 겁에 질린 눈으로 화라지밑으로 오고있었다. 늙은이의 다박나룻수염은 꼭 패인 울대밑에 늘이웠는데 해질대로 해진 옷에서는 수염오리만한 푸서 한오리도 너풀거리는것이 없었다. 무작정 허리를 굽히는 늙은이의 잔등에는 너덜너덜한 벼천이 겨우 등태를 가리우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늙은이가 곧 주인임을 알아보시였다.

원두막주인령감은 방금까지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움속에 숨어서 바깥동정을 살펴보고있었다.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것을 본 늙은이는 올해 참외농사도 다 틀려졌다고 생각하며 숲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했다.

그런데 웬일인? 사람들은 자기 원두막의 참외를 알아보자 와르르 달려드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서 물러섰다. 참으로 상상밖의 일이었다.

이런 더위에 참외밭을 보고 좋아하며 달려드는것은 꼭 나쁜 사람들의 소행만도 아니다. 그닥 나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런 날 참외맛을 보자고 할수도 있다.

결과는 주인에게 손해를 주지만 복철에 참외를 먹자는것은 아플 때 약을 청하는 일쯤 여겨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사람들은 참외를 보자 밧에 달려들긴 고사하고 오히려 피하는것이 아닌가!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려고 녀굴 한줄기 밟을세라 길을 예도는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풍상고초를 겪을대로 겪은 늙은이에게는 오히려 한가닥 소년다운 호기심이 일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인간의 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고싶었다.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풀숲 움속에서 밖을 내다보던 늙은이는 스스로 어정어정 걸어나왔다. 그래서 유격대지휘관들은 원두막주인을 쉽사리 만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늙은이의 얼굴에는 조심하고 경계하는 기색이 가셔지지 않았다. 늙은이는 아무말없이 장군님앞에 와서 허리굽혀 절을 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늙은이의 허리를 퍼주시며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너무나 더워 좀 쉬어가려던 참이였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쉬기조차 마음이 켜기였습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늙은이의 손을 이끄시여 화라지그늘밑에 앉게 하시였다.

《예, 무척 날이 덥습니다. 가만히 막안에 앉아있기조차 벅찬데 산길을 걸으시자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어서 꼭 쉬어가십시오.》

늙은이는 레절차게 말하였으나 경계심과 불안은 사라뜨리지 못하였다.

늙은이는 무인산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를것이었다. 이 지대 인민들은 아직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를 직접 보지 못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묶어세우기 위하여 이번의 행군을 설계하시였다. 그리하여 늦은 봄부터 련 석달째 닳선 고장을 찾아 행군하며 적을 치고 인민들을 각성시키는 길이지였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늙은이가 우선 안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치 않은 질문을 하시였다.

《로인님, 산속 원두막치고는 꽤 큰 축입니다. 참외가 잘되였습니다.》

늙은이는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있었다는듯 느닷없이 줄망태를 들며 말했다.

《참외는 가물어야 잘된답니다.》

늙은이는 곧 참외를 따러 갈 심산이었다. 늙은이는 어찌선지 아무튼 이 길손들에게 참외를 대접하고싶은 마음이 강했던것이다.

《어서 앉으십시오. 담배를 한대 피우시지 않겠습니까? 로인님의 담배대는 막안에 있더군요.》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부디 늙은이에게 가치담배를 권하시였다. 늙은이는 할수 없다는듯 옆에 앉아서 담배를 빨았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자루를 맞춘 호미를 늙은이에게 돌려주시였다. 늙은이는 호미자루에 슬그머니 힘을 넘어 뽑아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뿌리를 내린듯 끄떡도 안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변함없이 인자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여기서 인가가 썩 벌겠는데 참외농사를 지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꼬장꼬장한 늙은이는 심정이 움직여졌는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하기야 할짓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벌렸지요. 푸서리를 푸지여 이만한 밭을 만들기가 어디 험합니까. 봄내 여름내 키워 잘 익은 참외를 한발채 지고 사오십리 걸어가야 20~30전씩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축내는 소금값도 되나마나 하지만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숨이 붙어있으니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고 목숨이 원쑤되어 이 놀음입니다.》

굼주림과 고역에 허기지고 돌피진 앙상한 로인의 몸은 불안과 공포를 사그려뜨리고 차차 안정되어갔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늙은이에게 살아가는 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물으시였다. 늙은이는 마치도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아픈 속을 쓰다듬어주는 은인을 만난듯 순진하게 자신의 피로움을 털어놓았다.

늙은이에게는 40이 되어 장가가서 본 끝끝한 아들과 무던한 며느리가 있었으며 귀염둥이 손자도 있었다. 로인의 기쁨, 로인의 희망은 그들이였다. 그러나 살림은 말이 아니였다. 늙은이는 대여섯해전부터 산속에 들어왔다. 자식들을 돕는 방법은 자기입을 더는 길밖에 없었다. 하루만 보지 못해도 죽을것 같은 손자를 뿌리치고 심심산골에 들어박혀 여름에는 밭을 푸지고 겨울에는 잔불농이를 하며 연명해오고있었다. 늙은이는 잘 익은 참외를 손자녀석에게조차 툇퉇히 먹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떨어뜨리는것이였다. 그의 불우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음이 피로우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서서히 걸으시여 원두막 앞에 이르시였다.

밭에 널려져있는 참외들이 참외로만 보이지 않으니였다. 참외넝쿨 한줄기 밟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면 편대장의 우려는 공연하지 않았다.

《로인님, 저 밭의 참외를 다 내다 팔면 돈을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비분을 이기시며 다시금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늙은이는 심드렁한 기색으로 말했다.

《저것이 돈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 곡절없이 메다 다 판다 해도 모르겠는데...》

로인은 말을 맺지 못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따져물으시였다.

《지난해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난해는 공으로 거덜냈습니다.》

산중에 나타나는 비적들이 해마다 원두밭을 송두리채 판내군 하였다. 결국 늙은이는 허심쓰레기를 주어다 손자에게 주었다. 손자애는 해마다 참외를 먹지만 아직 참외맛을 모른다고 했다. 늙은이는 아마 이번에도 위불없이 다 익힌 참외를 거덜낼줄 알고있었을것이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몇번 다시 물으셔서야 원두밭의 참외값을 아실수 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늙은이에게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지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로인과 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시고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어버이장군님의 말씀을 들은 늙은이는 입이 하 벌어지는것도 모르고 그이를 우러러보고있었다.

《아, 그러십니까?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럼 백두산정기를 지니시고 태어나신 **김일성** 장군님을 보셨겠습니까, 예?》

늙은이의 말을 들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웃으시였다.

《로인님, 바로 이 동무들을 보면 장군을 본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군한테도 로인님과 같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늙은이는 경계심과 꺼려하는 기색이 없는 전혀 새로운 눈길로 지휘관들을 둘러보다가 돌연 줄망태를 메고 밭으로 들어섰다.

《올해는 내가 이런 경사를 보려고 참외도 류달리 잘된 모양입니다. 내 이제 잘 익은 참외를 한망태 따오리다.》

원, **김일성** 장군님의 군사를 만나보다니 ...》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로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슬퍼집니다. 몇해 살지도 못할 늙은이가 오죽하면 무릎앞에서 기는 손자까지 뿌리치고 홀아버isal림을 결심했겠습니까? 그대로 밭길이 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휘관들은 묵묵히 피로움을 새기고있었다. 아버지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았던것이다.

잠시후에 늙은이는 줄망태가 넘게 참외를 따가지고 왔다.

《항일유격대어른, 늙은이의 지성으로 알고 맛보시우. 더위엔 참외가 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서 하나씩...》

늙은이는 깨끗한 오쟁이를 펴고 그우에 참외를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늙은이는 막에 들어가 손칼을 가져다놓은 다음 다시 줄망태를 메고 밭으로 들어갔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치도 참외를 자시려는듯 노랑참외 한개를 드시고 보시였다. 향기로우면서도 시원한 감을 주는 참외향이 가질게 풍기였다. 지휘관들은 참외옆에 뺨 둘러섯으나 감히 참외에 손을 대지 못했다.

(기구한 늙은이,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키워서 사랑하는 손자녀석에게도 먹이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 참외를 볼때마다 손자생각이 오죽할가?...)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눈언저리가 뜨거워지시였다.

이때 련대정치위원이 왔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시였다.

《우리 동무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있습니까?》

정치위원은 중대별로 모임을 벌리고있음을 보고 드리였다.

정치위원의 보고를 들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회의를 벌리고있을 대원들을 그려보시였다. 그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계급적사명과 인민적 성격에 대해서 토론할것이며 인민의 재산을 다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할것이다.

그래서 참외밭의 넉쿨 한줄기 밟지 않도록 조심히 지날것을 결의할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나어린 대원들이 속삭이던 말들이 생각나시였다. 갈증에 몸부림치던 그들이 내심 얼마나 참외를 먹고싶을가, 또 그들속에는 참외가 어떤 열매인지조차 모르는 젊은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참외를 따먹지 않을것이며 참외밭 가까이에도 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있을것이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며칠동안 산속에서 몇알의 강낭쌀로 끼니를 예우면서도 기운차게 행군해오던 대원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그들은 자신의 주립과 더위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밖에도 내지 않았다. 이 고장은 더위가 왜 이리도 지독한가, 우리 고향같으면 아무리 높은 산에도 샘이 솟고 내물이 있는데 여기는 하루종일 결어도 물이 없다. 고향같으면 밤, 대추, 머루, 다

래가 쌓였겠는데 여기는 쿵알만한 열매 하나 없다. 고향같으면 골짜기마다 원두막과 오이막이 있고 하다못해 무우밭이라도 있겠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리고보면 우리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도 먹을것이 많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하면서 굶주림과 더위를 이겨내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그들앞에 원두막이 나졌는데 그것 하나 먹이지 못한단 말인가?

물론 규률은 누구도 어길수 없으며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지휘관은 대원들의 심정을 잘알고 친부모의 심정, 만형의 심정으로 규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건을 지어주며 잘 돌봐주어야 한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참외를 보여주시고 시원하게 먹이고싶은 생각이시였으며 소담스러운 참외를 보실수록 그 욕망이 강해지시였다.

참외밭 늙은이는 줄망태에 참외를 그들먹하게 따매고 왔다.

《로인님, 기왕이면 제일 푹푹하고 잘 익은것으로 한망태기 더 따오십시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뜻밖에도 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예, 어서 쉬엄쉬엄 많이 드십시오. 후담에도 김일성장군님을 뵈게 되면 이 늙은이가 장군님을 대접하듯 군대어른들을 대접했다고 말씀 올려주시우. 이런 망태기로 따내서는 자리도 나지 않습니다.》

늙은이는 웃음을 지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깨끗한 오쟁이에 참외를 넣으시였다. 열매들이 치일세라 한개씩 드시여 오쟁이밑에 차곡차곡 쌓으시였다. 영문을 알리 없는 지휘관들은 의아쩍게 생각하는 눈길로 오쟁이아구리를 잡아드렸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농익어 물소리가 나는 속이 군 참외는 빼놓고 제일 신선한것들만 골라넣으시였다. 오쟁이배가 불룩해졌는데도 그이께서는 담쭈담쭈 넣으시였다.

오쟁이안에는 잘 익고 싱싱한 참외가 세망태기나 들어갔다. 그것을 본 참외밭 늙은이는 무척 이상쩍어해하는 눈치였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오쟁이를 들어보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이만하면 됐겠습니다. 로인님, 참외가 일매지게 잘 익었습니다.》

늙은이는 의아해하는 기색을 지우지 못한채 말했다.

《예, 지금이 한철입니다, 이제 강쇠바람만 오면 익었던 참외맛까지 달라진답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또 밭에 들어가

러는 늙은이의 손목을 잡으시었다.

《로인님, 잘 익은 참외를 보니 탐이 납니다. 우리 동무들이 지금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땀별속을 내쳐 걸어오고있습니다. 그러니 이 참외를 우리한테 발채로 팔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늙은이는 참외가 담긴 오쟁이를 보며 다급히 말했다.

《원, 이런 별맞힐 말씀 삼가해주시오. 조선백성이 **김일성** 장군님의 군사를 받드는것은 응당한 일인데 팔고사고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가 땀흘려 가꾼 참외를 **김일성** 장군님의 군대에게 대접한다면 일생에 그이상 자랑이 없겠습니다. 저까짓것들을 몽땅 걸어서 메다판대야 손자아이 때때옷 한벌값도 안나옵니다. 어서 모두들 돌려앉아 달게 자십시오. 여기서 자실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면 발의 참외를 모두 따가 기라도 하십시오. 정녕 늙은이의 지성이옵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늙은이가 발으로 들어간 다음 런던장, 런던지휘성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동무들이 며칠째 더위때문에 무척 힘겨워하고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먼 길을 걷고있습니다. 참외발이 있다는 것을 알고야 왜 먹고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물론 엄격한 규률우에 회의까지 했으니 참외발을 다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이 참외발을 보며 그냥 지나기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어린 대원들중에는 아직 참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참외발주인이 원두를 놓은 목적은 판매 있는것이 아니라 몇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동무들이 이야기를 들은것처럼 로인님은 살길이 없어 이런 일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늙은이를 도와주고싶지만 당장 무슨 판매방법이 없습니다,

참외발을 통채로 우리가 사줍니다. 그리고 참외값은 늙은이가 말한것보다 열배쯤 되게 치릅니다. 늙은이도 우리들한테서 그냥 돈을 받는것보다는 나을것입니다. 그 돈이면 늙은이가 얼마동안 아들, 손자, 며느리들 다 모여서 궁색한 살림을 조금이나마 쉼수 있을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합니다. 우리 동무들이 모두 참외발에 들어서서 마음껏 참외를 따먹으며 늙은이와 이야기도 나누며 친숙해지게 합시다. 선 참외를 따거나 녀쿨을 다치는 일은 없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내가 물겠습니다.》

런대장도 장치위원장도 모두 머리를 숙이였다. 돈이 없는것이 아니였다. 그들의 생각은 가장 원칙적이고 정당한것 같았으나 늘 아버지장군님의 아량과 웅심에 비하면 옹졸하고 편협했다.

런대장은 곧 중대장들에게 아버지장군님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오래지 않아 대오는 참외밭에 들어섰다. 소대들이 한이랑씩 맡아 차지했다. 참외밭에서는 이윽고 웃음소리, 룡말소리가 터져일었다. 그중에서도 인기는 참외밭주인늙은이였다. 참외를 하나 먹었으면 하고 단침을 삼키던 대원들은 참외는 따서 들기만 하고 늙은이한테 말을 자꾸 시키는것이였다. 무더위와 강행군속에 지쳤던 대오는 산을 옮길듯 한 기세와 활력을 나타냈다.

《동무들, 시간이 많지 못하오. 말만 하다간 참외맛을 못보고 후회할수 있소.》

아버이장군님께서는 쾌활하게 말씀하시며 발으로 들어가시었다.

대원들이 와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은 저마끔 참외를 내들고 자기것이 잘 익었다고 아버지장군님께 권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이 권하는 참외들속에서 배꼽이 볼록한 노랑참외 하나를 골라드시었다. 먹음직하게 생긴 참외였다.

그이께서는 손칼로 밑둥 량쪽에 손잡이홈을 파내신 다음 배꼽을 따시고 옷도리부터 껍데기를 내리벗기시었다. 노랑참외는 순간 진한 향기를 물씬 풍기였다.

《택봉동무, 어디 있소?》

아버이장군님께서는 물이 흐르는 참외를 드시고 대원들속을 살펴보시었다. 택봉이란 아직 참외가 무엇인지 모른다던 젊은 대원이였다.

아버이장군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이앞으로 뛰어온 택봉이는 어쩔바를 모르고 눈만 습벅거렸다.

《어서 참외맛을 보오. 참외는 노랑참외가 다오.》

옆에서 감격에 어린 눈으로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르던 로인은 그이의 소매를 끌었다.

《저기 저쪽으로 가십시오. 참외는 이 늙은이가 잘 알지요.》

아버이장군님께서는 늙은이의 정을 뿌리치실수 없으시여 가자는대로 가시였다. 원두막앞 참외를 넣은 오쟁이앞에는 여러문개의 주먹만 한 작은 참외들이 놓여있었다. 노랑참외, 얼룩참외, 청참외들이였다.

《이것을 하나 드십시오. 그대로 꿀맛입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소담한 참외를 하나하나 드시여 냄새를 맡아보신 다음 참외가 그들먹한 오쟁이에 그것들을 더금더금 쌓으시었다.

참외발주인은 아마 오쟁이에 담긴 참외를 가지고 가시려는줄로 생각했을수도 있다

《로인님, 불같은 별이 쏟아지는데서 참외를 먹으니 그 맛이 별맛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늙은이는 그이께서 가장 달고 맛이 있는 참외를 사양하시는것이 좀 섭섭했으나 여전히 기쁜 마음이었다.

《올해에 원두를 논 보람이 큼니다. 다음해에도 또 농쟁으니 꼭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놓지 못한것이 후회됩니다. 설사 다시 만나 뵈옵지 못하는 수가 있어도 부디 오래도록 이 늙은이의 소원을 생각해주십시오. 늙은것은 **김일성** 장군님의 항일유격대가 꼭 조국을 찾아 줄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오늘 장군님의 군대를 직접 보고나니 앞길이 환해집니다.》

소대장들이 차례로 와서 참외발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늙은이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세상에서 **김일성** 장군님의 항일유격대처럼 훌륭한 군대는 처음 보노라고 탄복했다.

련대장과 정치위원이 온것을 보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곧 떠나야 하리라고 생각하시였다.

《로인님, 우린 이제 떠나겠습니다. 우리 동무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여 조국의 해방을 보아야 합니다.》

늙은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다.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아주십시오. 일일 천추로 해방의 날을 고대하옵니다. 자식들과 손자만이라도 제나라, 제 땅에서 활개치며 살게 해주옵소서.》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늙은이의 몸을 일으키시였다. 이께서는 참외가 가뜰스 불룩한 오쟁이를 가리키시면서 늙은이에게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이 참외를 지고 집에 가서 손자녀녀석한테 주십시오. 새들도 잘 익은 열매는 새끼들을 위해 남긴다는데 손자생각이 오죽하겠습니까.》

늙은이는 오쟁이의 참외를 손자에게 가져다주라는 말씀을 듣자 그만 다시금 덤벼치기 시작했다. 그안의 참외는 모두 그중 잘 익은것들이였다.

《그건 안됩니다. 그 참외는 **김일성** 장군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한이랑에서 한개씩 골라 판것입니다. 다문 한개라도 자셔야 합니다.》

늙은이는 흥분에 떠서 소리쳤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비통하신 기색으로 엄숙히 말씀하시였다.

《꼭 손자한테 메다주십시오. 나의 할아버님은 학대와 주림속에서 한평생 모든것을 빼앗기시였지만 자신께서 익히신 첫물참외는 손자들에게 먹이였습니다. 로인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돌아서시여 걸음을 떼시였다. 늙은이는 오쟁이안에서 꺼냈던 노랑참외를 높이 들고 그냥 하나만이라도 잡수셔야 한다고 권했으나 목이 갈려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련대장은 늙은이의 손에 봉투를 쥐여주었다. 그리고 늙은이가 그안의것을 보기 전에 흙모에 잠겨 말했다.

《로인님은 저분이 어떤분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분이 바로 백두산정기를 타시고 우리 나라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싸우시는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장군님이십니다.》

늙은이는 눈물에 젖은 가시주름살을 짙게 펴며 눈을 번쩍 떴다.

《예?... **김일성** 장군님!》

늙은이는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다시한번 우러르려는듯 한결음두걸음 나서며 들가리소매자락으로 눈언저리를 문대었다.

몸소 호미자루를 맞춰주시던 그분이, 늙은이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던 그분이, 제일 맛있는 참외를 손자에게 먹이라고 하시던 그인자하시고 고마우신분이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인품이 이처럼 인자하시고 고결하시니 한번 뵈온 사람들은 힘을 내고 앞길을 굳이 믿었다. 늙은이는 위대한 장군님을 다시한번 더 고심었다.

배낭을 메고 총을 멘 끝끝한 혁명군이 줄지어 지나가면서 늙은이에게 팔을 저어보이고있었다. 어버이장군님을 다시 뵈울수 없게 된 늙은이는 하얀 봉투를 꼭 그러안았다가 그속을 꺼내보았다. 봉투안에는 그가 아직 본일조차 없는 지전몽테기가 들어있었다.

《장군님, 이 해방없는 늙은것이 미처 인사 한마디 올리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집 3대를 살려주시였습니다. 장군님, 우리 3대는 영원히 장군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장군님, 부디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련대장과 정치위원, 이 련대의 지휘관들인 두사람은 참외밭을 둘러보았다. 아직 익지 않은 참외들이 많이 남아있었으며 술한 대원들이 밭에 들어갔었으나 녁쿨 한줄기 상한것이 없었다. 그들은 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는 늙은이에게 인사말도 변변히 못하고 원두막을 떠났다. 대렬에 들어서니 대원들은 싱글병글 웃으며 걷고있었다. 참외를 들고 보면서 병긋병긋 웃으며 걷는 대원들도 있었다. 기쁨과 힘이 융솟음친다. 그들에게는 이미 갈증과 땀병도 피로와 허기증도 문제가 아니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엄숙해지는 련대장과 정치위원에게 말씀하시였다.

《이것보시오. 참외를 한개씩 맛보이니 내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동무들이 총도 배낭도 더는 나에게 메우지 않습니다.》

어린 대원들은 유격근거지에서 갓 떠날 때처럼 활기에 넘쳐 그냥 웃기만 하며 거침없이 걸

어가고있었다. 련대장은 병사들처럼 웃을수만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체험은 심각했다. 자기는 대원들속에서 규률을 위반하는 사람이 생길까 보아 당황하기만 하였지 그들의 심정을 알아보고 그것을 풀어줄 방도를 생각하지 못했었다. 아마 대원들속에서 참외 하나라도 다쳤다면 그는 친동생처럼 사랑해오던 그 대원에게 어차피 엄격한 추궁과 제재를 가했을것이었다. 지휘관들의 태도와 립장이 모두 자기 같다면 병사대중이 어디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수 있으며 주림과 고통속에서 불사신같은 힘을 낼수 있겠는가.

아버이장군님께서는 갈증에 허덕이는 대원들에게 그심정을 제때에 헤아리시고 참외를 사먹이심으로써 규률을 어기지 않도록 해주시였을 뿐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기세를 돋구어주시여 행군에 박차를 가하게 하시였다. 이렇듯 아버이장군님께서는 일부 지휘관들에겐 걱정거리로 생각되던 참외밭을 이처럼 모두에게 기쁨으로 힘으로 되게 하시였다.

행군은 계속되고있었다.

8월의 해빛아래 천악만봉은 비늘처럼 겹쳐있

다.

언제부터 시작한 길이며 이제 얼마나 더 걸어야 할것인가? 원썬들을 죽이는 싸움터가 도착지이고 승리한 싸움터가 다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는 그들이였다. 앞만 볼뿐 그들은 승리와 영광과 기적으로 수놓아진 자신들의 로정을 돌아보는 일이 없었다. 한평생을 어버이장군님을 따라 앞으로만 달려갈 조선혁명의 전위들이였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뜻깊은 사연들이 생동히 간직되어있었으며 그것은 오직 혁명승리의 그날까지 그들을 달려나갈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련대장과 정치위원은 쉼쉼 걸어 자기 위치로 향했다. 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에 닿고 걸음발은 날개를 돋친듯 하다.

대원들은 아버이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함께 이날의 참외맛을 한평생 잊을수 없을것이었다. 하물며 이날 아버이장군님께서 보이신 모범과 가르치심은 련대장과 정치위원은 물론 모든 지휘관들이 대를 이어가며 본받고 리행하여야 할 위대한 귀감이였다.

1977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였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력사 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언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었다.

15년후 해방된 조국에서 당을 창건하고 어린시절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고향집 온돌방에 명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카툰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래아였고 씨앗이였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 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 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왔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이때로부터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즐기치게 진척되였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후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창건의 위업을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때문이다.》

닭알에 대한 이야기

김경기

산넘어 새벽하늘을 썰며
썩썩기 돌아치는 폭음소리에도
깊은 잠에서 아니깨던 박로인
닭이 해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네

(이제 우리 집 닭소리가 아니고?
미제를 죽치는 전선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낮과 밤 휴식없는
김일성 장군님께 부디 올려달라
취사원에게 말긴 닭들이 아니고?
설마하니...
최령감네 닭이겠지)

아직 들리지 못한 새벽하늘처럼
트이지 못한 생각 희미하기만 한데
불쑥! 로친이 닭알바구니 안고 들어서네
-령감! 장군님께서 글썽
아침저녁 모이를 주시며 이결...

가슴에 불덩이를 받아안은듯
허둥지둥 토방들을 내려선 로인
돌다리 개울 건너
경경 개짓는 싸리울바자 에돌아
조심조심
삽작문을 찌구둥 열려는데

구구구... 구구구 ...
닭무리 부르는 우렁우렁한 목소리
취사원에게 말졌던 살진 닭들이
빨간 벼를 흔들며
장군님의 장화목 사이사이로
모여 들었다 흠어들었다...

아빨싸!
로인장은 그제사 닭의 목을 비틀어
취사원에게 말기지 않았던것을
때늦게 후회하는데
장군님은 닭알 한알
깨칠세라 한손에 꼭 쥐시고
다른 손으로 모이를 뿌리신다

구구구... 구구구...

로인장은 그만에야 눈물이 펑그르
정녕 이게 꿈이라면
세상에 이런 꿈도 있을고

오호, 그 꿈을 깨치듯
썩썩기가 산넘어 덮칠듯 달려들었네
놀란 병아리들은
어느새 엄지닭 품으로 숨어들고
로인은 황급히 삽작문 열고
장군님께로 달려갔네

빨리 자리를 옮기시라고
로인은 간청했건만
장군님은 빙그레 미소를 담으시고
살며시 입가에 손을 대신다
-쉬잇!
로인님,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로인은 어안이 벙벙...
썩썩기의 소음속에 무슨 소리 들릴가?
그러는 로인의 귀에 대고
장군님 건넌시는 귀속말
-지금 암닭이 알을 낳으려 한단 말입니다

오호, 이분이시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인민이 보내온 소를 되돌려보내신분
전시의 한 농가집살림 걱정하시며
팔리지도 않는 여섯마리 메새를
친히 사주신분!

옮거니!
철썩- 로인은 무릎을 쳤네
(우리 장군님은 암닭의 알 낳는 소리로
전쟁의 소음을 짓누르셨도다!
이게 어찌 닭알일텐가
전쟁을 이기는 영웅조선의 대포알이지,
암, 그렇구말구)

하나의 생활세부도

소설작품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생활세부는 자그마한 세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체가 무수한 세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듯이 소설작품도 수많은 생활세부들로 엮여지게 된다.

그런만큼 소설에서 생활세부를 잘 형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에서 자그마한 생활세부라도 소홀히 하면 작품전반의 진실성에 큰 손상을 끼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에 묘사되는 생활의 세부들을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고리로 보시고 작가들이 소설에서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오래 남을수 있는 생동하고 인상적인 세부를 잘 형상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는 한밤중에 백리허숲속을 헤매던 일제수비대 한개 중대가 이리떼와 맞다들어 녹아나는 통쾌한 장면이 있다.

소설전반에서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 이 세부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완성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소설의 줄거리를 들어주시고 작품의 철학적깊이와 형상의 심도를 보장하도록 밝혀주시면서 훌륭한 소설로 완성하라고 따듯이 고무해주시였다.

어에 고무충천한 작가 석윤기는 반년만에 장편소설의 초고를 써냈다.

하지만 작품은 력사적원형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그리면서 그를 전형화할데 대한 요구를 옹계 구현하지 못하였다.

원형인물의 성격과 생활자료, 복잡한 력사적 사건들과 얽혀진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로 그려야 원형에 충실하면서 개인전기로 되지 않게 형상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없었기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일군도 어느 창작가도 옳바른 방조를 줄수가 없었다.

작가의 이러한 고충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을 통하여 예술적전형화의 원칙에서 복잡하게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고 작품의 수정방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그후에도 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로 세심히 지도하여 주시면서 하나의 생활세부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시였다.

작가는 장편소설에서 중동선을 통해 수송된 한개 중대의 일본수비대가 밤낮 사흘간의 강행군끝에 마침내 백리허숲속에 다달으며 그밤으로 숲속을 꿰질러나가는 장면을 설정하였다.

섬에서 나서자라 밀림이라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제놈의 애송이중위가 있을수 있는 재난을 예견하는 안내자의 만류도 총칼로 짓밟아버리며 중대를 인솔하고 해저문 백리허숲속을 행군하다가 겨우내 눈속에서 굶주린 수백수천마리의 이리떼를 만나 참혹치절한 싸움끝에 한놈은 얼흔이 나가 제풀에 죽어버리고 그밖에 적지 않은 놈들이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어 비명을 지르며 갈팡질팡하는것으로 그려놓았다.

소설의 이 장면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흔치않은 생동하고 통쾌한 세부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보다 많이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제기된 의견들은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세부를 아예 없애버리는가, 아니면 그 어느 대목에 넣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선뜻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장면을 그냥 빼라고 하면 작가가 아까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할일유격대가 창건된 이후 장면에 그 세부를 살려넣어도 큰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하나의 작은 세부라 할지라도 작품을 쓴 작가에게는 다 귀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작가에게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그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제기된 의견을 자기것으로 소화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전달받고 작가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 세부로 말하면 소설의 전반적형상에서 큰 예술적의의를 가지거나 특별한 문학적인 주장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

가가 써놓은 작은 세부도 것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작가의 의도를 잘 살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이 세부를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이후시기의 장면인 제2편 맨앞에 옮겨놓고 전후 사건과 사실에 맞게 형상을 새롭게 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에 의하여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은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완성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장편소설이 발표되자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주체60(1971)년 2월 어느날 작가는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도하시는 어느 한 모임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날 밤깊도록 조국통일과 혁명발전전망문제, 문학예술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말씀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 대한 독자들의 반향이

아주 좋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작품을 다 읽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위인들의 뜻을 받들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소설을 당과 국가사업으로 분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정 시간을 내시여 읽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작가는 기쁨과 감격에 젖어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윽하여 작가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아시고 건강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겠다고 거듭 넘려하여주시었다.

작가는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사상에술성이 높은 소설들을 더 많이 써서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이것은 그 작가의 심정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게 은정깊은 사람을 베풀어주시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자 작가들은 장군님의 경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심장의 땡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오직 한분

한광춘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다
더는 견뎌내지 못하리라 세상이 말하던
허나 그때에도 우리는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그이가 우리곁에 계시었기에

참으로 준엄한 때가 있었다
한초한초 핵전쟁의 불심지가 타들어가던
허나 그때에도 우리는 래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이가 우리 운명의 어버이이시기에

오히려 누구보다 더 크게 웃으며 살줄 알았다
오늘에 일하며 래일의 거리를 걸을줄 알았다
오직 한분 그이의 손목을 잡고
그이만을 믿고 그이를 따르며

저 하늘의 태양보다 더 빛나시는분
우리자신의 심장보다도
더 소중히 간직하고자하는 위대한 존함
오 **김정일**장군!

민족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혁명의 전초선에서

선군의 총대로 인민을 지키신 장군님
그 얼마이시던가 헤쳐오신 최전선길 사선의
굽이굽이는
그 몇몇해이시던가 눈비를 뚫고오신 헌신의
날과 날은

고생끝에 오는것이 락이라던
우리 장군님 고생끝에 찾으시는 락은 인민의
행복
그 행복 꽃피우고 지켜가신
철령의 산밭우에 내 나라의 하늘은 맑아라

조국의 존엄을 백두산의 높이로 빛내주신분
당의 기폭에 선군의 붉은빛을 엮으신분
혁명무력의 총대에 백승의 퇴성을 재워주신
우리의 운명 **김정일**장군이시여

아 그이는 우리의 영광이며 승리
그이는 운명의 태양이며 조국
이 세상 한끝까지 따르고 무궁토록 받들리라
김정일장군님 오직 한분!

90년대의 《적기가》

당창건 50돐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던 주체 84(1995)년 9월 30일 아침이었다.

《로동신문》을 무심히 받아들던 사람들은 격동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신문 1면의 절반도 넘는 지면에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의 악보가 크게 실려있었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방송에서는 이 노래의 장중한 선율이 온 누리에 울려 퍼졌다.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며 항일의 혁명선열들이 격조높이 부르던 혁명가요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명곡으로 태어난 90년대의 《적기》!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고난의 행군》 길을 걷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이날아침 두번 다시 감동에 휩싸여 당보에 실린 노래의 구절 구절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며 사흘전에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았다.

9월 27일이었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부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번에 만수대에술단에서 창작한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가 아주 잘되었다, 가사도 좋고 곡도 잘되었다, 1980년대에 《동지애의 노래》가 나온 이후 처음 이런 좋은 노래가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노래 창작을 지도하시던 나날을 돌이켜보시는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매우 감개무량해하시며 방안을 천천히 오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00일추모회가 엄숙히 거행된 직후 피눈물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로작에서 자신의 사상이 붉다는것을 밝혔다고 하시면서 그후에도 여러차례 우리 당의 붉은기철학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만수대에술단 창작가들에게 혁명의 붉은기를 종자로 하여 노래를 지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어 또 하나의 명곡이 나오게 되었다.

창문너머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로 돌아서시며 확신에 넘친 어조로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 신념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주체의 한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가 노래에 반영되어있다,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의 가사 구절들이 좋다, 특히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다》, 《승리만을 기복에 새기여왔다》는 구절들과 당을 따라 붉은기를 끝까지 휘날려가리라는 결의를 담은 구절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명깊은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일군들의 눈앞에는 혁명의 먼길, 항일의 피바다, 전화의 불바다에 높이 휘날리던 붉은 기발이 선히 안겨왔다.

참으로 붉은기는 우리의 신념이고 투쟁의 표대이며 승리의 상징이다.

깊은 감흥에 잠긴 일군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명곡을 지은 창작가들을 높이 평가하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는 나에게 큰 힘과 고무를 준다, 노래를 정말 잘 지었다, 작가들과 작곡가들은 당에서 필요한 노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은 창작가들이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말씀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는 당창건 50돐을 맞으며 당에 드린 선물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가 거둔 사상예술적성파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천만리 불바다가 펼쳐지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열백번 반복된다 하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두에 서시어 높이 드신 혁명의 붉은기 따라 걸음걸음 백승만을 떨치며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거연히 올라설것이다.

빛나라 우리의 10월

류동호

우리 어머니당이어

태어나서 처음 배운 그 부름은 어머니
철들어도 변함없는 그 한마디 어머니
나에게 생명을 준 고마운 젖줄기여서
한생토록 어머니라 부르며 안기네
아 당이어 우리 어머니당이어

남모르게 정을 줄 땀 눈물겹게 어머니
아픈 때를 돌격에도 그 손잡고 어머니
아들딸의 그 부름에 사랑의 한생 바치는
둘도 없는 그 어머니 대 운명의 품이어
아 당이어 우리 어머니당이어

자식들의 그 소원을 꽃피우는 어머니
인민위해 복무하며 수고많은 어머니
어머니뜻 잘 받들면 천만복이 찾아오기에
정을 다해 사랑다해 그대만을 받들리
아 당이어 우리 어머니당이어

어머니 그 사랑 누가 주는가

태어나 첫날부터 생의 끝까지
순간도 변함없는 당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머니사랑이라면
아 세월이 갈수록 불타는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은 누가 주는가

진펄길 마른길 보살펴주며
내 인생길 따라서는 당의 그 사랑
언제한번 그 대가를 바란적없이
아 한생을 주기만 하는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은 누가 주는가

수령님 한평생을 주신 사랑에
장군님 정을 더해 안겨주시네
눈내려도 비내리도 더욱 불타며
아 마를줄 모르는 어머니사랑
우리 당의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빛나라 우리의 10월

인민의 정다운 어머니되어
세상에 태어난 조선로동당
어머니 생일은 태양이 준 날
이날 있어 하늘 밝고 햇빛도 밝네
빛나라 10월 승리의 10월
수령님 안겨주신 날
선군조국의 영원한 명절
아 우리의 10월 10일이여

마치와 낫과 붓 붉은 기폭을
총대로 날리는 조선로동당
선군은 제일 큰 어머니사랑
내 나라에 천만복을 꽃피준다네
빛나라 10월 승리의 10월
수령님 안겨주신 날
선군조국의 영원한 명절
아 우리의 10월 10일이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장군님 이끄시는 조선로동당
어머니사랑이 넘쳐나는 집
사회주의강성대국 높이 세우네
빛나라 10월 승리의 10월
수령님 안겨주신 날
선군조국의 영원한 명절
아 우리의 10월 10일이여

뜨거운 석양



리영환

1

6월의 해별이 불비처럼 쏟아져내렸다.
찌는듯 한 무더위를 헤치며 승용차들이 달리
었다.

흐물거리는 아스팔트포장길위에 승용차의 바
퀴무늬가 점점이 찍혀졌다. 길옆에 펼쳐진 밭들
에는 키높이 자란 강냉이들이 있을 축 늘어뜨
리고 서있다.

포장길을 달려온 승용차들은 이어 석비레를
간 산속길에 접어들었다. 소나무와 잣나무, 참
나무와 오리나무들이 우거진 수림속에는 그늘
이 저서 어느 정도 선선했지만 땀기처럼 구불
구불한 령길에서는 단김이 확확 풍겨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타신 야전차
는 아츠러운 고개길을 뚫아올라갔다. 그이의 곁
에는 몸이 날씬한 50대의 남형군장령이 타고있
었다.

길가에는 이따금 커다란 배낭을 지고가는 녀
인들의 모습이 띄우곤 했다.

령마루를 넘어서자 등산모를 쓰고 흰배낭을
진 소년단원들의 행렬이 나타났다. 야영소로 가
는 아이들이다.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노
라니 남형군의 생각은 저절로 깊어만 간다.

이 땅우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우는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가 흘러가고있다.

아, 우리는 두해전에 하늘갈으신 아버지수령
님을 잃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이 나라
인민들의 슬픔과 상실을 어떻게 한두마디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다
때를 만난듯 제국주의반동들은 그 어떤 변화
를 바라며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경제봉쇄
를 더욱 강화하면서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

다.

정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
쟁접경으로 압축되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타신
야전승용차는 실재없이 전선길을 누벼가고있었
다.

하기에 인민들은 어렵게 살아가지만 애오라
지 최전연고지들을 시찰하시는 장군님의 안녕
만을 소원하였으며 우리 군대가 강하기만을 바
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고 우리 군대만 있
으면 우리는 산다. 오직 그이만을 믿고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렇게 우리 인민은 웃으며 노래부르며 나아
간다.

...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왜그런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무심
히 들어넘길수가 없다.

오늘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부대의
남형군부사령관을 부르시여 이렇게 물으시였다.

《부사령관동무, 운창양어장에 동무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연구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내 오늘 동무 아버지를 만나보고싶어 불렀
으니 함께 양어장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남형군은 그이를 모시고 운창으로
떠나게 되었다.

《부사령관동무, 동무 아버지의 년세가 올해
70살이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년로한분이 아직도 현지에서 연구사업을 하
고있다니 생각되는것이 많습니다. 쿵팔을 하나

때낸분인데 건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남형근은 얼굴을 붉히며 죄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신장염때문에 가끔 다리가 붓군 합니다. 제가 잘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평양에서 연구사로 일하던 아버지 남태학은 30년전에 운창양어장으로 자원하여나갔다. 하나를 연구하여도 현실과 결부시켜야만이 실리를 볼수 있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다.

아버지는 양어장에서 초간히 떨어진 개울가에 집 한채를 지어놓고 자그마한 실험못도 만들었다. 여기서 참붕어의 숙성양어를 연구하여 생산량을 부쩍 늘였으며 양어장을 립체양어기로 꾸렸다..

하여 운창양어장은 고기떼가 욱실거리는 물고기고장으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나고 텔레비존에도 소개되었다.

그후에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왔을 나이가 훨씬 지났건만 좀처럼 양어장을 뜰 생각을 안했다.

남형근은 아버지의 로환이 걱정스러워 자주 찾아가 설복하곤 하였다.

《아버지, 이젠 그만하시고 저희집에 모여삽시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제가 아들구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면 남태학은 설레설레 머리를 갸웃 하였다.

《너의 심정은 알만 하다. 솔직히 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너를 내뒤통을 이어 양어학자로 키우고싶었었다. 그런데 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로 탄원하더구나. 처음엔 좀 섭섭했지만 난 너를 자랑스럽게 군대로 떠나보냈다. 물론 지금도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물과 물고기를 떠나서는 못산다. 그러니 날 데려갈 생각은 아예 말아라.》

아버지는 요즘 가물치양어를 연구한다며 실험못에 불박혀산다.

늙어가는 아버지의 여생을 편안하게 해드리고싶은 아들의 심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러한 남형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셨는지 장군님께서 언저시 말씀을 건넸시였다.

《동무 아버지는 우리 나라 양어계에서 권위 있는 학자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년로보장에 넘긴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 어제 저녁에 보신 문건의 활자들이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문건에는 남태학을 년로보장에 넘기지 않으면 안되는 리유들이 적혀있었다.

...가물치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맹어이기때문에 양어를 할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물치를 양어해본적이 없으며 누구도 시도해본적

이 없다.

그런데 유독 남태학이 가물치양어를 주장하면서 경험도 승산도 없이 실험을 벌려놓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사람들은 그가 늙어서 사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한다. 학자에게 있어서 비정상적사고는 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마디로 쥐여짜면 나이가 들어 분수없게 처신하기때문에 집에 들여보낸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심기가 좋지 않으시여 남형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제밤 양어부문 실태를 료해하다가 동무 아버지에 대한 문건을 보고는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부사령관동문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형근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씀올리였다.

《저의 솔직한 생각으로는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모시고싶은것도 있고 또 아버지의 고집때문에 걱정되는바도 큼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부탁을 하려했는데 마침 년로보장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잘된것 같습니다.》

장군님의 안색에는 서운한 표정이 어리였다.

그이께서는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렇다면 내가 한가지 물읍시다. 집에 데려다모시면 아버지의 여생이 편안할것 같습니다까?》

남형근은 자기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요즘 저의 아버지는 몸이 부석부석 부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젊은 연구사들한테서 뒤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남의 짐이 될바에야 집에 들어와 맘편히 있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셨다.

《부사령관동무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허나 새세대 과학자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따라앞섰다고 하여 오랜 과학자들이 스스로 물러설수는 없습니다. 난 동무의 아버지가 연구사업에서 쉽게 손을 뺄것 같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정녕 그렇게 믿으시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왜그런지 5년전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운창양어장을 찾아가셨던 일이 떠오르시였다.

그때 남태학은 수령님앞에서 맹세하였다.

《수령님, 전 물고기생산량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전에는 여기 양어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버드나무그늘에 앉으시여 남태학이 걸어온 인생사도 다 들어주시였다. 피눈물에 젖은 그의 과거 이야기들...

장군님께서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밭을 바라보시며 잊을수 없는 남태학의 지난날을 더

들어보시었다....

...1944년의 사나운 겨울도 지나갔다.

봄이 왔다고 산기슭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진달래가 곱게 폈지만 우리 나라에 없는 칠색송어를 번식시키기 위하여 피어난 탐구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남태학에게는 이 몸도 쓸쓸하기만 하였다. 명색이 학자일뿐 그는 산골마을의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마리에서 살았다.

모계사회가 흘러가버린것은 아득한 옛일이었으나 이집에는 아직도 모가장적관계가 지배하고있었다. 고삭아버린 벼짚이영을 중방까지 폭 뒤집어쓴 키낮은 초가집은 금시 땅속에 잣아들듯싶고 흑로지조박들을 덧붙인 장지문은 광솔불에 그을려 고대벽화를 그려붙인것 같은데 원시인들의 유물인듯 한 이 집의 《가장》이 바로 젊은 안해인 현인순이었지다. 녀인은 남편과 아이를 위하여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터인 양주공장으로 나가군하였다.

녀인이 일을 나가면 남편과 갓난아기는 저마끔 빈집을 지킨다. 젊은 남편은 법랑이 떨어진 소쟁이들과 바게쓰들, 이빠진 어항에 담긴 칠색송어의 정자와란자의 결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고 아기는 울음속에 하루를 보낸다. 아버지는 아들이 바스라지게 울어도 뒤돌아보는 법을 모른다. 아기가 벌벌 기여와 앙증스레 매달리면 버릇처럼 아들을 배개통에 묶어 구석에 세워놓고는 다시금 현미경앞에 마주 앉는다. 시간이 흘러 배고픔을 느낄 때에야 소스라쳐 놀라 아이를 들쳐업고 양주공장으로 달려나간다. 다음 둔덕진 언덕우에 서서 깨어진 거울조각으로 쇠살창에 둘러싸인 어둡시근한 배합작업칸의 피창을 비친다. 그러면 잠시후 누룩물은 손을 훑치며 안해가 달려나와 정신없이 매달리는 아기에게 젖을 짜서 먹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 안도감을 느끼며 자기들의 점심을 잊어버린다.

남태학의 기구한 연구생활은 이렇듯 뼈를 깎는 고통속에 흘러갔다. 이 고달픔속에서도 남태학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것은 안해 현인순이때문이었다. 안해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고 모든것을 다 이해해주었다.

어느때 보아도 아름다운 그 얼굴... 금시 샘물이 뿜뿜 쏟아질듯 한 크고 시원한 두눈, 성큼하게 쑥 뻗힌 목과 보름달처럼 둥근 얼굴... 배우처럼 생긴 이 미인이 자기의 반려로 되었다는것만으로도 태학은 행복을 느끼고있었다.

안해는 인물처럼 마음씨도 고왔다. 그는 애오라지 남편의 성공만을 빌며 뒤바라지에 모든것을 다 바쳤다. 쌀이 모자라면 결혼반지까지 뽑아 팔았으며 불뿔 나무가 없으면 한밤중이라도 치마허리를 동이고 산으로 올라가군 했다. 그는 닥치는대로 일했다. 낮에는 공장에 나가 일

하고 저녁이면 샛바느질감을 안고 들어와 광솔불밑에서 코피를 쏟으며 바느질을 하는 등 남편의 연구비를 보장하려고 애썼다.

남을 위해 태어난듯 항상 일에 몰려 땀이처럼 돌아치는 안해를 볼 때 남태학은 측은하고 불쌍하여 피눈물을 삼켰으나 생활과는 격리된 고독한 존재이기를 고집하며 못먹고 못입고 못살아도 책만 파고 또 봤다.

이미 그는 세대주로서의 권리를 안해에게 맡겨버렸으며 러관손님처럼 습관되어버렸다. 양어에 대한 청운의 꿈, 일루의 희망이 그를 그로록 메마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

속세는 벌써 그에게서 먼거리의 세계였다. 머리속에는 허드손이며 파스칼이며 링겔이며 하는 학자들의 세계만이 짙 들어찼을뿐이다. 비록 세계적인 발명가는 되지 못하더라도 이 나라에 칠색송어를 번식시켜보겠다는 하나의 학구적인 욕망과 열정이 그의 령혼과 육체를 점령하여버렸다.

집앞에 흐르는 개울을 막아만든 자그마한 못에는 칠색송어가 꼬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놈들에게 닭알노란자와 돼지간강은것만 먹여야 하니 돈이 약차하게 들어갔다. 문제는 먹이를 장만할 돈이 문제였다. 논밭에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아먹였댔자 그것은 일시적일뿐 좀처럼 먹이를 댈수 없었다.

아무리 포부가 크고 의지가 강하여도 가난은 헤칠수 없는 장벽이었다. 결코 과학은 운명에 순종하여주지않는다. 고생고생 칠색송어를 다 키워놓으니 수정에 필요한 시약을 살 돈이 없다. 그 액수는 엄청나다. 돈이 없어 온갖 고초를 겪으며 희생한 생활의 모든것을 버려야 하는가?

안해는 남편의 실험비를 마련하려고 피를 팔았다. 너무도 많은 피를 뽑은것으로 하여 집으로 돌아오던중 길가에 쓰러졌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어간 태학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안해를 그러안은채 황소울음을 터뜨리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태학은 실신한 안해를 안고 비칠거리며 진창길을 걸어갔다. 입안으로는 눈물과 비물이 하염없이 흘러들었다. 비참한 인생이 구슬프고 살아갈 앞날이 암담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터뜨렸다.

(아, 세상이란 이다지도 모질고 무정하단 말인가. 정녕 사람의 피를 팔지 않고서는 과학도 할수 없단 말인가.) 가난뱅이는 아무리 학문을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이 세상... 하늘이나 꼭 무너져라.)

...이것으로써 태학의 탐구생활은 끝났다. 안해는 공장에서 쫓겨났으며 몸져누웠다. 쪼들린 살림을 번치고 서있던 가냘픈 기둥이 무너졌다. 태학은 나흘을 굶었다. 아무리 목석같은 인간

이 되려고 독을 품었으나 본능적인 인정의 예리한 금선은 떨리기 시작하였다. 안해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살쪼각같은 책들을 팔았다.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눈동자같은 현미경을 저당 잡혔다.

그는 절통하게 오열을 터뜨리며 비탄의 눈물을 뿌려던졌다.

(아,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그 누가 꿈이 많은 자일수록 꼭절 많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하였는가?)

태학은 꿈속을 헤매이다가 인간세상으로 되 돌아온듯 슬픔의 고배를 들이키며 후회와 자책, 고민과 번뇌, 몸부림과 한탄속에 또다른 자기 길을 찾았다. 그는 안해에게 말했다.

《중도에 뜻을 꺾자니 사나이 마음이 허락칠 않는구만. 당신은 나를 리해하지 않소. 배우는 데는 국경이 없다는데 외국에 나가보겠소.》

안해는 남편의 길을 막지 않았다. 가난뱅이의 재능은 말없는 기수와도 같은것인지라 자기가 어이 준마의 구실을 해내랴. 안해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섭섭한 말을 했다.

《전 당신의 연구를 위해 저의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어요. 그러나 한가지만 묻자요? 당신의 탐구가 누구에게 필요한건가요? 당신의 명예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인가요?》

태학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정말 나는 무엇때문에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무조건적인 천부적재능때문인가, 아니면 학자의 야심과 명성때문인가? 과연 희망이란 무엇인가? 탐구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것인가?

태학은 자신없이 중얼거렸다.

《나도 잘 모르겠소. 난 이 산골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먹고싶었을뿐이요. 물고기가 없어 말린 조기를 온 마을이 돌러가며 제상에 놓아야 하는 비참한 사람들, 그래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칠색송어를 먹이자는것이 잘못이요? 아니요, 모든게 다 우리가 힘이 없고 못살기때문이요.》

태학은 알수 없었다. 그래 이것이 가난탓이란 말이던가?

다음날 그의 집으로 목이 양바름한 산림간수가 달려들었다.

《나쁜놈의 자식, 누가 여기다 칠색송어를 기르라고 했어, 양?》

땅딸보는 다짜고짜 개울을 가로막은 실험못에 카바이드를 풀어넣기 시작하였다.

태학은 억이 막히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올라 대들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주인없는 개울에 물고기를 기르게 무슨 죄가 된단 말이요?》

산림간수는 눈이 모자라게 웃어댔다.

《흥, 주인없는 땅이 어디 있고 주인없는 개울

이 어디 있어? 이 산속의 개울은 다 내 차지란 말이다. 어리석기란... 일본귀족들만 잡숫는 칠색송어를 너희 반도인들이 먹겠다고?》

죽어버린 칠색송어가 새하얗게 물우에 떠올랐다. 그것을 바라보는 태학의 눈에는 불이 일었다. 그는 참을수 없어 땅딸보를 번쩍 들어 물속에 내던졌다.

...이 일로 하여 태학은 류치장에 끌려가 죽도록 매를 맞았다. 살이 터지고 채찍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라없는 사람에겐 희망도 탐구도 없다는것을...

마디에 웅이라고 류치장에서 풀려난 그에게 《징병장》이 떨어졌다. 험악한 세상은 물에 빠진 사람 꼭두부르듯 태학의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렸다. 그렇게도 과학을 하고싶었지만 이제 《징병》의 동아줄에 묶이여 권력의 대포밥이 되어야 했다.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작별의 날이 왔다.

태학은 난생처음 술이라는것을 입에 대었다. 홀러온 나날을 소급해보니 상실의 아픔과 패배의 쓰라림이 가슴을 알알이 훑어내리고 아릿다운 안해를 고생만 시켰구나 하는련련한 애수가 스며들었다.

활촉처럼 뚫고들어온 해빛이 방안에 엽전만한 동그라미를 그렸다. 아들에는 그 엽전같은 동그라미를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 《돈일》은 아무리 뜯어도 잡히질 않았다. 아들에는 안타까운지 울음보를 터뜨렸다. 그 모습이 처량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주보며 서글피 웃었다.

아들은 다시금 빛을 주으려고 장판을 뜯기 시작한다.

태학은 가슴이 찌르르 달아올랐다. 빛을 잡으려는 아들의 꿈이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자기가 아들의 한줌 거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취흥에 잠겨 누군가의 시를 읊었다.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
그칠줄 모르고 란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야릇한 동물입니까

현인순은 웃고름으로 눈구석을 눌렀다. 태학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해에게 말하였다.

《부디 형근이를 잘 키워주오. 내 자리를 잡으면 데리러 오겠소. 그날에 형근이를 보란듯이 키워봅시다.》

태학은 손잡이 달린 확대경을 무슨 가보인듯 아들의 손에 쥐여주었다. 아버지의 희망이 이제 아기의 어깨우에 옮겨졌다. 무릇 부모들은 아기에게 자기의 꿈을 실어보며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것이다. 그것이 삶의 종착점인듯...

아들에는 무엇이 좋은지 캐득거리며 확대경

을 팔랭이처럼 흔들어댔다. 그 모습이 태학에게는 즐거움보다 서글픔을 더 안겨준다. 꽃같이 웃는 저 얼굴에 꿈을 실었다면 언젠가는 자기처럼 찬서리에 짓밟혀야 하겠기에...

다음날 새벽 태학은 집을 떠났다. 앞산 마루에 올라 집을 바라보니 노을이 비낀 샹쌍문앞에 아들애를 안은 안해가 조각처럼 굳어져있다. 확대경을 팔랭이처럼 흔드는 아이의 손이 눈을 쿡 찌르고든다.

(차마 못보겠구나.)

태학은 눈을 돌려버렸다. 일시에 모든것, 푸른 하늘과 정든 고향이, 안해도 아들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2

산기슭을 돌아서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어섰다.

남태학에 대하여 회고하시던 장군님께서는 깊은 상념에서 깨어나 앞을 바라보시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무리의 염소떼가 차길을 가로막은채 비킬념을 앓는다. 운전사가 다급히 경적을 울려댔지만 염소들은 뿔싸움에 정신이 팔려 매매거리며 돌아쳤다. 하늘소만 한 검은색염소와 산양처럼 뿔이 구부러진 하얀 염소가 허공중에서 부딪치며 나동그라진다. 두놈은 다시 일어나 죽기내기로 뿔을 비벼댄다.

남형군이 열른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가 막 염소를 쫓으려고 하는데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만류하시었다.

《부사령관동무, 가만 놔두시오. 이제 저절로 물러나겠지요.》

염소들은 저희들의 싸움에 간섭하지 말라는듯 매매거리며 엉켜돌았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뿔싸움을 구경하면서 좀 쉬어갑시다.》

귀염성스러운 새끼염소들이 어미들이 싸우건 말건 건뎡거리는 젖에 매달려 앙증스레 젖을 빨아댄다.

그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는 남형군에게 말씀하셨다.

《동무의 아버지는 수령님께서 아시는 학자입니다. 아버지는 해방직후 수령님께서 칠색송어를 번식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자 일제놈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양어장에서 고기새끼를 얻으려고 추운 겨울날 구룡천을 오르내리면서 얼음장을 까고 살살이 뒤진 끝에 겨우 짙검불같은 몇마리의 새끼를 얻어내어 그것을 밀천으로 칠색송어를 번식시킬수 있었습니다. 그때 동상을 입고 신장이 나빠져서 콩팥을 떼냈습니다.》

동무 아버지는 우리 나라에서 립체양어에도 기여를 한 참으로 공로가 있는 연구사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남형군에게 담배가 없는가고 물으시었다. 남형군이 담배를 꺼내드리자 그이

께서는 담배를 부스러뜨려 염소무리속에 뿌려주시었다. 염소들이 발치에 떨어진 담배냄새를 맡아보더니 겨끔내기로 먹어대기 시작한다. 남형군은 그것이 신기하여 빙그레 웃었다.

《염소들이 투실투실한게 살이 쪼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염소를 잘 먹입니다. 우리가 풀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풀먹는 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하여 말한것이 작년일인데 벌써 은을 내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먹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렵게 살지만 저렇게 염소를 먹이면 얼마든지 젖과 고기를 먹을수 있습니다.》

염소들이 어슬렁어슬렁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고난의 행군>시기라고 해서 맥을 놓고 앉아있으면 고기문제는 풀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어에서도 된바람을 일으키자는것입니다.》

승용차는 다시 길을 떠났다.

남형군은 이마에 돌아나는 땀방울을 훔치면서 장군님의말씀을 귀담아들었다.

《이야기가 좀 빛나간것 같습니다. 동무의 아버지는 양어를 위해 한생을 바쳤습니다. 그래, 부사령관동무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늙었다고 생각됩니까?》

남형군은 장군님께 모든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얼마전에 양어연구소를 찾아갔을 때 연구소소장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언뜻 떠오른다.

남태학은 양어총국에 찾아올라가 부총국장에게 말하였다.

《부총국장동무, 힘든대로 가물치새끼들과 콤퓨터를 좀 해결해주시시오.》

보기 좋게 몸이 난 부총국장은 표정없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건 무얼하러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을 높이자면 가물치양어를...》

부총국장은 대뜸 로인의 말을 잘라버렸다.

《아바이, 지금이 어느때입니까? 인민들은 통강냉이도 쪼개먹으며 삽니다. 요구하시는건 생활이 좀 풀린 다음에 봅시다.》

남태학의 다보록한 눈썹이 곤두섰다. 로인은 분명히 성이 났으나 푹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부총국장동무, 우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생활도 이겨냈수다. 풀뿌리도 캐먹고 가재도 잡아먹었습니다. 먹지 않고 사는게 <고난의 행군>이 아니지요. 우린 생활에 빙자하면서 동면할것이 아니라 새것을 위하여 맞받아나아가야 합니다.》

부총국장은 못마땅한듯 미간을 찌프렸다.

《아바이, 함부로 감투를 씌우지 마시오. 가물치새끼를 사오자고 해도 그래, 콤퓨터를 들여오

자고 해도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내 머리 벗어지는걸 좀 보시오. 당장은 생활문제를 푸는것이 중요합니다.》

남태학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렇게 조건타발만 해서야 양어에서 언제 허릴 퍼겠습니까? 일꾼이라면 마땅히 몸을 내대고 머릴 써야지요.》

부총국장은 머리를 흔들면서 두손을 내저었다.

《됐습니다. 아바이하군 정말 일하기가 힘듭니다.》

남형근은 아버지가 일꾼들과의 마찰로 하여 더 눈에 나고 분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말쑥드렸다.

《장군님, 제 생각에도 이젠 우리 아버지가 늙었다고 봅니다. 전번에 집에 가보니 신문을 읽는데 도수안경에 확대경까지 대고 봅니다. 나이는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머리를 저으시었다.

《나는 동무와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제밤 운창군당에 알아보았는데 동무 아버지는 가물치기르기의 기술적문제를 풀겠다고 자금을 마련하여 컴퓨터를 사다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첨단과학에 뒤지지 않겠다는 야심과 열정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이러한 학구적열정을 지닌 사람을 어떻게 늙었다고 하겠습니까? 늙은건 동무 아버지가 아니라 현대감각이 무디고 현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일겁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다음말을 잇기가 피로우시었다.

지금 일부 일꾼들은 현자인체 머리를 들고 다니지만 그들속에는 《콤폴자》도 없지 않아 있는것이다. 현대과학기술을 모르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워할줄도 모르고 분발할줄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현대지능에 뒤떨어진 《로약자》들일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최근에는 바다물고기자원이 줄어들고있는 조건에서 세계적으로 양어를 발전시켜 먹는 물고기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물고기생산량의 60프로를 양어로 보장하고있습니다.

특히 양어에서 메기기르기추세를 보이고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한해에 수십만톤의 메기를 길러낸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세계적인 양어실태를 분석해주시면서 그 실태들을 들어나가지었다.

나지막한 고개길을 넘어서자 《운창》이란 리정표가 나타났다.

저 멀리 야산기슭에 규격포전처럼 자리잡은 양어장이 한눈에 안겨온다.

장군님께서서는 푸른 버드나무에 둘러싸인 그

림같은 양어장풍경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결코 나이가 퇴직의 조건으로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미전에 60청춘, 90환갑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요즘 자료를 보니 현대과학과 인류문명은 젊음에 대한 기준을 10년이상이나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준비에 관한 문제이고 나는 결코 젊음과 늙음을 나이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탐구와 로동에 불같은 열정을 지녔다면 그런 사람은 늙었다고 말할수 없으며 반대로 아무리 젊었다고 해도 시대에 떨어진 사람은 젊었다고 말할수 없는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동무의 아버지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할수 있으며 늙었다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남형근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이의 말씀에는 부인할수 없는 진리가 깔려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양어장입구에 서있는 푸르려 설레이는 늙은 버드나무를 바라보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었다.

《동무 아버지를 집에 들여보내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남형근은 눈곱이 달아오르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오는것을 느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아버지에게 연구사업을 계속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한 양어학자의 일생을 마지막까지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은정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진다. 양어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선다.

3

그 시각 남태학은 양어장입구에 서있는 버드나무밑에 그린듯 앉아있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성 쌓고 남은 돌이란 말인가?)

그는 까딱도 하지 않고 몇번이고 이 말만 곱씹었다. 뭐가 뭔지 통 갈피를 잡을수 없다.

찬물에서의 가물치양어- 그 성공이 가까와오고있는 이때 해임장을 내리는것은 무슨 뜻일가? 이젠 나이도 들었으니 평양에 와서 편안히 지내라는건가? 아니면 연구소에 돌아와 젊은이들 뒤바라지를 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알길이 없다.

물론 평양에 가면 책도 마음대로 보고 현대적인 실험설비들도 그췌할테지만 남태학은 여기가 더 좋았다. 여기를 떠나선 살것 같지 못하다.

그는 인생의 막이 내리고있음을 느꼈다. 현장을 떠난 탐구, 현장을 떠난 삶을 그는 상상조차

못해보았다.

가서는 안된다고 심장은 웨치건만 《무대》는 이미 불이 꺼지고 막은 내리고있었다.

그는 갑자기 탁쳐온 운명앞에서 당황하였고 다음 반발적으로 울분에 휩싸였으며 아쉬움과 일종의 허무감에 몸부림쳤다.

(이렇게 끝나는가?) 하고 생각하니 탐구라는 짐을 짊어지고 가파로운 벼랑길을 뚫아온듯 한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것이였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열정과 희열로 가슴끓이던 탐구의 희로애락이 눈앞에 훑날리는 버들가지처럼 무수히 얹혀돌았다.

깊은 회억에 빠져들었던 남태학은 문득 승용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보았다. 양어장으로 줄지어 들어서는 승용차들을...

이어 승용차들이 몇어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리시였다.

남태학은 벌떡 일어섰다. 이게 꿈은 아니겠는지?! 심장은 영광의 이 시각을 기다려온듯 몹시도 세차게 뛴다.

그는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펄펄 날아가는것 같았다. 그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억센 힘이 그를 힘차게 끌어당겼다. 달려가면서 그는 속으로 아이들처럼 웨치고 또 웨쳤다. 장군님! 정말 뵙고싶었습니다.

버드나무들이 가볍게 설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달려와 절을 올리는, 작업복차림 그대로인 남태학의 갈퀴진 두손을 무릅없이 잡아주시였다.

《그동안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에 비해 아직도 허리가 꺾끗해보이는 남태학은 너무도 뜻밖에 그이를 만나뵙게 된 감격에 목이 메어 두눈만 습벽이였다.

《장군님, 별로 앓는데가 없습시다.》

《선생이 정정한것을 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동안 양어장을 멋지게 꾸렸습니다.》

인사말을 나누신 그이께서는 수행원들과 함께 양어장을 돌아보시였다. 지배인이 한달강습에 간려어서 남태학이 그이를 안내하여드리였다.

바둑무늬처럼 줄을 맞춰 자리잡은 양어못들레에는 버드나무들이 푸른 가지를 드리웠고 거울처럼 번쩍거리는 맑은 물속에는 크고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떠다녔다.

장군님께서서는 《어뢰정》같은 고기들이 헤엄쳐다니는 어미못가에 멈춰서시여 흐뭇한 눈길로 굽어보시였다. 어느 못을 보아도 고기가 짹차서 씨글거린다. 초어, 기념어, 화련어, 잉어, 붕어, 칠색송어, 지어 바닥에는 조개와 우렁이... 그야말로 립체양어의 표본이다. 다른 고장에서는 농사도 잘 안된다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고기풍년을 마련해놓고 웃으

면서 살아가고있다.

이렇게 희한한 양어장, 물고기떼를 보리라고는 그이께서도 미처 생각지 못하시였다.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있는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자못 마음이 즐거우시여 백발이 성성한 남태학에게 물으시였다.

《정말 여기 사람들의 일숨씨에 탄복하게 됩니다. 그레 물고기를 길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태학은 미처 내리우지 못했던 팔소매를 내리우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희들은 지난해에 어미못과 새끼못을 제외한 3정보의 양어못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모두 탁아소와 유치원, 상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저 정말 대단합니다.》

온 나라가 다 이런 식으로 양어를 하면 인민들이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먹을수 있습니다. 여기 양어장의 경험을 일반화하여야 하겠습니까.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를 키울수 있었습니까?》

남태학은 장군님의 사랑을 몸가까이 느끼며 한껏 웃음을 담고 말씀드렸다.

《저희들이 무슨 큰일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건 다 수령님 덕분입니다. 수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립체양어를 했을뿐입니다.》

장군님의 가슴속으로 따뜻한 걱정이 물결쳐왔다. 여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두차례나 다녀가신 영광의 땅이다. 5년전 그이께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여기에 오시였다.

푸른 버드나무들은 그날의 감격을 속삭이듯 가만가만 잎새를 흔들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뜨겁고도 뜨거운 여름날이였다.

(수령님께서 하라는대로 했다!)

조용히 입속으로 외우시는 장군님의 눈앞에는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려오는것이였다.

항일의 나날 수령님께서서는 밀영의 깊은밤 우등불가에 둘러앉은 대원들과 함께 《사향가》를 부르시며 대동강의 송어이야기를 들려주시였으며 몸소 올기강에 낚시대를 드리우시고 원쑤칠 새 전법과 함께 해방된 이땅우에 물고기떼 육식거리게 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나라를 해방하신 후에는 수산연구소를 무어주시고 파괴된 양어장들을 복구하고 연구사들로 하여금 칠색송어를 번식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뿐이라. 가렬처절한 전화의 날에는 최고사령부 앞마당에 양어못을 만들고 불비속에서도 칠색송어를 길러 전후 양어장들에 종자고기로 보내주시였다.

양어를 위해 바치신 그이의 로고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수령님께서 연구사들이 초어의 인공수정에 실패할 때마다 첫술에 배부르겠는가고 하시며 비행기를 띄워 다른 나라에서 값비싼 실험용 어미고기를 실어오도록 여러번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정녕 그이의 구상따라 이 땅에 건설된 굴지의 양어장들은 그 얼마이며 그이께서 다녀가신 양어장들은 몇몇이던가!

이처럼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나라 양어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넉넉히 먹이시려던 수령님의 은정은 잊을래야 잊을수 없다.

장군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채 버드나 무이를 못가에 뿌려보시었다. 그러자 불시에 고기떼들이 모여오며 먹이를 덂치듯 겨금내기로 뛰어들었다. 이 시각 그이의 귀가에는 수령님께서 하라시는대로 했다는 남태학의 말이 심중한 의미로 울리었다.

(그렇다,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하면 된다.)

장군님의 심정은 남태학의 마음과 꼭 같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수행한 수산부문과 양어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양어문제를 의논해보려고 동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보니 어떻습니까? 보다싶이 운창사람들은 다같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보란듯이 물고기를 키우고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처럼 하면 못할것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라 잠시 말씀을 그치시었다.

양어? 왜 양어를 하자고 하는가? 그것은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바라시며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유훈이다.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신것은 그 어느 하나도 중도반단하거나 철회될수 없다.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우리의 드림없는 신조이며 의지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새끼고기못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인민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일에 관심을 덜 돌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전반에도 말했지만 고기생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기문제를 해결하려면 풀먹는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는 한편 양어사업을 내밀어야 합니다.》

일군들속에 섞여 따라걸어가던 남형근은 장군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울리는것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는 왜 그런지 무거운 배낭을 지고 걸어가던 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나라는 시련을 겪고있다. 사람들은 때가 때인것만큼 끼니를 번지지 않는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군님께서서는

고기를 먹이려 하신다.

장군님의 웅대한 뜻이 큰 충격으로 형근의 가슴을 울린다.

지글지글 끓어번지던 해가 서산에 올라앉았다.

장군님께 부관이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다고 아뢰였지만 그이께서는 오래간만에 산촌바람을 쐬는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난알 끓일것도 변변치 못한 형편에 물고기를 길러먹는것이 퍽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양어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낭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양어를 잘하면 래년부터라도 덕을 볼수 있습니다. 운창양어장의 경험에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수행일군들은 수첩에 무언가 적기도 하고 계산도 해보면서 가볍게 탄성을 내질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한껏 달아오른 양어못들에서는 비린내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뽀뽀 뿜겨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송골송골 내뿜는 땀방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양어못들을 빠짐없이 다 돌아보시었다.

《동무들, 생각해보십시오. 천리마대교조시기에 우리는 양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선생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남태학은 그때 일이 생각나는듯 빙그레 웃으며 대답올렸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온 나라가 양어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단발머리 처녀들이 물고기초롱을 지고 수백리길을 오고갔으며 지어는 보도랑과 논판에서까지 양어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웬간한 물고기는 닭사료로 쓰곤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신중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그런데 그동안 양어사업이 왜 침체한것 같습니다?》

남태학은 늘 생각하고있었던듯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드렸다.

《60년대에는 바다고기가 많았습니다.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때여서 정어리같은것은 비누를 만들고 명태는 닭사료로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점마다 닭, 오리고기들이 그득하여 사람들은 민물고기같은 시답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어를 하지 않아도 물고기가 흔하기때문에 사람들은 양어를 소홀히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관점이 오늘까지 지속되어오는것 같습니다.》

두손을 엇걸으시고 묵묵히 듣고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풀고 허공을 내리그으시며 명쾌하게 말씀하시었다.

《웁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물고

기를 받아먹는데 습관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이 점점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제는 물고기를 먹자면 양어에 많이 의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어에서 된바람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교예를 하듯 커다란 잉어가 금비늘을 번쩍거리며 허공중에 뛰어올랐다가 침범 내리꽂힌다. 동근 파문이 가벼운 물결을 일으킨다.

장군님께서 양어를 발전시키려고 마음먹으신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양어연구소에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어종을 개발할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말씀하셨다. 물고기를 잘 기르자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물고기종자를 더 많이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종자! 그것이 근본문제이다.

그리하여 장군님께서서는 성장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메기양어를 구상하시고 가물치와 같은 맹어를 연구하는 남태학을 만나보러 오시었다.

《남선생의 실험못이 어디 있습니까? 가물치 구경을 좀 합시다.》

《저의 실험못은 개울가에 따로 꾸렸습니다.》

남태학은 저녁이 다 되었는데 그이께서 또 걸음을 걸으시게 하는것이 죄송스러워 말씀드렸다.

《장군님, 날이 저물어갑니다. 저의 실험못은 후에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저으시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실험못도 보지 않고 가면 도리가 되겠습니까? 여름해는 길게 지기 때문에 날이 어두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걱정 말고 가봅시다.》

그이께서는 개울가쪽으로 앞장서 걸으며 물으시었다.

《그동안 실험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있습니까?》

그 순간 남태학의 심장이 후드득 뛰며 금시 멎어버리는것 같았다. 그이께 기쁨을 드릴수 없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옥죄인다.

남태학은 석불입방방법으로 가물치의 속성어종을 개발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런데 그것은 욕망처럼 되질 않았다. 그는 번민하였다. 나의 능력으로는 정말 어찌할수 없단 말인가? 왜 그럴가?

늙었기때문일가? 아들의 말처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것일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빨리 젊은이들에게 넘겨주는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가? 그는 안타깝기만 하고 울고싶도록 피로왔다. 그대로 물러서기에는 인간의 본능이, 의지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전전공공하며 똑바른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젠 제가 늙은이가 봅니다.》

남태학은 마음속 고충을 그이께 그대로 털어놓았다.

《이젠 늙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받아외우시며 섭섭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남선생, 어떻게 나이가 인간이 지닌 능력의 한계점으로 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뜨거운 사람의 지성은 식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덧 개울가에 이르렀다. 동화속에 나오는듯 한 지붕이 뽕죽한 집앞에 자그마한 높이 자리잡고있다. 이것이 남태학의 집이며 실험못이다.

토방에서는 한 녀인이 앉아 앉은당콩을 까고있었다. 현인순이었다. 이제는 머리칼이 반나마 세여버렸지만 아직도 허리는 꼳꼳했다.

현인순은 장군님께서 마당으로 들어서시자 허겁지겁 달려나와 인사를 드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현인순의 두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을 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남동무도 왔는데 이젠 평양에 가 살고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현인순은 입을 호물거리며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장군님, 전 여기서 령감과 함께 사는것이 더 좋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생 남편의 뒤바라자를 하면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찾는 현인순이 고맙게 생각되시었다. 이런 녀인이 있음으로 하여 남태학은 탐구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올수 있었을것이다.

《훌륭한 남편뒤에는 훌륭한 안해가 있다고 남선생은 부인을 생각해서라도 연구사업을 더 잘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람이 불었다. 늙가의 버드나무가 조용히 설레이었다.

현인순이 웃고름으로 눈구석을 늘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저멀리 노을속에 잠긴 양어장을 바라보며 생각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남선생, 이렇게 운창땅을 다시 밟으니 수령님생각이 납니다. 그때 수령님앞에 서있던 선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남태학은 목이 껍 메이며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어이 잇으랴. 한낫의 뜨거운 불별아래서 양어장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을. 그이앞에 나는 맹세했었다. 새품종의 물고기농사법을 완성하겠다고... 그런데 그 맹세를 내 벌써 잊었던 말인가?

남태학은 걸잡을새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었다.

아,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이란 말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막돌처럼 짓밟혔던 나의 희망을 꽃피워주시었다.

…이국의 광야를 헤매이던 방랑생활… 다시 붙잡혀 남방의 장굴속에서 고역을 치르어야 했던 징용살이…랄줄… 잡자리같은 모기떼에 뜰기우고 풀뿌리를 씹어삼키며 돌아온 고향길 장농속에 숨어 지낸 두더지신세…

정녕 수령님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학자의 꿈을 꽃피울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내 벌써 수령님의 은혜를 잊으려 하다니? 그 사랑, 그 은정이 하늘같은데 오늘은 장군님께서 이 늙은것이 뭐라고 또다시 찾아주신단 말인가?

장군님께서서는 늙속에서 무리지어 헤엄치는 한뼘가량되는 가물치떼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어떻게 연구사업이 욕망처럼이야 다 잘되겠습니까? 저 가물치들이 한해에 자란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남태학의 피로운 마음을 풀어주려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저만하면 토종보다 감절은 큼니다. 가을까지 자래우면 꽤 잡아먹을만 하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여기와서 보니 메기양어문제도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실험했습니까?》

남태학은 그동안의 실패와 우여곡절, 번민과 간난신고를 허물없이 말씀드렸다.

남태학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며 그이께서는 또 한바퀴 늑가를 도시었다. 바야흐로 저물어가는 저녁노을이 늙은 버드나무를 피빛으로 감싸안았다.

깊은 사색에 잠기시어 발걸음을 옮기시던 장군님께서 번쩍 머리를 드시었다.

《남선생, 제 생각엔 몇년이 걸려야 새 품종을 얻어내는 섞불임방법보다 분자육종을 했으면 합니다. 분자육종을 받아들이면 한해에 얼마든지 새 품종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양어에서도 이제는 최첨단기술, 유전자공학을 받아들여 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기도 새 품종의 종자를 얻어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남선생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남선생, 새 품종의 메기새끼는 내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남태학은 온몸이 굳어지며 등위로 더운뎃미 줄줄이 흘러내리는것을 느꼈다. 가장 절망적으로 받아안았던 퇴직문제가 순간에 벅찬 환희로 뒤바뀌었다. 거역할수 없었던 운명의 종이 가슴속에서 툭툭 떨어져내렸다. 걱정에 넘친 심장은 어서 빨리 장군님께 모든것을 숨김없이 말

씀드리라고 피줄을 무섭게 흔들어댔다.

남태학은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가 양어를 떠나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장군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기어이 메기양어를 해내고야말겠습니다.》

장군님의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이께서는 만족하신듯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좋습니다. 선생은 과학적신념이 있습니다. 배짱도 있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은 선생을 보니 제 마음도 놓입니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식지 않았는데 열정이 왜 식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도 선생을 다치지 못할겁니다. 마음놓고 연구사업을 계속합시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둘러선 일군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남태학선생에게 젊은 연구사들을 붙여 주시다. 실험기구들도 보내주고… 그래서 립체식양어에서도 장훈을 부르도록 합시다.》

남태학의 가슴속으로 대해같은 사랑이 격랑처럼 흘러들었다. 자기의 말년을 빛내주시려는 그이의 은정에 목매이며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남선생, 어떻습니까? 채능있는 조수들을 붙여주면 해낼수 있겠습니까?》

《…》

《해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연구에서 물러서는것은 일종의 타락입니다. 선생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남태학은 뜨거운 불을 삼키는듯싶었다. 젊음의 열정이 되살아난다. 사랑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청춘을 되찾아주시는 그분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그이의 전사라고 하랴.

《장군님, 해내겠습니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절대로 연구사업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기분이 좋으시었다. 물고기떼 육질거리는 양어장구경도 멋있었지만 좋은 사랑-나라에 일생을 고여가는 진짜메기 애국자를 발견한것으로 하여 더 기쁘시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고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으니 꼭 성공하도록 하십시오.》

남형근은 아버지에게 눈물을 닦으라고 손수건을 꺼내여 내밀며 자기도 두눈을 습벅거렸다. 충격도 크고 자책도 많다. 무엇인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듯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는 지금껏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여왔는가? 최잔하고 늙어버린, 어쩔수 없지만 이제는 학계에서 물러나 보호자의 부양속에 살아가야 하는 자기 세대를 다 산 서글픈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동정하였다. 그가 스스로 은퇴하기를

바라며 도와줄 생각을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스러져가는 과학자의 가슴속에 뜨거운 재생의 불을 지펴주시었다. 그 불을 안으면 인간은 강해지고 심장도 정신도 식지 않는다.

남형근의 가슴은 걱정으로 설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를 집에 모실수 없게 된 아쉬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군대로 떠나갈 때 헤어진 후로는 아직까지 모여살아본적이 없다. 이제 여기서 연구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언제 모여살수 있겠는지?

그런들 어떠랴. 장군님께서 보살펴주고계시는 데야...

남형근은 부디 아버지가 성공하여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건들 붙어오는 바람에 버드나무가 우수수 설레인다. 노을은 사라지고 대지에는 희벗한 미명이 드리웠다. 해가 진지는 오랫동안 사위는 여전히 밝았다.

남형근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름해는 얼마나 길게 지는것인가!)

그러하다. 인간도 뜨거운 열정을 지닐 때 삶을 오래할수 있는것이다.

그 영생의 뜨거움을 장군님께서는 남태학에게 부여주셨다. 고목에 꽃을 피우듯...

장군님께서는 선뜻 떠나기 아쉬운듯 실험못 둘레를 오래도록 거니시었다.

《이 양어못을 보니 대성산의 잉어못이 생각납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성산성에 든든히 진을 치고 적들의 포위속에서도 끄떡없이 잉어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략관하는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기질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남태학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남선생, 신심을 가지고 삼시다. 우리는 설사 래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해도 양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이 허리를 펼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눈앞에 무거운 배낭을 지고가던 녀인들의 땀흐르는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 녀인들의 어깨에서 배낭을 내리우고 그네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려는것이 그이의 소원이시다. 그리하여 염소, 토끼 등 풀먹는 짐짐승들을 기르게 하고 양어를 널리 발전시키며 앞으로는 타조목장, 닭목장들을 신설확장하고 현대화할 구상이시다.

장군님께서는 수행원들을 돌아보시며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양어장들과 함께 먹이공장을 더 많이 건설하고 양어를 현대화, 공업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메기양어도 메기공장을 건설하여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머지 않아 사람들이 메기탕맛을 보게 될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남형근을 부르시었다.

《부사령관동무, 내가 오늘 동무를 데려온것은 군대에서 양어의 본보기를 꾸려보자는 욕심에서였습니다. 양어에서도 군대가 앞장에 서야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부사령관동무.》

남형근은 발뒤축을 모으며 기운차게 대답을 렸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남형근은 더 뭐라고 말씀올릴수 없었다. 인민들에게, 병사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장군님의 사랑앞에 그저 머리가 숙어질뿐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떠나시기를 잊으신듯 다시금 실험못주위를 오래도록 거니시었다.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이의 발걸음소리만이 무겁게 울렸다. 그이의 발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버드나무가 조용히 설레이었다.

이윽하여 장군님께서는 남태학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남선생, 여기서보다 평양에 올라가 연구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책도 마음껏 볼수 있고 실험설비도 우월한것을 리용할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거의나 명령조로 그루를 박으시었다.

《곧 평양으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머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도 받아보고 이따금 손자들과 함께 들놀이도 가볼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생활을 더 즐겨야 합니다.》

그 순간 남형근은 세찬 걱정과 함께 온몸이 등실 떠오르는듯 한 환희로움에 잠겼다. 그리고 깨달았다. 장군님께서 왜 선뜻 떠나지 못하셨는지.

(그러니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를 모시고싶어 하는 이 아들의 심정마저 다 헤아려주셨구나!)

장군님께서는 남태학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싶으셨지만 또다시 전선으로 가셔야 하겠기에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부사령관동무,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루밤 묵고 오도록 하시오. 자, 그럼 헤어집시다.》

장군님께서는 수행원들과 함께 승용차에 오르신였다.

과학자와 장령은 가볍게 설레이는 버드나무 밑에 서서 멀어져가는 장군님의 승용차를 바라우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날은 아직도 어둡지 않았다.

어름해는 길게, 길게도 진다.

보통당원

당조직생활에서는 높고낮은 당원이 있을 수 없다는것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조직관이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 어느날이였다.

류달리 단정한 조선옷차림을 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속한 당조직의 세포위원장을 찾아가시였다.

평상시에는 늘 수수한 옷차림으로 노동자들과 한 집안식구처럼 함께 지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명절옷차림으로 나서신것이 놀라와 세포위원장은 어딜 가시려는가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당세포위원장에게 당비를 바치러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선거된지 10여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세포위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비를 받는 날을 까맣게 잊고있었던것이다.

세포위원장은 서둘러 그런거야 누구를 시켜 보내도 되겠는데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저도 이 세포에 소속되어 생활하는 당원인데 남에게 보내다니요. 어서 당비를 받으세요.》

세포위원장은 결상을 내놓으며 그이께서 앉으실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굳이 사양하시였다. 세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당비수납부를 펼쳐놓은 다음에야 그이께서는 결상에 앉으시였다.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송구스러워 어쩔줄 모르는 세포위원장앞에서 단정한 자세로 당비를 바치신 다음 전달 분공수

행정형을 보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세포위원장으로 부터 새달분공까지 받으신 다음에야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도 전달과 똑같은 차림새로 또다시 세포위원장을 찾아오시였다. 사실 그때 세포위원장은 당비수납부를 들고 김정숙동지를 찾아가려던 참이였다.

세포위원장은 또다시 어색한 자세로 당비수납부를 펼쳐들었다. 그날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위원장동무에게 한가지 비판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어지간히 긴장된 세포위원장을 따듯이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온화하신 음성으로 위원장동문 저에게 분공주기를 몹시 어색해하시는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김일성** 장군님께서도 자주 세포위원장을 찾아가시여 분공도 받으시고 분공수행정형도 보고하십니다, 누구나 다 당세포위원장에게 자기의 당생활정형을 보고하고 새 분공도 받는것은 우리 유격대안의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떼어낼수 없는 하나의 기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김일성**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당생활기풍대로 사는것이 당원들의 의무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원장동무도 저에게 분공을 주고 잘못된것은 비판도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저도 이 세포의 로동당원이에요.》

참으로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는 가장 평범한 로동당원이시면서도 가장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

가사

10월 원무곡

권오준

하늘도 꽃바다 강산도 꽃바다
마음도 설레는 10월이라네
더 높이 꽃물결치라 오늘의 이 환호
인민은 10월을 노래합니다

이 땅에 흐르는 열두달중에
만복을 꽃피우는 10월이라네

더 높이 꽃물결치라 오늘의 이 환호
인민은 10월을 노래합니다

태양을 따르는 한마음으로
천만년 빛내갈 10월이라네
더 높이 꽃물결치라 오늘의 이 환호
인민은 10월을 노래합니다

선군령장

올레그 나우모브

조선은 힘차게 전진한다
선군의 활로를 열어제끼고
주체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쳐
주체의 요새 철벽으로 다지며
승리의 새 력사 창조해나간다
선군령장 진두에서
인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묶어세워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다
영웅들의 넋
후대들 심장에 살아
질풍같이 내달는 조선
선군령장 철의 방패 드시여
그 누구도 어찌지 못하는
주체의 나라
위대한 헌신으로
사회주의는 수호되었나니
선군은 영원한 승리

선군령장 김정일

그이의 용감성에
세계가 감탄한다
그이 충직한 인민을
진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어디에나 건설로 들끓고
어디에나 승리의 기 나뭇긴다
위대한 령장의 손길따라
영웅적인민
영원한 일심 다지고
태양의 빛발아래 새 세계 세워가나니
진달래 만발한 4월의 봄계절
온 나라가 군인들의 위훈 찬양하고
군민이 영원한 혼연일체된 나라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은 영원무궁하리라

(필자는 로씨야사람임)

《씨름군행렬도》

김정철

씨름에서 련승을 하고
황소를 탄 우리 농장 선수들
물러꺼라 비켜꺼라 고향땅에 들어서던
그 《개선》행렬이
멋들어진 그림을 세상에 남겼구나

재간좋은 우리 농장 직관원이
새벽닭이 세번 홑을 칠 때까지
밤새워 그린
한폭의 풍속화
제목도 그럴듯 해 《씨름군행렬도》

등글소를 앞세우고 의기양양
마을에 들어서는 일곱명의 주인공
저건 룡철이 저건 명식이
그앞에서 징치며 길을 띄워가는
신통도 하다 선돌이녀석까지

제국주의원수들 그 아무리 발광해도
무쇠처럼 두다리 똑 뻗치고 일어서
《여봐라!-》 세상을 향해 소리치며 사는

장할시고 저 기개
나무랄데 없는 조선사람이로다

어찌보면 민속박물관의
고구려벽화의 행렬도를 보는듯
아니아니 그 옛날의 주인공들이
수천년의 기나긴 잠에서 깨여
21세기의 태양아래 나와 선듯

단군조선이래
강산은 수없이 변하였어도
그 풍속 문화만은 그대로인 민족
풍운은 수천번 지나갔어도
그 기개만은 변함없는 민족

다만 행렬도에 달라진것 있다면
주인공들 위치가 바뀐것이다
평범한 농장원이 황소를 타고가고
리당비서 견마잡고 흐뭇이 웃는
아 오늘의 풍속도!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당을 형상할 때에는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당으로 그려야 한다.》

《당을 수령과 대중과의 련관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당,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통일단결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으로 보여줄수 있다.

당을 수령과 대중과의 련관속에서 형상하는데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제외한 그 어떤 정치조직도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당만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준다는 사상이 힘있게 강조되어야 한다.》

《작품에 그려지는 당의 풍격은 당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사색의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의 문학작품은 사람들에게 미처 모르고 받아안은 그 은덕의 고마움을 제때에 깨우쳐주며 비록 앓고 받아안은 사랑이라 하여도 그 뜨거움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작품에서는 형상을 격식화하지 말아야 한다.》

평론

새 세기의 태양에 대한 새로운 예술적탐구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을 두고-

리용일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백보흠작)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에 대한 새롭고 깊이있는 형상으로 하여 독자들의 가슴에 크나큰 감동을 안겨주고있다.

그 요인의 하나는 소설의 종자와 주제를 옹계 탐구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종자를 깊이있게 심고 주제를 바로세워야 한다.》

소설에서는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준엄했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최첨단기계인 《HM기》를 만들어내는 라남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서는 《HM기》를 93번의 시험끝에 성공해내는 간고한 투쟁을 새 세기의 봉화를 추켜든 새 시대, 새 인간들의 성장과정으로 형상하였다.

라남로동계급의 새 세기의 주인으로서의 장엄한 성장은 그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진실한 생활현상을 통하여 21세기를 비치는 라남의 봉화,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타오르는 선군의 불이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여기에 작품에 심어진 사상적알

맹이와 주제가 있다.

이것은 21세기 태양으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시대와 력사적건지에서 폭넓고 깊이있고 새롭게 보여줄수 있는 사상적알맹이이며 주제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들인 《총검을 들고》, 《총대》에서는 시련의 나날에 인민군병사들속에 들어가시여 선군사상을 안겨주시고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며 선군시대를 펼쳐가시는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 장군님의 군령도엄격과 관련한 문제들을 내세우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강계정신》은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제도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인 준엄한 나날에 자강도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강계정신》을 창조하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강성대국건설에로 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견결한 사회주의수호정신, 무한한 헌신성을 보여줄수 있는 종자와 주제를 내세웠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에서는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과 같이 과학기술분야의 생활이 적지 않게 취급되었다. 소설에서는 《티탄》가공설비의 완성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적수준으로 비약할수 있는 나래를 달아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 과학기술분야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종자를 탐구하였다.

이처럼 작품들에서는 과학기술이나 군령도에 관한 위대한 장군님의 활동세계를 펼쳐보이면서 그 분야에 쌓으신 령도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는 문제를 탐구하였다.

그 작품들의 종자와 주체는 그것으로서 자기의 특징이 있으며 의의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에서도 물론 라남의 로동계급들이 《HM 기》라는 최첨단최신식기계를 만들어내는 생활이 기본으로 전개되고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선군으로 빛날 21세기에 대하여, 새 시대를 빛내여갈 새 세기의 주인들에 대하여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여러모로 폭넓게 파고들어 새 세기 주인들의 장엄한 탄생에 관한 문제를 내세워 세기적인 위인으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풍모를 형상할수 있었다.

그렇다. 라남에서 떠오른 21세기를 비치는 봉화, 선군의 열풍의 발원에 관한 종자와 주제는 그 폭과 깊이로 하여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풍모를 새시대의 높이에서 의의있고 새롭게 보여줄수 있는 전제로 되었다.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에서는 이처럼 폭넓고 무게있는 종자와 주체를 세기와 세기가 교체되는 력사적전환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한 생활의 설정이나 지난 세기와 새 세기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에 대한 형상으로 써만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장편소설에서는 라남의 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그들을 새 세기의 봉화를 든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하였다.

소설에 형상된것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선뜻 만들기 주저하는 현대적인 《HM 기》개발을 5월 10일공장에 맡기자고 말씀하셨을 때 일부 일군들은 놀랐고 주저하기도 하였다.

사실 그 공장은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서로 맞지 않아 《제개비》네 공장이라고 불리우고있었고 대상설비생산계획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실사 지배인, 당비서가 변질됐다고 하여도 그 공장 전체 로동계급이 변질될수 없다고, 거기에는 충실한 당원들과 재간동인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5월 10일 공장 로동계급을 믿고 《HM 기》개발을 맡기자고 말씀하신다.

그 공장에 료해내려갔던 일군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HM 기》개발을 두고 성공할수 없다고 실패자료를 보고올렸을 때에도 오히려 《HM 기》개발과정을 통해 그들의 충실성과 실력을 더 믿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변함없이 믿음을

을 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충실성이 안받침된 높은 실력에 대한 믿음, 거기에 새 세기의 요구, 새시대의 벽찬 숨결이 스며여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충실성만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때가 아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이며 실력전의 시대이다. 높은 실력을 지닐 때에만 시대를 빛내여가는 주인구실을 똑똑히 할수 있다.

누구보다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체현하고계시는 어버이장군님이시기에 어제날 라남주둔 일본군부대 마사원의 아들이라고 하여 따돌림을 받던 최강철에게 5월 10일공장 기사장의 중임을 맡겨주시고 본의아니게 리력기만자로 락인되였던 설계실장 윤현덕의 입당보증도 서주시며 가정환경이 복잡한 공업시험소 소장 강충현의 가정도 따듯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다.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믿음은 실력으로 당을 받드는 인간들에 대한 믿음이였으며 그들이 《HM 기》개발에서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게 한 믿음이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라남의 로동계급을 새 세기의 주인으로 키워주시는 인덕의 체현자로, 희세의 위인으로 형상하였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일뿐아니라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로 더욱 빛나게 될 새 세기이다.

21세기를 떠메고 나갈 주인들은 응당 선군사상의 신봉자, 선군정치철저한 옹호자, 관철자로 되여야 한다.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에서는 《HM 기》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라남로동계급을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지닌 새 세기의 전위부대로 키워주시는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선군령장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형상하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민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풍모를 잘 형상하는것은 소설문학에서 해결해야 할 창작실천적문제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에서 시련의 나날에 《강계정신》을 창조하여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형상은 곧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 불굴의 투사로 키우신 과정에 대한 형상으로서 선군령장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서 새로운 시도로 되었다.

우리 소설창작에서는 보다 새롭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형상창조의 초점을 돌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장편소설 《라남의 열

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당비서 주혁민을 만나시어 걸린 문제를 풀어주시고 《HM 기》 개발과정에 희생된 나 어린 노동자를 추모하여 묵도하시는 생활사실들을 장군님의 군부대현지시찰의 길에서 펼쳐진것으로 형상한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라남로동계급의 《HM 기》 개발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직접 주신 과업을 관철하는 과정으로 되게 설정하고 형상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이 대상설비계획수행과 《HM 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부딪친 난관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날 라남의 로동계급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하여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도록 하시어 헤쳐나가도록 가르쳐주신다.

소설에서는 그들이 《HM 기》 개발을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인 희생정신으로 다그쳐나가도록 하는 사실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소설에서 군부대현지시찰의 길에서 만난 공장시험소 소장 강충현에게 기성관념과 이론에 포로되지 말고 원료원천지를 새로 찾아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공장로동계급의 가슴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이런 신심을 간직하고 그들은 수십년동안 바다물에 사장되어있던 페타르를 수집하여 가열로의 연료문제를 해결한다. 결사대를 조직하여 3톤이나 되는 공기함마를 수동으로 움직여 《HM 기》 개발에 필요한 40mm 강관을 찍어내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은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련상케 한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라남로동계급에 대한 숭고한 믿음, 그이의 선군령도의 밑바닥에 맥맥히 굽이치고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우리 민족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깊이있는 형상을 통하여 밝히고있다. 《HM 기》 개발의 시작으로부터 완성과정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펼쳐진 우리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우리 인민에 대한 사랑과 잇닿아있다. 그것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으로 빛을 뿌릴 그날을 당겨올 원대한 구상과 잇닿아있다.

소설에 그려진것처럼 로씨야방문을 위해 두만강을 넘으시면서 민족의 수난사를 가슴아프게 되새겨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세계, 로씨야에 가시여셔도 순간도 조국을 잊지 않으시

며 시인 조기천을 《조선의 마야콥스끼》가 아니라 《조선의 뽀슈킨》으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장군님의 형상이 그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와같이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를 한몸에 체현하시고 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 라남의 로동계급을 새 세기의 봉화를 든 선군시대의 전위로, 영웅으로 키워주신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품모를 깊이있게 보여 주었다.

소설에서는 또한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특수체질로서 7개나 되는 발명권을 가진 실력가형의 일군인 당비서 주혁민, 몸집이 작고 식성이 까다롭지만 본신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경제실무에 밝은 지배인 오성오를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시대의 높이에서 새롭게 탐구하였으며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새세기, 새 시대의 주인으로 자라는 과정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그외에도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낯은 식, 낯은 틀, 낯은 관념에 매달려 발전된 큰 나라들을 환상적으로 넘겨다보는 부상서정후, 지식은 있어도 혁명적군인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시대의 락오자가 되어 후회속에 몸부림치는 새세대기사 설태섭, 신념도 실력도 없이 자기 살 구명만 찾는 공장직맹위원장 광경두 등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제나름의 심각한 교훈을 주는 부정인물들도 인상깊게 형상하였다.

이 소설에서 편과 장마다 생활과 사건들을 구체적인 년, 월, 일까지 정확히 밝혀 펼쳐보인것은 다른 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성상특징이다.

작품의 진실성과 수령형상소설의 력사문헌적 성격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구성형식은 세계적인 위인으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에 관한 종자와 주제로 깊이있게 밝히는데 힘있게 이바지되었다.

소설의 긍정적인 창작경험은 소설가들이 선군시대작가로서의 높은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종자와 주제를 탐구할 때 수령형상작품의 인간학적품격을 웅당한 수준에서 갇출수 있으며 선군령장의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게 펼쳐보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은 수령형상소설문학발전에서 자기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선군혁명총진군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답시

인민의 트랙

박상민

소문없이 큰일 한
북방의 어느 기계공장
우리 장군님 기쁘시여
다 돌아보신 때는
자정도 훨씬 지난 새벽녘

떠나시기 아쉬운듯
전시관을 다시 한번 보자고
지혜롭고 열정넘친
로동계급의 모습비낀 설비들과 제품들
정겨운 시선으로 쓰다듬으신다

문득 한 로동자발명가의 이름 부르시며
정말 기계박사라고
그를 못만나는게 아쉽다고
몇번이고 뇌이시는 장군님
출장지에서 돌아오면 내 인사를 꼭 전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신다

싸늘하게 불어오는 새벽 찬바람
장군님 옷자락에 스며들어
일군들 가슴 조이는데
-그래 떠나야지...
천천히 야전차에 오르시는 장군님

굽이굽이 령을 넘어
야전차는 전선으로 달리건만
장군님의 심중은 무거워
더 주지 못한 사랑이 있으신듯
마음은 자꾸만 오신 길 되돌아가고...

-아무래도 결리누만
그 동무의 안해라도 만나고 잡시다

가사

되돌아선 그 새벽길
이 나라 갈래많은 전선길
그모두 이끌어왔던가
푸름푸름 동터오는 이른새벽
이름없는 한 로동자의 집트락에
크나큰 사랑의 파도가 밀려온다

주인의 새벽단잠 깨울세라
저만치 야전차 세우시고
이슬을 밟으며 걸어오신 장군님
새벽빛에 아직은 선명치 않아도
알뜰한 주부의 손길에 정갈한 트랙에
아버이 다심한 자욱을 새기신다

응당 할 일을 한 로동자
그를 못만나시면
가셔야 할 전선길 천리만리로 멀어질듯
그의 안해라도 만나시여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 남기시면
이 작은 트랙에 멀고먼 전선길들이
지척으로 다가와 이어질듯

아, 우리 장군님 가시는 선군길
이 트랙을 정녕 거쳐야만 하시는가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 천만리는
군민을 품안으신 사랑의 전설의 천만리!

철령이며 오성산
굽이많은 전선길
이 작은 트랙이 넓어진 길은 아니더냐
오, 아침해빛 가득히 남기시고
우리 장군님 떠나신다
저 멀리 전선길
인민의 크나큰 트랙으로!

병사사랑의 날

황명성

즐거운 명절인듯 손꼽아 기다렸네
초소길에 마음을 이어놓고 기다렸네
라라라 오늘은 병사들을 위한 날
초소의 병사들과 한식술된 사랑의 날

살뜰한 어머니 누나의 정 안고가네
정을 담아 함께 부를 노래도 안고가네

라라라 오늘은 병사들을 위한 날
군민의 한피줄이 더 뜨거운 사랑의 날

고향집 정든 트랙 전호가에 솟아난듯
예서 자란 아들이 더 큰 위훈 약속하네
라라라 오늘은 병사들을 위한 날
장군님 애병의 뜻 꽃피나는 사랑의 날

더 높은 창작성으로 우리 당의 역사를 빛내어나가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밑에 우리 문학운동은 주체의 요구에 맞게 힘있게 발전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세인을 놀래우는 수많은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오늘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우리 조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60년 역사를 감회깊이 추억하고있으며 우리 조국을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주고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키워준 어머니당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위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작가들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하여온 우리의 문학예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들먹이고있으며 우리의 주체의 선군혁명문학건설을 위해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온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젖어있다.

그와 함께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더 높은 창작성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편집부는 우리 작가들의 불타는 창작적열의를 반영한 지상좌담회를 진행하였다.

편집부

수령형상문학의 숲이 무성하기까지

북송아에 씨가 있고 씨속에 알맹이가 있듯이 한 나라의 문학에도 핵이 있고 정수가 있다. 그것은 수령형상문학이다. 사회주의문학은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혁명문학을 축으로 하여 건설될 때만이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전투적기능을 다할수 있으며 우여곡절없이 곧바로 전진할수 있다. 문학의 생명과도 같은 이 핵을 발견하고 심어주고 키워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0돐을 맞는 뜻깊은 오늘 당의 령도밑에 수령형상창조를 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 한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의 자랑스런 로정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본다.

내가 4.15문학창작단에 들어올 때만 해도 수령형상문학은 첫 걸음을 떼는데 불과하였다.

세계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본받을만 한것이 없었고 배울데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대한 혁명력사와 업적을 어떤 방식으로 엮어나가겠는가, 전기식으로 쓰겠는가, 역사년대기식으로 묶겠는가, 아니면 일반주체의 소설처럼 이야기를 엮겠는가.

이렇게도 구성해보고 저렇게도 토의를 거듭하였으나 신통한 방도가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선 몇몇 작가들에게 분공되어 저마끔 자기 생각대로 써보기로 하였다. 여러편의 초고가 켜여지면 그중에서 혹시 기준으로 될만 한 소설양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허망한 기대였다. 전기식은 전

기식대로 약점이 있었고 년대기식은 년대기식대로 소실화되지 못하였다.

주체60(1971)년 8월 23일 4. 15문학창작단 작가들의 고충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몇편의 장편소설로 형상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위대상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의 폭으로 보나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나의 총서형식으로 하면 매 장편소설이 자기 자기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을것이라고 따듯이 일깨워주시었다.

작가들은 대번에 눈앞이 트이고 숨이 나갔다. 총서형식, 그것이야말로 명안중의 명안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였다.

막혔던 문이 열리자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전례없는 창작적열의에 넘쳐 3,000여매나 되는 부피두터운 장편소설들을 단 한두해사이 여러편이나 창작해나갔다. 어떤 때에는 초고들이 몇권씩이나 한꺼번에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탁에 쌓이는적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그 많은 원고들을 다 읽어주시고 좋은점과 교쳐야 할 점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심의본으로 완성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는 심의본으로 정리되어 올라온 장편소설 《1932년》을 다시 읽어주시였다. 주체60(1971)년 8월 31일 자

정이 가까와올무렵 량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제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당 중앙위원회의 관계부문일군을 찾으시고 방금까지 장편소설 《1932년》을 다 읽었는데 작가들이 기다릴것 같아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소설을 잘 썼다고, 사상적대가 서고 형상수준이 높으며 생활이 진실하고 감동도 있다, 소사하집장면 같은것은 눈물이 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작품을 보시면 매우 기뻐하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사와 문장을 보다 진실하고 철학성있게 다듬을데 대하여 장면과 폐지를 찍어가시면서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소설은 드디어 수정완성되어 주체61(1972)년 뜻깊은 4월의 명절날에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작품으로 세상에 발표되였다.

장편소설 《1932년》은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항일무장투쟁의 첫 년륜이 새겨진 력사를 빛나게 형상해낸 동시에 앞으로 무성한 숲으로 자라게 될 총서문학의 뚜렷한 첫돌기의 년륜을 감아올리였다.

이렇게 첫 걸음을 뗀 우리의 총서문학은 계속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 빠른 속도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작가들의 고충을 제때에 명철하게 풀어주심으로 써 우리 작가들이 신심에 넘쳐 창작하도록 고무해주시였으며 총서작품들이 시대의 력작으로 완성될수 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와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이 그런 작품들중의 하나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작품이 없다. 소설마다 2~3차례, 지어는 10여차례에 걸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았다.

해방후편 총서창작에서는 전시기와 다른 새로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서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위업을 담아야 했다면 해방후편에서는 독립국가 수령, 세계혁명의 수령으로서의 수령님을 형상해야 했다. 상대적으로 주권전취를 위한 혁명활동보다 주권을 전취한 후의 수령의 사업영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각 방면으로 넓어진 조건에서 총서창작도 그 폭을 훨씬 넓혀야 하였다.

작가들은 처음 부딪친 문제인지라 매일같이 갑론을박의 열면 논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누구도 신통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러차례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우선 해방후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전쟁시기, 전후시기로 갈라서 창작하되 그 시기들에 있었던 력사적사변을 중심으로 여러편의 총서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는 1단계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중심으로 한 작품, 건국, 건당, 건군을 취급하는 작품들, 조국해방전쟁시기 단계별 혁명사적을 취급한 작품들과 인재문제, 토지개혁문제를 취급한 작품들을 창작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설계안에 따라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을 비롯한 해방후편 총서작품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어떻게 되어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이처럼 짧은 기간에 부피두터운 수령형상장편소설들을 광광 써낼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럴 때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한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우리 작가들을 무한한 열정으로 떠밀어주고있으며 또 우리들의 창작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각별하면서도 세심한 지도가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가식없는 진심의 고백이다.

지난날 애 어린 묘목에 불과하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총속에 한치한치 키를 자래워 혁명문학전선을 떠메고나가는 믿음직한 거목으로 자라났다.

어제날 아동문학작가로 창작단 마지막보총수로 들어왔던 나도 어느덧 60을 훨씬 넘긴 창작단 책임일군으로 자라났다.

세월이 흐를수록 4.15문학창작단은 관록있는 창작집단으로 존엄을 떨치고있으며 총서문학은 울창한 명작의 숲을 이루어 설레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작단의 후비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4.15문학창작단에서 작가대렬을 전방성있게 키워야 혁명문학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실력이 준비된 작가만 쓰려고 하지 말고 키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말씀대로 우리 4.15문학창작단에서는 후비양성사업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여러명의 작가들이 창작단의 중견작가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으

시고 이번에는 창작단의 대를 이을 젊은 작가들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선발하여 새로 키울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또다시 취해주시었다. 이제 조만간에 창작단은 70~80대의 로작가로부터 20~30대의 젊은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련련히 뒤를 이은 중심깊고 전망이 환한 창작집단으로 꾸러지게 될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을 만난 기회에 4.15문학창작단에 관심을 돌려 더 많은 혁명소설이 나오도록 잘 도와주라고 간곡히 이르시였으며 지난 5월 1일에는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혁명영화문학을 다 맡아쓰겠다고 한하는데 좋은 제의라고, 그들은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관련한 좋은 종자들을 쥐고있기때문에 혁명영화문학을 얼마든지 잘 써낼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다.

4.15문학창작단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런

믿음속에서 자라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믿음속에서 승승장구할것이다.

4.15문학창작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가 클수록, 수령형상문학에 쌓아올린 장군님의 업적이 높아갈수록 창작단을 책임진 내 어깨가 무거워지는것을 항상 느끼곤 한다.

조선로동당창건 60돐을 민족의 대경사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는 오늘 나는 우리 당과 함께 승리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혁명문학의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문학건설업적을 길이 빛낼 충성의 맹세를 다시금 뜨겁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키우신 불패의 선군혁명작가들의 대오가 있는 한 우리 나라 혁명문학은 앞으로 영원한 개화기, 끊임없는 전성기를 펼쳐나갈것이다.

《김일성상》 계관인 4.15문학창작단 단장 김 정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무릇 한 나라, 한 민족의 력사는 그 시대의 문명과 지성을 대표한다고 말할수 있다.

장구한 인류사를 돌이켜보면 개별적인 사상가, 작가들에 의해 그것이 일부 표현되었을뿐이다.

그로 해서 여러 시대를 대표하는 문예조류가 등장하였지만 력사와 인간의 자주적운명개척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고고학적이거나 상징적의미로만 남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0돐을 맞으며 반세기가 넘는 위대한 당의 력사와 더불어 개화발전하여온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의 길을 더듬는 나의 가슴은 지금 크나큰 걱정애 넘쳐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기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하면서 오늘에 이른 우리의 군사문학.

일찌기 혁명적군사문학의 발걸음을 크게 내디딘 우리의 선군문학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지가요들인 《조국보위의 노래》,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전호숙의 나의 노래》, 《결전의 길로》, 단편소설 《불타는 섬》, 《구대원과 신대원》, 희곡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를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들로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포화속에서 자기의 혁명적사명감을 더 깊이 다졌으며 오늘로 줄달음쳐왔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그 이후시기에도 우리의 군사문학은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세월의 년대를 넘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군사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일대 전성기를 맞이할수 있었다.

일찌기 50년대 중엽에 수령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인작가들이 혁명적수령관이 선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나는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창조사업을 발기하시고 지도하여주시던 그 나날들을 잊을수 없다.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극의 주제로부터 종자, 세부에 이르기까지, 대본창작으로부터 형상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창작하시여 가극의 사상에술성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여 사회주의선군문학예술의 본모기를 창조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선군문화의 창조에서 혁명적가요, 군가창작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몸소 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혁명군가의 위력을 더높이 떨치시기 위하여 군가와 당정책가요창작사업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자주 군인작가들을 찾으시여 창작된 군가들과 당정책가요들을 들어주시며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때없이 떠오르곤 한다. 그중에서도 가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은 더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곤 한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그 바쁘신 속에서도 오랜시간 노래를 여러차례나 들으시며 노래가 시대의 명곡으로 완성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뜨거운 손길과 세심한 지도속에 우리 군인창작가들은 가요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령님어 오고 가는 정》, 《결전을 앞두고 다지는 맹세》, 《조선인민군군가》, 《밀림이 설레이나》, 《대렬훈련의 나날에 병사는 자랐네》, 《내 삶이 꽃피난 곳》 등 수백편의 무게있고 량만적인 군가들을 창작해내었다.

1990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군인창작가들은 더 높은 창작성으로 당의 선군혁명문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다.

그 격동적인 나날에 우리 군인창작가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창작하여 세계를 진감시켰으며 가요들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절세의 애국가 김정일장군》, 《우리는 잊지 않으리》, 《조선의 장군》, 《조선로동당 만세》, 《강성부흥아리랑》, 《전선길의 추억》, 《축복받은 나의 삶》 등 우리 시대의 군가-명곡들을 수많은 내 놓았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지도밑에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역사여》를 비롯한 많은 서사시들과 서정시들, 경희극 《동지》, 《철령》, 《축복》, 《생명》과 함께 수십편의 영화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문단을 장식하였다.

소설창작부문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빛나는 결실을 이룩하였다.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람세찬 전선길을 달리시는 속에서도 몸소 어느 한 군인소설가가 쓴 장편소설을 보아주시고 우리 군인소설가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소설창작방향과 현실체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소설가들이 군인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파고들면 얼마든지 훌륭한 소설들을 써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종자와 소재, 성격과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군인작가들은 10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고있다.

우리 선군문학은 당의 품속에서 사회의 본보기로서의 중대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지난기간 장편소설들인 《준엄한 겨울》, 《위훈》, 《순간과 영원》, 《돌파구》, 《태백산줄기》, 중편소설들인 《돌격침로》, 《지렁점》 등을 창작하였으며 조선군사단편집 1, 2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60년 력사와 더불어 선군문학이 걸어온 자랑스런 행적을 돌이켜보는데 이 시각 나는 오늘의 이 빛나는 결실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는 상상도 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가 소박한 작품을 창작하여 올렸을 때는 몸소 작가의 이름을 기억해두시고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길에서 병사출신의 시인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선군혁명동지라고 값높이 불러주시었으며 한 군인작가가 병에 들었을 때에는 멀리 사랑의 비행기까지 띄워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어제날의 소박한 병사, 애 어린 청년들이 선군문학의 기둥으로, 주인으로 자라나 혁명적 군인문화창조의 담당자로 자라났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정치성과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것이다.

《김일성상》 계관인 소설가 박 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소설문학이 걸어온 60년 력사

일반적으로 문학은 숭고한 사상감정과 풍부한 정서, 깊이있는 철학성으로 하여 민족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다. 특히 소설문학은 그 나라 민족의 생활력사와 민족성, 언어, 풍습 등 모든 총체가 담겨진 문화의 전일체로서 당대 시대의 교차지울수 없는 자서전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한 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0돐을 맞는 뜻깊은 이날 나의 가슴은 실로 뜨겁기 그지없다.

그것은 우리 현대조설문학이 조국해방의 환희가 넘치던 60년전 첫 시기부터 당과 혁명의 사상적무기로 되어 력사의 먼길을 정보로 걸어왔다는 뿌듯한 긍지감으로부터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희미한 《신소설》의 자취도 남겨보고 단편소설 《병어리 삼룡이》, 《행랑자식》과 같은 계몽기소설들과 프로레타리아문학, 사실주의문학의 맹아들인 단편소설들인 《탈출기》와 《기아와 살륙》, 《락동강》과 《인간문제》와 같은 《카프》영향하의 눈물겨운 창작의 자욱을 남겨온 우리 소설문학이다.

그런 청소한 우리 현대소설문학이 해방후 자기의 새로운 발전면모를 보여주면서 첫 자욱을 힘있게 뿜수 있는것은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시기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혁명문학전통의 깊고도 역센 뿌리가 있는것으로 하여서였고 중요하게는 자기당 마르크에 마치고 낮과 함께 붓대를 새겨넣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해방후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인민의 새 모습을 보여준 구수한 땅냄새가 물씬 풍기는 장편소설 《땅》과 같은 소설들의 출현은 새 조선의 창건과 함께 붓을 들었던 젊은 작가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불려주었다.

예로부터 글짓는 일을 두고 《필경》이라고 일렀다. 붓으로 밭을 간다는 말인즉 작품을 쓰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하는것을 비유한 말이다. 아직 기량도 어리고 창작경험도 별로 없는 신진소설가들로서는 전혀 생소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개척해야 하는 력사적인 임무가 너무도 크고 무겁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새 문학건설의 첫 시기부터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령도에 충실했던 우리 로동계급출신의 소설가들은 새 조국건설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건설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적이고 전투적인 단편소설들을 포함하여 많은 소설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 우리 소설문단에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단편소설 《인간 김일성장군》, 장편소설 《력사》와 같은 수령형상문학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는것은 경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소설문학도 싸우는 인민군병사들과 함께 불타는 고지에 서 있었다.

종군작가가 되어 최전연전방에 나간 우리 소설가들은 포탄상자를 책상삼아 탄피등잔밑에서 단편소설들인 《불타는 섬》, 《상급전화수》와 같이 인민군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을 형상한 수많은 단편소설들을 써내었을뿐아니라 전시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대동강》과 《청천강》

과 같은 큰 형식의 소설들도 짙짙 써내었다. 특히 영웅들의 전기라고 할수 있는 근 20여편의 전투실화집 《싸우는 조선청년들》도 만들어내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소설가들이었지만 장편소설 《시련속에서》와 같이 전후복구건설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수많은 소설작품들을 창작하여 문단을 흥성케 하였다.

미제를 타승한 전승의 긍지와 기백에 넘쳤던 전후시기 우리 소설문학은 중편소설들인 《전사들》, 《포성》, 《락동강》과 장편소설 《포화속에서》 그리고 그 제목부터가 멋지고 흥미있는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을 비롯한 많은 전쟁주제의 작품들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수확》, 《개마고원》 등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소설문학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과 국가사업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이라고 규정해주시면서 기원전부터 수많은 문예학자들과 창작가들이 자기들이 쓰는 작품에 무엇인가 문학의 움을 틔워주는 요소가 존재한다는것을 암시받으면서도 때로는 작품의 주체라고도 해보고 작품의 사상이라고도 해보며 오랜 세월 머리를 기웃거리려보곤 하던 그것, 문학작품의 종자론을 새롭게 내놓으심으로써 인류문학사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었다.

이것은 문학에서의 《불의 발견》과 같은 력사적사변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뿐아니라 주체적문예사상과 주체사실주의창작리론, 창작방법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일대 전성기로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소설가들이 쓰는 작품들을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친히 보아주시며 우리 소설문학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을뿐아니라 우리 소설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여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하여 우리 소설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더 높은 창작성파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여년동안에만도 우리 소설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여러차례에 걸치는 《100편 장, 중편소설창작전투》를

벌려 수백여권의 무게있는 장중권소설들을 창작해내어 주체의 선군혁명문학건설에 이바지하여왔다.

최근에도 우리 소설가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60여권의 장권소설창작에 일시에 진입하여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작품을 완성해내는 놀라운 성과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당의 령도아래 성장하여온 우리 소설가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끝없는 충성심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소설가들의 무한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품들어 키워주신 소설가들의 대부

대가 실력있는 정예부대로 준비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당의 60년 력사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핌속에 자기발전의 길을 즐기차게 이어온 우리의 소설문학!

정말 돌이켜보면 볼수록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벅차게 해준다. 우리 소설문학이 걸어온 길, 영광넘치고 걸어가야 할 길 또한 영광스러울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소설가들은 불타는 열정과 신심드높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문학건설에서 앞채를 멘 심정으로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김일성상》 계관인 소설가 김진성

당과 함께 걸어온 노래의 행군길

영광스러운 어머니당창건 60돐을 맞는 우리 시인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끝없는 감격과 벅차오르는 환희에 휩싸여 있다.

당창건 60돐은 우리 시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모신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노래의 다발을 엮어온 송가의 60년이기도 하다. 감회깊은 력사의 언덕에 서고보니 가슴치는 생각이 있다.

나라를 빼앗기고 품어 안아줄 어머니품이 없었던 지난날 이리 밝히고 저리 밝히며 길가의 풀잎처럼 버림받던 우리의 붓대!

눈물에 젖고 피에 젖은 목소리로 봄이 오면 봄을 불들고 따뜻한 어머니품이 그리워 목놓아 울었고 산기슭에 피어나 오고가는 비바람에 가냘프게 떨고있는 진달래를 보면서도 어머니 없는 고아의 설움에 소리없이 흐느껴울던 우리 시인들이었다.

붓대가 나딩구니 노래도 덩굴었고 그 붓대가 밝히우고 찢기우니 노래마저 피젖은 눈물이었다.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그 아무리 어머니품을 찾고 불러도 그것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었고 허공중에 헤여진 이름이었다.

고아의 그 설움, 그 눈물을 과연 어느분이 닦아주셨던가.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가 되여주시려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듯 피어린 혈전의 길을 헤쳐오신 것이 아니라.

운명도 미래도 다 안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시인들은 시대의 가수, 새 조국건설의 문화전선투사로 새롭게 태어났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백두산》, 《김일성장군찬가》, 《우리의 태양 김일성장군》, 《3천만의 태양》 등 위대한

수령찬가는 그대로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송가였다.

우리 시인들은 수령의 노래로 위대한 당의 작가가 되었다.

우리가 부르는 신념의 노래는 새 조국건설시기 건국의 힘찬 마치가 되었고 땅의 주인들이 들어잡은 억센 모습에 되었으며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는 승리의 포성, 멸적의 포성되어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폐허속에 재더미를 헤칠 때에도 우리는 래일의 노래를 부를줄 알았고 창공높이 천리마가 나래쳐오를 때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로 시대를 벅차게 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대로 어머니당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시인들의 성장이기도 했다.

그 성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더 보람차고 긍지높은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우리 시인들이 받아안은 또 하나의 행복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뒤떨어지면 천리만리를 다시 가서라도 기어이 대오에 세워주는 위대한 우리 당의 사랑은 침상에서 일어 서지 못하는 전사의 손에도 붓대를 쥐여주어 시대를 마음껏 노래하게 하는 세상에 다시없는 어머니사랑이다.

진정 시 《어머니》는 한 시인의 고백이기전에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사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분출인것이다.

오늘 우리의 시문학은 선군혁명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선군혁명령도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인들이 쓴 시와 가사들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며 시대의 명작으로 빛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자애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시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정말이지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우리들이 쓴 시와 가사들을 보여주시고 귀중한 말씀을 주시며 새날을 맞으신 그 헌신의 날과 달로 이어진 사랑과 은정의 60년세월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진정 이 60년은 우리 시인들을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손잡아 이끌어준 크나큰 믿음의 60년이 었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당의 나팔수로 노래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갈것이다.

《김일성상》 계관인 시인 백의선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유구한 민족문화의 력사에서 60년이란 그리 긴 세월이 아니다. 어찌보면 순간이라고 말할수 있는 매우 짧은 력사적기간이다.

하지만 우리 문학은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따라 60년이라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실로 놀라운 문예사적기적을 이룩하였다.

돌이켜보면 수천년 흘러온 인류문예사에는 전성과 침체, 번영과 쇠퇴의 곡절많은 력사가 엮여져있다. 력사에 새겨진 이 모든 흔적들은 해당 시기에 출현한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어있으면서도 더욱 중요하게는 문학의 발전을 조건지어주고 이끌어주는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흥망성쇠로 구획지어진다. 노예사회의 발생과 함께 문명의 첫 막을 연 때로부터 계급사회의 과란많은 로정우에서 마침내 인류문예사는 중세기에 이르러 《문예부흥》이라는 새 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의 몇개 나라에서 이룩된 국한된것이였으며 그나마 근 30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것이였다.

인류는 20세기 70년대에 이르러 자주적인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찬란히 개화발전한 사회주의문예부흥을 여기 주체조선에서 맞이하였다. 항일혁명문학의 뿌리에서 자라난 우리 문학예술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함께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며 60년간 승승장구하여 힘차게 전진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을 치차라고 한다면 지식인들, 문필가들을 상징하는 붓대는 윤활유라고 할수 있다는 붓대철학을 신념으로 하여 우리 문학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무기로 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따라 우리 문학은 지난 60년세월에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사회주의문학의 본보기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 일어난 이 기적적인 현실은 20세기 문학예술의 향도성으로 장엄히 솟아오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

며 자주적인 문학예술의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문예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시고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직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문예사상리론가이시며 창작의 천재이시고 령도의 거장이시고 대문호이시며 주체적인 문학예술발전을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계승하시고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주체의 인간학원리에 기초한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의 총적방향과 창작원리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키고 더욱 풍부화하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항일유격대식창작기풍을 계승발전시켜 마련해놓으신 주체적인 창조체계와 창작방법,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본보기로 하고 주체의 인간학원리를 구현하여 창작된 시대의 명작들,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믿음직하게 담당하여 건설해나갈수 있는 작가, 예술인부대의 육성 등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우리 문학예술을 참다운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로 찬란히 꽃피울수 있는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문학은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았으며 자기 수령과 당의 사상과 의도를 그대로 구현함으로써 명실공히 당의 정책을 문학예술로 안반침하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사람들을 힘있게 고무하는 기치로, 선도자로 되고있다.

우리 문학에서는 소설, 시, 아동문학, 평론 등 문학의 모든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하고있으며 매 형태마다에서도 다채로운 형식의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어 우리 문단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다.

참으로 인류가 낳은 회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가장 고결한 인간애를 완벽하게 겸비
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20세기가 높이 받들
어모시고 21세기가 우러러 따르는 인류의 태양
이시며 자주적인 문학예술의 영원불멸할 업적
을 쌓으신 절세의 영재이시고 대승승이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창건되어 예술훈기를
새기고 있는 력사의 시각에 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지나간 년대의 경륜을 감회깊이 되
새겨보는 우리 작가들의 심정은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기로 빛나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작가들은 장군님의 손길에 이끌려
창조의 걸음을 떼였고 장군님의 사상으로 심장
을 불태우고 그이의 슬하에서 문학창작의 보람
찬 삶을 누려가는 최대의 행운을 누렸으니 어
머니당창건 60돛이 되는 뜻깊은 시각에 삼가
웃짓을 여미고 그 영상을 우러른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위대한
문학예술의 영재를 모시고 주체문학의 새 경지
를 개척해나가는 가장 행복한 작가들이다.

주체문학이 나아가는 저 앞길에는 언제나 자
애로운 해빛이 찬란히 빛나고있다.

평론분과위원장 최길상

60년전 그날은

류춘선

그날

60년전 그날에 우리 수령님
이 길을 지나가셨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20년만에 보시는 정든 고향산천
고향집 사립문은 수령님을 기다려 열려있건만
지척에 두고도 우리 수령님
만경대갈림길을 지나가셨다

얼마나 생각 깊으셨으랴
조상대대로 물려줄
보습과 호미가락은 버리였어도
자기의 총대를 버릴 힘만은 없던 이 땅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곡성
하늘가에 사무쳐
열네살 나이에 고향 떠나
압록강을 건느실 때
수령님 가슴속에 간직된 조국이어

수령님은 바쁘게 가서야 했구나
강철로 새 조국의 초석을 고이고
강철로 새 조국의 기둥을 세우고
강철로 내 조국의 총대를 버리시려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가신 길

수령님은 바쁘게 가서야 했다
조국을 찾기 위한 걸음도 바빴지만
그 조국을 일떠세우는 걸음은 더 바쁘기에

이 길이 잠시라도 늦어진다면
부강조국은 천리만리로 멀어지기에

강철의 총대로
이 나라 기둥을 세우는 힘이
로동계급의 주인된 마치에 있음을
력사의 진리로 새기시며
그날에 우리 수령님
강선으로 가신 길이어

이 땅에 길도 많아
천갈래 만갈래여도
해방의 총대를 억세게 버려
나라의 무쇠기둥을 세워가신
우리 수령님의 길이어!

오, 그날처럼 가지였구나
하루도 아닌 한평생을
우리 수령님
그처럼 바쁘게 가지였구나

이 길에서
우리 당이 강철로 굳건하고
고마운 인민의 주권을 지켜
무적의 총대가 억세게 버리어졌다

아, 그날
우리 수령님 강선으로 가신 그 길이 있어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선군의 마치가 아로새겨진것 아니었던가

온 나라가 떨쳐나 농사를 잘 지어 당창건 60돐을 흥성거리는 분위기속에서 맞이하자!

-공동구호에서-

10월의 포전길을 걸으며

리진협

나는 지금 포전길을 걷고있다.
온 한해 노래와 웃음이던 발걸음
자욱자욱 짙으며
10월의 포전길
이삭의 바다위에 허리를 잠그고 걷는다

걸을수록 그 생각
이해 이 가을엔 떠나지 않는 생각이여라
류달리 이해 포전길엔
총집중, 총동원된 온 나라의 발자욱
이 가을의 무게를 떠실고온 그 깊은 발자욱

뜻깊은 10월을 안은 벌이어서
더더욱 가슴치는 뜨거운 생각
이해엔 정월부터 사납던 제국주의광풍이
보아라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눈비많은 전선길에
격전장의 잔해마냥 덩굴지 않느냐

전선길에서 찾아오는 승리의 쾌감에
가슴을 찡그러면 절로 뜨거워지는 눈곱
풍요한 10월의 이 가을은
우리 장군님 주신것이다
선군의 일심단결로 키우신
온 나라를 이 벌에 세워
이렇듯 승리의 열매를 무르익힌것이다

넘치는 흙모여 고마움이여
달리는 걸을수 없는 10월의 포전길로
생각깊은 한해가 함께 걷고
선군으로 가꿔오신

못잊을 날과 달이 함께 걷노니
어머니당창건 60돐에 무르익은 이삭
우리 가꿔익힌 그 이삭은 얼마나 큰것이나

기본전선이였다!
위대한 씨앗을 묻어
선군의 보람을 하늘에 떠올린
우리의 기본전선!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과 가장 가까운
우리 삶의 풍요한 포전길이어

그 포전길로 떠실고온 10월의 가을을 맞아
집집의 문이 저물도록 단길줄 몰랐고
우리 땅이 열어준 그 사랑의 문, 행복의 문이
어서 오라
내 나라의 흥성거리는 생활을 불러들이거니

얼마나 좋은가
해해년년 만복을 따들이며
이런 가을을 맞이해갈 내 나라
장군님께 바치고싶은 마음과 진정
10월의 벌 가득히 이삭으로 영글고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갈 불타는 심장이
노을처럼 붉게 물든
우리의 새날은 그 얼마나 휘황할것이라

그 포전길로 나는 벌써 걷고있다!
당창건 60돐 10월의 대축전장으로
걸어온 길을 따라 세월의 저 한끝까지
설레이며 환호하며 이삭이 물결쳐오는
10월을 향해 나는 걸어가고있다

상식

소 묘

소묘란 여러가지 색을 쓰지 않고 그림, 솟, 콘테, 연필, 철필. 먹 등을 가지고 선과 명암을
그리는것 혹은 그려진 그림, 출판화의 한 종류
이다. 소묘에는 독립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그려
지는 소묘, 조형적관찰과 묘사능력을 키우기 위
한 소묘, 창작용자료를 위한 소묘, 채색화를 그

리기 위한 밑그림으로 그려지는 소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소묘는 회화, 조각, 건축, 공예, 산업미술 등
미술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미술가들의
창작수업에서 필수적인것으로 된다.

10월의 광장에 들어서며

전승일

위대한 어머니가
두팔벌려 부르고있는
10월의 광장에
나는 무엇을 안고 들어서는가

무엇을 안고오면
비오나 눈오나 40여년 세월
나를 안아키우고
나를 손잡아끌어준
어머니당에
더없는 기쁨을 주라

고백하건대
자그마한 기쁨마저도
어머니 귀가에 다 속삭이는 자식처럼
밤낮없이 지동친 나의 강철로를
통채로 안고 오고싶었구나

펼칠 사품치는 붉은 쇠물이
폐지폐지마다에 무겁게 채워져있는
내 삶의 자서전같은 용해일지를
10월의 어머니앞에
펼쳐안고 오고싶구나

누군들 다름있으랴
어머니 젖을 모금모금 빨며 자라난
이 땅의 천만자식들이
가슴터지도록 자랑을 안고
대하마냥 물결쳐오는
10월의 이 광장

비줄기보다도 이 땅을 더 많이 적신
병사들의 진한 구슬땀이 오고

이 강토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목숨처럼 지켜낸
병사들의 백승의 총검이 노도쳐오는 광장

어랑천발전소언제든 우뚝우뚝 들어선다
애국의 손으로 포기포기 키운
가없는 오곡백과도
10월의 광장에
일렁이며 파도쳐온다

허나 그보다 먼저 안고올것이 있다
고마움에 젖은 심장에
우리 먼저 뜨겁게 부둥켜안고
들어설것이 있다

철령이라는 글자를
다만 지도에서나 익혔더라면
오성산과 대덕산 초도라는 글자를
그 어느 사전에서나 알았더라면
내 바칠 땀이 어디 있고
조국이며, 우리 끓일 땀이 어디 있더냐

오, 10월의 이 광장에 안고 들어서자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철령과 오성산 초도...
그 험한 령들과 천만고지들을
우리 선참 앞세우고 들어서자

기적의 힘이 되고 불패의 진리가 된
장군님의 가슴치는 그 자욱자욱을 다 앞세우고
금지높이 들어서는
이 나라 아들딸들의 불이 끓는 심장을
위대한 10월이며
두팔벌려 안아다오

상식

8도강산

8도강산이란 말은 지난날에 우리 나라 전체 강산이라는 뜻으로 온 나라의 모든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성한(1413년~1895년) 전국 8개의 가장 큰 지방행정단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말한다.

각 도는 딴 이름을 가지고있는데 평안도는 관서, 함경도는 관북, 황해도는 해서, 강원도는 관동, 충청도는 호서, 전라도는 호남, 경상도는 령남이라고 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훌륭히 재형상하여 세 세기를 대표하는 대결작품으로 내놓자!

-공동구호에서-

수필

우리의 《아리랑》

최 련

10월의 밤하늘가에 꽃이 폈다. 붉고 푸른 그 밤하늘밑에서는 아름답고 화려한 툄동의 바다가 흐른다. 만발한 꽃송이들이 거대한 꽃바다로 되었다가는 경쾌한 춤의 툄동으로 펼쳐져 넘칠듯 설레인다. 그우에 살아움직이는 광폭의 화면같은 배경대며 수만관중의 심장을 휘여잡고 울려퍼지는 선률...

나는 처음 공연을 보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매번 처음 보는듯이 격앙되는 심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눈물젖은 두만강가에 올리던 《아리랑》에 배여있는 민족의 절망과 비탄, 그우에 반짝이는 민족재생의 찬란한 별이며 해빛찬란한 해방의 봄...

년대와 년대를 이어 민족이 걸어온 수난과 환희의 대전환이 자욱자욱 펼쳐지고있다. 바람도 슬피우는 그 갈밭의 설레임에 속속들이 스배여있는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고통이 지금 뼈를 에이는듯 하고 승리의 푸른 솔대문아래로 굽이쳐간 민족의 환희와 기쁨이 그대로 우리의 넋을 진감시킨다.

그 장쾌한 화폭에 심취된 나의 눈앞에 문득 실패한 자기의 《아리랑》을 두고 한숨짓던 한 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며칠전에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나의 동창생이었다. 그는 류학생으로 나와 한 책상에서 공부했던 린방국가의 기자였고 나와 대학 전기간 한 호실에서 생활한 다정한 벗이기도 했다. 그는 나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텔레비준취재단 기자로 평양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푸른 버드나무들이 실실이 가지를 드리우고 줄지어 선 대동강가에서 우리는 만났다. 대학시절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추억하며 우리는 한동안 해후를 나누었다.

내리는 눈송이를 손우에 받으며 함께 걸던 모란봉의 산책길이며 훌륭한 소설을 읽고 서로 소감을 나누던 기숙사의 별이 빛나는 밤들... 《그래 <아리랑> 취재는 잘되고있겠지?》

나는 학문탐구에서 열정적이고 다감했던 어

제날의 동창생이 이번 첫 취재에서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랐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사실은 그래서 널 더 만나려고 했어. 난 이번에 따로 <아리랑>소개편집물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왜 그럴까?! 음악도 흐름도 다 그대로이고 촬영각도도 다양하게 해보았는데 실지의 감흥을 재현하지 못했거든.》

나는 어지간히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조선어를 모국어처럼 할수 있는 그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비교적 깊은 리해를 가지고있는 《조선전문가》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는 우리 나라의 력사에 대하여서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었으며 우리의 현대 노래는 물론 옛 민요들까지도 아는것이 많았다.

한번은 나에게서 조선치마저고리를 빌려입고 혼자서 공화국창건기념 무도장에 나갔던적도 있었다. 함께 춤을 춘 남동무조차 그가 외국인이라는것을 조금도 몰랐다고 한다. 그 사건은 대사관일군들과 우리 대학 선생님들을 적지 않게 놀래운 즐거운 추억으로 되었다. 내가 그에게 춤을 추고싶어서 그랬는가고 묻자 그는 평범한 이 나라 청년들을 알고싶어 그랬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후 그는 그 나라의 이름있는 통신사에 취직했다고 알려왔다. 그런데...

《난 여기 온 첫날부터 매일 공연을 보고있어. 보면 볼수록 내가 만든 편집물은 초라하구나. 난 그래서 립체편집물을 만들기로 결심했어. 말하자면 다양한 각도에서 바닥의 툄동과 배경대의 효과, 선률의 흥취를 다같이 돋구어낼수 있는... 목적은 나의 감동을 절반이라도 재현시키는거야. 도와줘.》

나는 그가 말하자는것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았으나 그렇다고 무슨 신통한 방도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친구를 도와주려고 다섯번째로 공연을 관람한다.

《선군으로 <아리랑>민족을 지켜주시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눈보라치는 철령의 험산
준령이 펼쳐지자 나의 심장은 다시금 높뛰기
시작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시련에 찬 나날
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떠오른다.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이 헤쳐야 할 난관은 그
얼마였던가.

인민의 고통과 아픔을 열배, 백배로 안으신채
눈이 오는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 가림
없이 철령과 자강도며 온 나라 방방곡곡 선군
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쪽잠과
췌기밥의 가슴뜨거운 일화가 태어난 그 야전차
안에서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
도/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하고 노래
를 부르시던분...

장군님을 따라 인민은 일어섰다. 통강냉이를
썬으면서도 억척같이 일어서 세계를 놀래우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세웠다. 그 시련 많
고 영광에 찬 나날에 인민의 가슴속에 품던 열
정과 환희가 지금 이 5월1일경기장에 꽉 들어
차 거대한 바다로 설레이는것이다.

그래, 나의 동창생의 실패에는 원인이 있었다.
그 편집물에 추가락은 담을지언정, 노래는 담
을지언정 그때 우리 인민이 체험한 뜨거운 눈
물과 격정이야 어떻게 담으랴.

《아리랑》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다. 거기
엔 우리 민족의 눈물과 환희가 비졌다. 그것은
그저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크나큰 생명체의
움직임이며 그가 피워올린 불꽃이며 창건 60돐
을 맞는 우리 당에 드리는 감사의 환희이다. 그
것을 어떻게 조그마한 화면에 담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아리랑》이라는 거대한 생명
체를 재간과 기교로 창조한것이 아니다.

한달전 내가 출판사에 넘길 원고를 마저 수
정하고 돌아올 때였다. 그때 마침 《아리랑》 혼
련에 참가한 소학교학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집
으로 가고있었다. 예닐곱살쯤 되였을가.

《이제 아버지장군님께서 꼭 나오실거야. 장군
님께서선 우리 어린이장을 제일 칭찬해주실거라
고 우리 엄마가 말했어.》

나의 바로 앞에서 쌍태머리를 달싸이며 걸어
가던 귀여운 소녀가 또렷하고도 확신성있는 목
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정말?》

그들중 제일 키가 커보이는 사내애가 그 쌍
태머리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사내애의 얼굴에
는 놀라움과 기쁨이 서로 엇갈리고있었다. 그다
음 아이들은 생각에 잠겨 절었다. 나는 그 애들

이 무슨 생각들을 하고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가슴속에 뜨거웠것이 그득히 차올랐
다. 그래, 이 애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우리
장군님이 계신다. 우리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춤
노래를 보아주신다는 그 하나의 확신으로 그들
은 훈련의 순간순간을 보냈다. 우리 인민의 가
슴마다 넘쳐나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시련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은인께
드리는 다함없는 민족의 감사이며 충정의 마음
이기도 하였다.

우리 조국은 치욕의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이 해에 바로 전쟁억
제력으로서의 핵보유선언으로 온 세계를 들었
다놓았다. 그것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자주적인민, 존엄높은 조국의 참모습을 다시한
번 힘있게 과시한 력사의 사변이었으니 지금
이 경기장을 통채로 뒤흔드는듯싶은 환희와 열
정은 바로 그 행복과 감격이 그대로 비껴서가
아닌가.

《아리랑》 무대우에 펼쳐지는 저 눈부신 화
폭들은 그대로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 새롭게
일떠선 민족의 힘이 어쩔수없이 터쳐올린 막
을길 없는 환희이며 열정이다.

그래, 그가 이 환희와 열정을 어떻게 알수 있
으며 어떻게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그 어떤 립
체편집물도 《아리랑》 공연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의 환희는 담을수 없
는것이다.

그는 역시 나의 동창생일망정 우리는 아닌것
이다.

나의 귀전에는 그가 하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이건 세계의 기적이야.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도, 수억의 인구를 동원해도 <아리랑>은 만들
수 없어.》

그렇다. 《아리랑》은 그저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이 창조하신 조선의 얼굴이
고 조선의 넓이며 조선의 힘, 조선의 랑만이다.
그것은 더 찬란한 래일로 역세계 나래쳐오르
는 아름다운 조선의 위대한 날개인것이다.

나의 얼굴로 어느새 후더운 눈물이 흐르고있
었다. 나는 축포가 오르는 10월의 하늘을 바라
보며 마음속으로 웨쳤다.

《세계여, 그대들은 아직 우리의 <아리랑>을
다는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제 곧 이 행성
우에 눈부신 빛을 뿌리는 위대한 아리랑민족,
위대한 아리랑강국의 힘을 보게 될것이다.》

《ㄷ. ㄷ》의 대오는 오늘도 자란다

리광선

지금은 없다 우리곁에
화전의 수수한 농가집
어깨와 어깨를 겹고
피와 피를 끓이던
그 열혈의 동지들이

허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생활속에
뜨겁게 약동하고있는
《ㄷ. ㄷ》의 그 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던가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철쇄를 마스는 마치가 되어
한별을 결사옹위한
동지애의 첫 노래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력사에서 처음으로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여기서 처음으로 내세워졌다
천대받고 압박받던 근로대중이
자주성을 지닌 혁명의 주체로

《타도제국주의》의 경륜을 펼치며
《ㄷ. ㄷ》의 녀이 빛발쳐온
안도의 수림과
남호두의 귀틀집
북대정자의 눈길과

해방전의 총포성을 생각하노라

김혁, 차광수와 오중흡
김책과 안길, 최현과 오진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진 맹세 변치 않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온
《ㄷ. ㄷ》 정신의 투사들을 생각하노라

정녕 그날의 열혈의 동지들이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신
어버이수령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사연많은 두자루의 권총에서
제일 먼저 총대의 무게를 받아안은
《ㄷ. ㄷ》의 그 녀으로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선군의 새 세계를 펼쳐가거니

무성한 잎새를 펼친 아름답리 거목도
뿌리에서 온갖 자양분을 받아안듯
불멸할 《ㄷ. ㄷ》의 녀에서
혁명의 진리를 깨우치고
혁명의 승리를 락관하며
우리 끝까지
주체의 한길을 가고 가려니

오, 《ㄷ. ㄷ》의 대오는 오늘도 자란다

가사

내 고향의 구호나무

전해연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내 고향의 자랑으로 서있는 구호나무
항일의 투사들 심장으로 새긴 글발
그 글발 익히며 이 땅을 알았네
아 구호나무아래서 나는 자랐네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 헤친
투사들의 숨결이 어려있는 구호나무
조국을 어떻게 찾았는가를

이 심장에 뿌리내려 새겨주었네
아 구호나무아래서 나는 자랐네

어린날에 다 몰랐던 애국의 뜻을
다 자라 추억속에 되새겨보네
구호나무아래서 가꾸어온 삶
한생을 그 녀으로 푸르게 살리
아 구호나무아래서 나는 자랐네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김정곤

심산유곡
외따른 집 한채
우연히 여기서 만났지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수림으로 뻗은 길
토방은 길이 모인
분기점인듯

나무도 아름차게 안고
소리없이 나타난 그 사람
머리엔 성성한 백발
백발너머 산관은 청청 푸른숲

홀려간 세월의 하루하루를
단 하루도 헛되이 그냥 보내지 않았구나
하루하루를 모두 거머쥐여
아름드리 나무에 넋풀으로 휘감아놓았구나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어느날 현지도도길에서
길가에 꽃모심는 아이들 보시며
너무도 기쁘시여 10년은 젊어지셨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수령님
그 아이들 한품에 안으시고
찍어주신 기념사진 마주하고
제 인생의 좌표를 정했는지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지금은 우리 장군님 야전차 차창에
수려한 산발만이 비껴들게 하려고
나무도 키워 보내준다고
이 산천 오죽이나 애지중지 하셨으면
바쁘신 전선길에서
우리 장군님 손수 삽을 드시고
나무를 심었겠는가고...

오리오리 흰 머리칼 빛을 뿜는듯
가락가락 주름살이 그처럼 돋보이는 사람
수령님 만족에 우리 장군님 기쁨에
인생을 몰아 쟁그리도 바치는 그 사람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이 집의 처마는 낮아도
푸른 수림들이
하늘을 메우며 치솟아
그처럼 무진장한 재부를
후대에게 넘겨줄 유산의 창조자
토방돌우엔
바닥이 다스른 로동화 한켠레

그 사람 누구인가
심산유곡의 산림감독원
심장의 박동우에 당원증을 얹은
수천수만의 당원중에 한사람이었네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작가일화

착상과 어리석음

한 청년이 시쓰기를 좋아하여 책상에 앉아 쓰기는 많이 쓰지만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니 좋은 시가 나오기 만무하였다. 그리하여 이 어리석은 청년은 자기에게는 좋은 착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모대기기만 하였다.

하루는 길거리에서 시인 마야콥스끼를 만났는데 그는 너무 좋아 대뜸 그에게로 뛰어가 인사말도 없이 《시인선생! 듣건대 당신은 매우 풍부한 착상을 가지고있다는데 나에게는 왜 도대체 착상이 오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전부터 그를 알고있는 마야콥스끼는 《오,

그렇소? 아마도 착상은 책상머리의 어리석은것과 벗으로 사귀기 싫어하는것인가부지! 내 경험에 의하면 현실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착상이라는 <물건>이 내 머리에서 요동을 치드구만. 친하자고 하는것 같애!》라고 눈을 껌벅하며 대답하였다.

로씨야의 유명한 시인 마야콥스끼는 현실에 뛰어들어 사색하지 않고 어리석게 횡재하려는 이 청년을 이런 유모어로 야유하였지만 그속에는 얼마나 그를 고무하며 따끔하게 충고하려는 속대사가 깔려있는가!

고향집의 밤

김선화

귀뚜라미 귀뿔귀뿔
자장가를 부르는가
온 하루
크나큰 기쁨속에 떠들썩하던
고향집추녀아래 고요가 깃든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고
같이 오면 못쓴다던가고
수령님품에 얼굴묻고 울고웃던
만경대 할머니

채 마르지 않은 구들우에
밀짚과 벼짚, 멍석을 깔고
그우에 대를 두고 물려오는 무명이불 펴시여라
아 우리 수령님
풍찬로숙 20년만에
그립고 그립던 고향집아래목에 드시여라

밀물처럼 밀려오는
추억... 또 추억
하많은 사연안고
달빛도 고요히 흘러드는데
슬머시 팔베개를 고여주시는 할머니
장군이 되어 태양이 되어오신 장손에게
유년의 그날처럼 사랑을 주시는 할머니

-할머니, 내 머리가 무겁지 않아요?
-무겁기야 뭘...
속삭이는 음성
뜨거운 입김
깊숙이 더 깊숙이
팔을 넣어 받치시는 할머니

만경봉 술바람아
너 삼가 이 고요를 깨치지 말어
가을하늘 보석같은 못별들아
몽클 젖어드는 사랑의 이 화폭
하늘가득 금문자로 새기여주렴

만주광야 설원천리에
고생이란 고생 다 하시면서도
백두산에 높이 뜬 새별을 그려보며

왜놈들과 당당히 맞서시던 할머니
아 그 새별 그 장손을
팔베개에 고이 품어안으셨으니

잠들수 없으시여라
가슴뿌듯한 행복에 겨워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장군의 어깨너머 자꾸만 어려오는
아드님들과 며느리, 작은 손자
해방위해 목숨바친 만경대식솔들을
한가슴에 다 안고싶으시여

정녕 잠드실수 없어라
수령님께서도
어찌 부모형제 혈친들뿐이라
바람거친 이국의 산야, 눈보라세찬 타향의 언덕
에
피눈물과 함께 묻고온 동지들은 얼마고
찾으셔야 할 은인들과 전우들 또 그 얼마...

아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해방된 조국의 이 밤
할머니의 팔베개 함께 베고
고이 잠재우고싶으신 수령님
하셔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젊으신 우리 수령님앞에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도
베기만 하면 솔곳이 잠들던
할머니의 팔베개
이 밤-
추억의 뜨거운 눈물에 축축히 젖는다
할머니의 소박한 념원
수령님의 부강조국 래일도
이 팔베개우에 펼쳐진다

아 만경대의 밤
예순해전 10월의 고향집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다
추억을 안고
래일을 안고
할머니의 팔베개우에서
깊어갔다

삶의 첫 기슭에 대한 추억

송찬웅

사람마다 잊지 못할 추억이 있듯이 나에게도 삶의 첫 기슭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러 뵈은 개선광장이 자리 잡은 모란봉기슭은 내 삶의 닻이 오른 기슭이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감격으로 뿜어번지던 그 날을 되새겨보느라니 60년전 개선광장에 올려 퍼지던 그 환호성이 메아리쳐오면서 못잊을 추억과 함께 달아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오시였다.》

해방의 환희로 한껏 들떠있던 10월 어느날, 평양에는 새로운 소식이 떠돌았다.

그때까지 전설같은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항일의 령장 **김일성** 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공설운동장(당시)에서 열린다는 격동적인 소식이였다.

이 소식은 13살 철부지소년이였던 나의 가슴에도 말 못할 흥분을 안겨주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은 물론 온 나라가 벅찬 환희로 설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리며 뵈고싶어하던 우리 장군님이신가!

드디어 10월 14일, 기다리던 새날이 밝아왔다.

어디서 모여왔는지 아침부터 사람들의 물결이 공설운동장으로 흘러들고있었다.

나도 그속에 끼여 신발을 벗어쥐고 달려가보니 사람들이 벌써 나무판자로 울타리를 친 운동장안은 말할것 없고 운동장밖의 둔덕과 모란봉에 높이 솟은 을밀대며 최승대에까지 하얗게 덮여있었다.

나는 인산인해를 이룬 어른들속에서 두말끝을 세우고 새로 가설한 주석단쪽을 바라보았으나 아무리 발돋움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거기서 뛰쳐나와 모란봉으로 달음쳐올라갔다.

둔덕에는 마침 그쪽으로 긴 아지를 뻗친 큰 나무가 서있었다.

나는 거기에 올라가 주석단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광장은 바다마냥 파도쳐 설레였다.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며 메아리쳐갔다.

나도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어린 소녀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우리 장군님께 드리였다. 꽃다발, 진정 그 꽃다발은 항일의 혈전만리 모진 고난을 헤치시며 해방의 봄을 안아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인민이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삼가 올린 조국의 첫 꽃다발이였다.

나는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환영군중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젊으신 모습을 난 생처음 우러러 뵈올수 있었다.

그리고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새 민주조선건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도 들을수 있었다.

그때엔 철이 없어 암흑의 나락에서 광명의 언덕에 올라선 민족의 거창한 사변을 미처 다 깨달을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철들어서야 그날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연설이 새 조선건국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전환의 길을 열어주신 애국, 애민의 대강이였음을 가슴깊이 새길수 있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말로 처음 불러본 그날의 만세소리가 너무나 작은것만 같아 그날처럼 큰 나무에 다시 올라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를 목청껏 터치고싶은 충격을 금할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쓴 시 **《개선광장 푸른 언덕에서》**를 다시 읊어보았다.

그날처럼

기다려 애타던 가슴안고

그립던 장군님을 우러러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을 들으며

목청껏 축복의 만세를 터치고싶어라

아, 그날처럼 그날처럼

환히 웃는 가을하늘아래

해빛 같은 미소를 보내시며
손을 저어 흔드시는 **김일성** 장군
젊으신 그 모습을 다시 뵈고싶어라!

오늘도 어릴적 푸른 꿈이 어려있고 내 삶의
맛이 오른 모란봉기슭 개선광장에 서면 어느새
소년의 마음이 되고 큰 나무에 올라 터치던
그날의 만세소리가 들리는것만 같다.

내 나라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푸른가.
수려한 저 산발, 해빛밝은 이 땅, 내가 지금
어떤 땅을 딛고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누리고있는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업적, 그 은덕을 생각
할수록 가슴은 후터워지고 이 성스러운 땅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해진다.

예순해전 그날, 내가 처음으로 뵈운 젊은
우리 수령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는 내 인생을
꽃피워주고 당의 시인으로 나를 키워준 은혜로
운 자양분이였으며 그날에 울려퍼진 환호소리
는 걸음걸음 수령님을 따르도록 내 한생을 떠
밀어준 충성의 메아리되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서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
님을 받드는 한길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저 불멸의 기념비 개선문과 더불어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젊은 모습으로 계시는 모
란봉 개선광장이 자리잡은 푸른 기슭은 새 조
선의 아침이 밝아온 광명의 기슭, 내 삶의 첫
기슭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한 추억을
불러주고있다.

10월 9일

주 연

쇠물꽃 피어나는 용해장에서
불줄기 흐르는 압연장에서
예순번째의 이날을 맞는다
10월 9일이여

조국의 하늘을 떠받든 철의 숲
한눈에 궁지높이 바라보며
아득히 치달아오른 철의 산악
선군의 메부리우에서 부르는 이 노래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 가득히
쇠물빛 노을은 너울너울 춤추며 날아올라
그날의 감격 노래하는가

60년전 이날! 우리 수령님
이 땅을 휘감았던 억압의 철쇄를
영원히 끊어버리시고
항일의 기나긴 세월 그림던
고향 만경대를 지나시며
우리 강선땅에
새 조국건설의 첫 지름길 열어주신
력사의 날 10월 9일이여

고역에 터갈린 로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동무들이 새 조선의 주인이라 하실 때
아, 설움에 시들고 멎든 가슴들
그날에 울었다
항일의 초연에 그슬린 그이의 군복을
쇠물보다 뜨거운 눈물로 적셨다

그날의 그 감격 그 사랑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기며
쇠물은 대하되어 도도히 굽이쳐 흘렀고
락원의 이 땅엔 철의 숲 무성했나니

보아라
철의 울림으로 가득찬 우리의 조국
류출구를 터치며 쇠물이 폭포친다
무적의 대오 강철의 대오
발구름소리 우렁차다

아 10월 9일이여 너는 정녕
무쇠기둥 강철의 명절
기적으로 날아넘은
투쟁과 변혁의 60년을
우리 궁지높이 자랑높이 돌이켜본다

가리라 우리 장군님 펼치신
강성대국의 웅대한 설계도를
강철의 억센 기둥으로 높이 받들고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강철로 더 억세게 버리며
승리의 새날을 또다시 비약해가리라

아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뒤덮을
위대한 승리의 아침을 부르며
이 땅의 철의 력사와 더불어
강철로, 강철로 무궁할
세월의 그 한끝까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그 사랑
길이 전하며
오, 빛나라 10월 9일이여!

해뜨는 계곡

리 명

이야기에 앞서

나는 올해 정초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로정을 따라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나가 현실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오늘의 선군시대인간들의 삶과 투쟁, 사랑과 증오, 생활과 감정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수 있었다. 나는 그 충동에 못이겨 미력한 필력이지만 몇편의 짧은 소설들을 쓰게 되었다.

총제목이 떠오르지 않아 궁싯거리던 차에 문득 건설장에서 만났던 한 일군의 말이 생각났다.

《…작가동무, 저 하늘을 좀 보십시오. 대소한 날씨여서 하늘의 해도 빨간 알몸을 드러내고 허공에서 떨고있는것 같구만요. 허지만 우린 이 계곡에 계절을 모르는 열과 빛을 뿜는 언제, 말하자면 인공 <해>를 띄우고있습니다.…》

나는 그 소박한 비유가 마음에 들어 단편소설목록제목을 대신하려고 한다.

단편소설 (1)



쾌산봉산줄기를 따라 줄달음쳐오는 광풍은 어랑천계곡의 날카로운 메부리들을 들이답새기고는 산자락에 덮여있는 눈더미들을 파몰아쳤다. 어랑천대안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눈사태가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강바닥의 두터운 얼음장을 들부셨다. 강반은 쪼렁쪼렁한 메아리를 일으키고 뾰얀 눈가루들이 해빛에 반짝이며 구름처럼 피어났다. 바람은 재빨리 그 눈가루들을 걷어안고 어마어마한 자태로 계곡을 가로타고 솟아오르는 언제작업장을 휩쓸면서 아슬한 산상인 《수리발톱》으로 치달아올랐다.

그 눈보라에 떠밀리며 한 사나이가 《수리발톱》을 향해 성급히 오르고있었다. 청년돌격대 소대장 최기남이었다. 그는 좀전에 한그루의 소나무가 눈발속에 묻혀 부영게 보이는 《수리발톱》산정에서 이상스러운 형체가 얼핏거러 부랴부랴 나선 걸음이었다. 그것은 실로 상서롭지 못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산정에 올라 눈으로 시원히 확인하기 전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부소대장한테 언제콩크리트타입에

나선 소대지휘를 맡기고 우야 질러가는 길을 택했다. 산세는 오를수록 험하고 가파로왔다. 그는 길아닌 잡관목숲을 와락와락 헤치기도 하고 집채같은 바위돌들을 뛰어넘기도 하며 줄곧 뚫아올랐다.

얼마후 《수리발톱》에 닿은 기남의 검실검실한 낮빛은 대뜸 흐려지고 꼬리가 들린 짙은 눈섭이 굳었다. 흰갈기가 대공으로 회오리치는 소나무아근에서는 털모자를 눈두덩이까지 폭 내리쓴 키가 큰 청년이 표척대를 세워잡고 저 멀리 측량공의 손짓에 따라 이쪽저쪽 옮겨짚고있었다. 기남은 불시에 피가 얼굴에 물켜들었다.

《동무, 이거 무슨 짓이요?》

표척수청년은 얼핏 기남이한테 눈길을 던졌다. 부리부리한 눈을 희번덕이며 위압적으로 나오는 기남의 울음이 꽤나 거슬린듯 그도 끊지 않는 말투로 내쏘았다.

《보면 모르오? 여기다 길을 낸단 말이요.》

《길?...》

《?!...》

표척수청년은 잠시 얼퍼름해졌다. 난데없이 나타나 무턱대고 나오는 상대의 행동거지가 어처구니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표척대를 옮기며 하던 일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자 기남은 눈에 퍼런 불을 켜들고 그한테 달려들었다.

《씩 그만두지 못하겠소!》

《뭐요? 동무 제정신이요?!》

표척수청년은 뒤늦게야 분김이 살아올라 맞받아 으르켰다. 기남의 기세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는 표척수의 한손에 둘러있는 나무표척대를 와락 움켜잡았다. 표척수는 그 돌발적인 행악에 기가 꺾여 망연자실했다. 자기보다 키는 한뼘이나 작지만 펄펄 날뛰는 기세에는 더 맞설 자신이 없는가 싶었다. 그때 측량기를 둘러맨 늙수그레한 측량공이 황황히 달려들었다.

《이 사람 소대장, 이 무슨 일인가?... 우린 측량도면대로 작업하고있단 말일세.》

《측량도면?...젠장, 하필이면 길을 낼데가 없어 여기다...》 눈가루가 기남의 입에 쓸어들어 그는 뒤말을 삼켜버렸다.

측량공아바이가 거칠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기남의 어깨를 다독이였다. 그러더니 누긋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사람, 진정하라우. 자넨 영 갸름이군. 내 말을 좀 듣게나... 이제 머지않아 언제가 완공되면 말일세. 이 골짜기로부터 사방 수십리는 대호수로 변모될게 아니겠나. 그때면 인적없던 이 골안경치가 얼마나 희한해질텐가. 그래서 나라에서는 수려한 풍치를 이를 이 산중호수가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휴양지를 꾸릴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있단 말일세. ... 휴양지를 찾아 호반으로는 유람선이 다닐게구 또 배스와 자동차들도 끊임없이 다니게 될텐데 길이 있어야 할게 아니겠나...》

《그걸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요. 그 휴양길이 어째서 이 소나무산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젠장. 이 번번한 산정이 도대체 뭐길래?...》

여직 분을 삭이고있던 표척수청년이 툄들거렸다. 그러자 기남은 예리한 칼끝에 밀린듯 솟불처럼 이글거리던 눈빛이 뿌레지고 시꺼먼 눈썹꼬리가 부르르 떨었다. 고통에 이즈러진 그의 입술새로는 신음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긴...》

기남은 목구멍을 꺾 메우는 비통감에 더 말을 못했다. 한참 숨을 돌린 다음에야 힘들게 뒤를 짜냈다.

《여긴... 우리 청년돌격대와 중대장이었던... 한 동지가 장렬히 최후를 마친 곳이란 말이요...》

《?!...》

두사람은 일시에 움찔 굳어졌다. 표척수청년

은 휘둥그런 눈길로 《번번한 산정》을 새삼스레 두릿두릿 살피였고 측량공은 흠뻑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그 아무리 정당한 일도 성스러운 희생앞에서는 할 말을 잃는가 싶었다. 측량공아바이가 무거운 숨결을 내뿜며 중얼거렸다.

《음, 그런 곳이군.》

《어-유, 기가 막혀서... 하필이면 이 넓은 땅을 두고 중대장의 녀이 습벤 이 산정이 유람길이 되다니... 차라리 내 가슴을 딛고 다니면 다녔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내 그 도면을 그린 설계원을 찾아 결판내고 말테요!》

《너무 욕지르게는 말게... 설계원도 사연을 알게 되면 어련할라우.》

측량공이 타일렸다. 기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보라는 잦지 않고 기승을 부렸다. 희뿌연 대기속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찢어발기는 모진 바람이 일더니 한열으로 허리가 기울어진 소나무아지가 부러질듯 모지름을 치고 이파리들이 새된 소리를 질러댔다. 기남의 귀가에는 소나무의 그 울부짖음소리가 마치도 참답게 순직한 김영준중대장의 심혼의 웨침처럼 들렸다. 가슴에서는 또다시 의분이 끓어올라 참을수가 없었다. 그는 가파로운 산아래로 구울듯이 내쳐달렸다. 마주치는 눈보라는 달아오른 얼굴에서 척척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뭐... 번번한 산정이라우?)

기남의 뇌리에도 울분의 눈보라가 일어번졌다. 한그루의 로송이 뿌리박고있는 산정이 어째서 번번해졌는지 모르고있다는 그자체가 그를 더 격발시켰던것이다.

이래전, 청년돌격대는 이 산성을 《수리발톱》이라고 명명했다. 언제를 산경사면에 부착시켜야 하는 산꼭대기에는 수리개의 발톱같은 날카로운 바위들이 들쭉날쭉 층층 쌓여 언제기 초작업장을 무시로 위협하였다. 기초굴착작업이나 발파를 할적마다 《수리발톱》에서는 토사층이 무너져내리기도 하고 바위돌들이 굴러내려 빈번히 작업을 중지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수리발톱》을 두고는 언제기초를 제 기일안에 보장할수 없었다.

조성된 정황을 놓고 전 력단에 맨 먼저 혁명적군인정신을 호소한것은 김영준중대장이였다. 김영준은 《수리발톱》을 발파로 없앨 대담한 발기를 하고 그 과업을 술선 말아나섰다. 발발이기 어려운 험한 철벽의 산상... 찌적 걸이 가고 날이 선 화강암바위들... 그 짬에 드문드문 뿌리내린 소나무... 중대는 결사조를 무었다. 김영준중대장은 결사대원들과 함께 허리를 바줄로 동이고 벼랑에 매달려 수굴해갔다. 그는 대원들의 앞장에서 낮과 밤을 이은 전투를 벌려 닷새만에 계획된 발파구멍을 다 뚫었다.

그날은 봄날의 이른 새벽이었다. 현장에는 기

남이네 발과공들과 발과지휘를 맡은 김영준 중대장뿐이었다. 김영준의 점화신호에 따라 발과공들은 자기가 맡은 도화선들에 불을 달게 되면 줄사다리를 타고 벼랑을 내려 바위산 밑에 정한 대피소로 들어가게 되어있었다. 언제공사장과 생활건물들이 들어앉은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발과작업이어서 발과각도를 잘 타산했던 것이다.

동틀무렵... 열병식에 나선 병사처럼 키가 늘씬하고 팔뚝에 청동빛 근육이 두드러진 김영준이 쾌기만만한 시선으로 발과현장을 굽어보며 점화구령을 내렸다. 비상한 흥분에 가슴을 조이고있던 기남은 재빨리 맡은 도화선뭉치에 불을 달아나갔다. 그런데 하나의 선이 집요하게 애를 먹었다. 도화선에 누기가 찔는지 도무지 불이 먹지 않았다. 술한 호호발과들에 에워싸인 중심발과폭약꾸레미도화선이였다. 어느새 일을 마친 다른 발과공들이 줄사다리쪽으로 달려가는 발자국소리가 어지럽게 마쳐왔다. 조금해난 기남은 손칼을 꺼내 도화선끝을 반뿔가랑 잘라버리고 다시 불을 댔다.

쉬-익!... 마침내 도화선끝머리로 붓초리같은 새과란 불길의 뿔어나왔다.

기남은 빠른 눈길로 타들어가는 도화선을 일별하고는 제창 돌파서 줄사다리를 향해 뛰어갔다.

그는 자기가 마지막사람이라고 짐작했다.

때를 같이하여 푸릿한 연기가 서린 저쪽에서 누구인가 꾸물거리는 기미가 감촉되었다. 한손에 가스등을 들고 현장을 확인하는 중대장이였다.

《중대장동지, 빨리요!》

줄사다리를 붙잡고 급히 두어단씩 내리던 기남은 뒤에 대고 소리쳤다. 그제야 가재결음을 치면서 이편으로 달려온 영준은 줄사다리에 매달렸다. 기남은 뒤따라 땅에 내려선 영준에게 별썬 웃어보이며 이마의 땀을 팔소매로 훔쳤다. 바로 그 순간이였다.

맞은편 산릉선에서 발과현장을 감시하던 감시원처녀가 이쪽으로 구을듯이 달려오며 새된 소리를 질러댔다.

《중대장동지! 폭약이... 폭약...》

《뭐야?!》

영준은 한길이나 뛰어오를듯 놀라며 몇걸음 내달려 다급한 시선으로 발과장을 더듬었다.

아!-

영준과 기남은 거의 동시에 전류에 닿은 사람들처럼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큼직한 폭약꾸레미가 바위들사이에 드리워 파란 연기를 뿔어올리고있었다. 기남이가 마지막까지 애를 태우며 불을 달았던 폭약꾸레미였다. 그때 헤덤비며 바위썬에 단단히 박아넣었던것이 똥기쳐나온 듯싶었다.

이제... 저 폭약이 터지는 날이면...

단번 발과로 제거하게 될 《수리발톱》 발과는 허사로 뭉것이며 그 위험한 폭발로 하여 돌과편들과 돌사태는 언제며 그안의 생활건물들을 덮쳐버릴것이였다. 기남은 더 어쩔사이없이 튀어일어나 줄사다리쪽으로 달음쳤다.

《정신나갔어!》 하는 벽력같은 고향소리와 함께 기남은 허공에서 모재비로 나떨어져 뒹굴었다. 영준의 아귀썬 손이 그의 뒤덜미를 잡아 휘둘러쳤던것이다.

영준의 눈확에서는 강렬하고도 억센것이 퍼런 불덩이가 되어 쏟아져나왔다.

《중대장동지!-》

《동문 안돼!-》

억제 못할 충동에 몸을 일으키는 기남이를 다시 한번 떠박지른 영준은 줄사다리쪽으로 휙- 몸을 날렸다.

《안돼요-》

경사지 웅덩이에 구겨박혔던 기남이 뒹쳐 일어나 줄사다리에 매달렸을 때에는 영준이 벌써 벼랑턱에 다달은 때였다.

빨리 오르자!... 빨리!... 꼭 깨물린 입술새로 짓씹힌듯싶은 신음소리가 숨가쁘게 흘러나왔다.

그러던 기남은 줄사다리에 별안간 툭 하는 충격이 가해지는것과 함께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감각을 느꼈다. 뒤통이 엉덩이가 땅바닥을 짓찧는 타격에 하늘땅이 맞붙어 돌아갔다.

벼랑우에 오른 영준이 바위턱에 걸었던 줄사다리를 벗겨 내쳤던것이다. 기남은 가슴을 갈가리 찢는 고통과 피타는 절망에 눈물을 왈칵 쏟으며 벼랑우를 쳐다보았다. 바람과 해별에 탄 영준의 구리빛얼굴이 애끓게 내려다보고있었다.

《중대장동지!-》

눈물을 짓씹는 기남의 소리는 목안에 잦아들었다. 영준은 진땀에 젖은 머리를 한번 흔들고 나서 눈을 끔벅했다. 그 눈동자에는 새벽하늘을 물들이는 노을빛이 따스한 미소마냥 어려있었다.

영준은 제창 몸을 돌려 폭약꾸레미를 가슴에 안고 집채같은 바위들이 맞붙어선 째새를 향해 비호같이 몸을 던졌다...

폭음이 가셔진 그 아침 《수리발톱》은 형체조차없이 사라지고 그대신 반반한 산정에는 한그루의 소나무가 신비스레 살아남았다.

약간 허리를 기울사한 소나무줄기거죽은 군데군데 벗겨져 허연 속살이 드러났고 가지들도 더러 찢겨져있었다. 미풍이 일었다. 이내 산정우로 선흥색의 아침노을이 진하게 퍼지며 소나무를 감쌌다. 소나무잎새들은 김영준의 마지막 미소와 같은 따뜻한 봄노을에 물들어 흐느적이었다. 마치도 그의 푸르른 청춘과 넋으로 숨쉬는 듯싶었다.

그때부터 《수리발톱》 소나무는 기남의 생

활뿐만 아니라 청년돌격대원들의 마음속에 발전 소건설과 동지를 위해 희생된 영웅의 상징처럼 뿌리내렸다. 기남은 잠시도 잊을수도 잊어서도 안되는 교정을 찾듯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앞에 나설 때마다 소나무산정에 올라 억센 기개와 담력을 가다듬기도 하고 동지애로 심장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최후의 시각에 나는 우정이야말로 진짜 동지애였다.

지난해 가을, 청년돌격대소대장으로 임명된 그의 소대앞에는 언제우안기초를 한달동안 해제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떨어졌다. 언제우안경사면도 좌안공사때와 거의 비슷한 작업조건이여서 어렵고 힘에 부친 투쟁을 동반해야 했다. 그날 기남은 《수리발톱》 산정에 소대원들을 휘둘러가지고 올라갔다.

작업에 진입하기 앞서 태반이 신대원들로 구성된 소대원들한테 김영준중대장의 최후를 들려주어 발전소건설에서 누구나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청춘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호소하고싶었다.

해가 질녘에 소대원들보다 한발 앞서 산정에 오른 기남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에 부딪쳤다. 웬 녀인이 소나무앞에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서있었다. 소나무아래 땅바닥에는 그가 들고온 듯 한 들꽃뭉치가 정히 놓여 저물어가는 별을 받아 유난히 눈부신 빛을 발산했다. 기남은 얼마쯤 떨어진 자리에 멈춰서 그 녀자의 거동을 조심스레 살폈다.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가튼히 입은 그 녀자의 뒤모습을 봐서는 나이를 가늠할수 없었다. 조금지나 그 녀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부드러운 눈매를 질게 해주는 길다란 속눈썹에 눈물방울이 맺혔었다. 가름한 얼굴형에 얹전히 다물린 입, 상큼한 코, 별에 그슬지 않은 해탈간 살결은 처녀시절의 애티나 탄력보다도 정돈되고 단아한 애젊은 부인의 미모였다. 그 녀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눈을 치며 기남이를 바라봤다. 일순 그 녀자의 눈동자는 당황으로 떨었다. 녀인의 파들거리는 얇은 입술과 두눈에 어린 눈물은 웬일인지 저런 아름다운 자아냈다. 그 녀자는 잠시나마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것이 먼구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인츰 의아한 표정으로 뒤바뀌었다.

《실례지만... 최기남동무가 아니세요?》

《누구신데요?》

기남은 와플 놀라 낫선 녀인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녀인의 맑은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피었다.

《저의 주인이 이곳에서 만난 친구라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더군요.》

《?...》

기남의 뇌리에는 지난 일들이 번개처럼 스쳤다. 피곳 연제인이 청년절을 맞으며 영예게시판에 오를 사진을 찍을 때 중대장을 끄드겨 기념

사진 한장 남긴 생각이 났다. 기남의 의혹은 이내 기쁨에 후두둑 뛰었다.

《아니, 그럼 김영준동지의... 아!》

기남은 저도몰래 탄성을 지르며 반가움에 어쩔줄을 몰랐다. 녀인은 머리를 숙여 례의를 표하고는 속삭이듯 뇌이었다.

《려단지휘부에 들렸더니 그이가 이곳에서... 홀로 그이의 자취를 찾아보고싶었어요》

《!...》

기남은 아픔과도 같은 예리한 탄복이 가슴을 찔렀다. 그럴즈음에 소대원들이 산정에 몰려왔다. 기남은 이 사연깊은 산정에서 김영준중대장의 안해와의 상봉에 몹시 격동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대장의 유가족들을 아직 한번도 찾아보지 못하여 량심의 시달림을 받고있던 그였다.

하지만 뜻밖에도 중대장의 위훈이 새겨진 곳에서 그의 안해를 만나게 되자 그 량심의 빛은 다소나마 덜 기회가 마련된듯 기쁨에 들먹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소대원들을 녀인앞에 정렬시켰다. 소대원들은 느닷없는 그의 흥분에 휘말려 어정쩡한대로 엄숙히 대오를 짓고섰다. 기남은 자못 격동된 음성으로 대오앞에서 녀인을 소개하였다. 그러자 소대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녀인을 둘러싸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터쳤다. 기남은 중대장에 대한 우애의 감정이 더더욱 끓어올라 그의 참된 삶의 반려자인 안해한테 숭고한 인사를 안겨주고싶어 목갈린 소리로 뒤를 이었다.

《아주머니, 저희들은 오늘 김영준동지처럼 살고싶어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중대장동지를 대신하여 저희들의 경의를 받아주십시오...》

반쯤 돌아서 고개를 떨구고있던 녀인은 치미는 걱정을 두손으로 틀어막았다. 녀인의 그윽한 눈에는 맑은것이 호수처럼 고여들었다. 그 감동의 물결은 불그레한 색조로 물든 눈굽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고마와요... 전 오히려 동지들에게 용서를 빌고파요. 이렇게 뒤늦게야 그이를 따라 건설장에 왔어요》

《아니, 아주머니도 이 건설장이에요?》

《애를 말기고 오느라 걸음이 늦어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래일 발전소건설지휘부에 가 배치를 받겠어요.》

《?!...》

기남은 다시금 놀람과 경탄에 가슴이 몽클했다. 남편의 뒤를 잇고싶어 발전소건설장을 자원한 첫 걸음을 이곳부터 찾은 고결한 녀인! 역시 그 중대장에 그 안해였다...

그렇게 《수리발톱》은 기남의 생활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고있었다. 하지만 이제 만약 어느 누구의 설계대로 녀인의 가슴에 남편의 심흔처럼 뿌리내렸을 산정의 소나무가 찍혀져 없어지고 그곳이 짓밟고 다니는 길이 된다면 필

경 너인은 까무라칠것이었다. 그것은 너인한테 두벌 희생을 주는 죄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생명을 구원해주고 참된 삶을 깨우쳐 준 동지의 녀를 지키지 못한 의리없는 인간으로 저주받을것이었다.

산락을 내린 기남은 헉 바람을 들이키며 언제바닥에 들어섰다. 대형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연방 지나가면서 뽕얇게 눈가루를 말아올렸다. 그는 숨막히는 눈보라속을 뚫고 돌격대중대 지휘부에 먼저 들렀다. 설계실을 찾기 앞서 이 사실을 중대부에 상정시키고싶었다. 그런데 중대부에는 통제원치녀만 있었다. 지휘성원들은 죄다 30여리 상거한 골재장에 갔다고 했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언제콩크리트타입경기에 쓸 자갈이 팔려 그 운반에 나섰다는것이다. 기남은 되돌아서 설계실로 향했다. 그때 누군가 눈보라속을 헤치며 마주왔다. 기남이네 소대 부소대장이었다. 늘 락천적인 그의 기분이 밝지 못했다.

《무슨 일이요?》

《소대장동무, 마침이군요. 소대가 콩크리트타입을 중지할 형편이 됐소. 20미터자갈이 거의 동강나고있소. 25미터가 잔뜩 있는데 그걸 쓰면 어떨가고 중대부와 의논할려구…》

《의논이라니? 25미터도 쓰게 되지 않았소.》

《작업지령서에는 20미터면 더 좋다고 밝혔소.》

《음, 그래서 중대부성원들이 골재장에 갔구만. 조금 기다리요.》

《시간이 지체되면 3소대한테 우승자리를 떼우게 되요. 그 친구들은 간밤에 감쪽같이 20미터를 수태 장만했더군요.》

《그-래?》

무슨 일에서나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기남은 이번 경기에서도 본때를 보이고싶었다. 더우기 이번 경기는 김영준중대장의 녀를 이어 새로운 시공법인, 겨울조건에서도 콩크리트타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되어 벌리는 매우 의의깊은 경기였다. 기남은 언지시 3소대작업장을 건너다보았다. 둔중한 혼합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타입장은 모래와 자갈을 굽는 물김이 자욱히 서려있었다. 결국한 진회색타입물이 쇠바가지에 차기 바쁘게 기중기가 물고 긴 팔로 허공을 썰며 언제를 향해 달렸다. 모두들 불덩이를 안고 뛰고 달리는듯 기세가 충천했다. 기남은 소대명예를 놓고 어물거릴새 없었다.

《중대부에서 인츰 실어올테니까 그사이엔 25미터를 쓰시오. 설계에도 허용했으니까… 대신 혼합작업을 책임적으로 잘해야겠소. 조금이라도 생자갈이 섞이면 안되겠소. 그리고 부소대장, 내 지금 설계실에 가 급히 짜임할 일이 생겨 그러니 소대일이 튀지 않게 해주오. 믿겠소.》

기남은 그렇게 강조했지만 속은 개운치 않았

다. 몇걸음 내딛던 그는 그 시원치 못한 생각에 쫓겨 되돌아섰다. 부소대장이 웬일인가싶어 방울눈을 두부럭거렸다. 기남은 그의 어깨에 한손을 얹으며 제생각을 비쳤다.

《만약 우리 소대가 우승하게 되면 말ियो. 질 문제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듣지 않을까?》

《글쎄…》

부소대장이 얼뼉한 소리로 웅얼거렸다. 그 떨떨한 대답이 기남의 동요를 더 부채질하였다.

《중소. 20미터를 씹시다!》

기남은 힘주어 결심을 표하고는 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지금 소대명예가 왔다갔다하는 속에서도 생각은 설계실에 가있었다. 《수리발톱》을 목살해버리려는 설계자를 한시각이라도 빨리 만나 결판을 내고싶어 견딜수 없었다.

설계실은 나지막한 단층건물인 현장지휘부 맨 마지막방을 차지하고있었다. 기남은 문기척 소리를 투박스레 울리며 실에 들어섰다. 광실처럼 넓다란 실에는 네다리를 뻗친 제도판들이 촌촌히 세워져 설계원들의 얼굴은 죄다 그에 가리워졌었다. 바깥과는 딴 세상인듯 햇빛이 스며드는 방안은 정숙한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기남은 다소 압도되는 가슴을 짝 펴며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몰라 눈알만 데룩거렸다. 맨앞 제도판옆으로 안경을 낀 중년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굴 찾으십니까?》

기남은 큰숨을 한번 내불고 거치른 목소리로 찾아온 사연을 나직이 내뱉었다. 그 중년남자는 심상찮은 기남의 표정을 의아쩍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뒤로 돌렸다.

《현심동무, 손님이 찾아왔소.》

뒤컨 창문쪽에서 버스럭이는 기척이 들렸다. 복도처럼 길게 뻗은 가운데 통로에 한 너인이 나타났다. 작업복차림의 단정한 몸가짐, 아래로 살짝이 드리운 부드러운 눈길, 하얀 살갗…

《?!》

기남은 청청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떨어진대도 그렇게는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순식간에 온몸의 피가 흐름을 멈추고 숨이 꺾 막혔다. 기남은 너무도 낯익은 자태를 보면서도 제눈을 의심하며 아니라고 부정하고싶었다. 그 무슨 현실이 아닌 악몽속을 헤매이는것 같았다. 너인은 달가운 미소를 짓고 충충히 다가왔다.

《그사이 한번도 찾아보지 못해 안됐어요. 일에 몰려 차일피일 미루다니니… 빨래감들이랑 종종 생길텐데…》

《…》

기남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가려듣지 못하고 한자리에 못박혔다. 현심은 그제야 기남이의 기색에 주의가 미쳐 입을 다물었다. 애뜻한 눈빛으로 빛나던 눈초리가 파르르 떨었다.

아까 그 중년설계원이 다가와 현심에게 뭐라고 일러주었다. 현심의 얼굴은 피기가 싹 가셔졌다.

《기남동무, 저쪽 방으로 가자요》

기남은 낮으면서도 떨리는 현심의 말을 귀결에 들으며 그를 따라섰다. 설계면담실인 옆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심은 결상에 기남이를 권하고는 철합에서 도면을 꺼내 탁자우에 펼치었다.

《이봐요 기남동무, 언제우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을 등고선을 따라 평면을 그으면 어차피 <수리발톱>을 통과하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조금 낮추면 언제수면과 너무 가깝고 또 조금 높이면 길이 급경사를 이루게 돼요.》

《그게 무슨 대수겠소. 다니는 길이야 좀 힘든 걸 뭐라니까.》

《아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돼요. 후날 사람들이 우릴 두고 뭐라했어요. 언제는 잘해놓고도 길은 망탕 뿔었다고...》

《그게 그렇게 겁남니까?》

현심은 조용히 웃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래요, 겁나요.)하고 말하는듯싶었다. 기남은 어떤 배신감이 옥 치받쳤다. 남편의 고귀한 넋을 심장에 품고사는 인품높은 녀성인줄 알았던 그 모든 믿음이 줄지에 무너져내렸다. 마치도 금빛 허울로 감싼 속물을 보는듯 허무감과 쓰거운 환멸에 속이 떨렸다.

《참으로 섭섭한데요. 아무리 모질기로서니... 어떻게 소나무를 없앨수 있단 말ियो.》

기남은 성급하고 나직이 말했지만 내심의 거친 흥분이 불길처럼 뿔어나왔다.

《어찌했어요... 그렇게밖에 할수 없더군요.》

현심은 호 하고 긴숨을 내그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 싸늘한 숨결과 고집스레 다물린 입매는 도면에 대한 속죄는커녕 오히려 조금치도 흔들릴수 없는 《응당한것》 일뿐만아니라 그 어떤 오해나 질시를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기색이었다.

무서운 반발로 태질하고있던 기남의 가슴과 등골로는 차디찬 얼음덩이가 굴러내렸다. 그 선풍함에 소스라치듯 기남의 한손은 저도 모르게 탁자굽도리를 콕 움켜잡았다. 탁자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기남의 컴컴한 눈빛은 마치도 몸에 피도 온기도 없는 화석같은 인간을 보는듯 절규로 타끓었다. 현심은 몸서리치는 그 눈빛과 무자비한 손거동에서 탁자만이 아닌 자기 존재도 여지없이 비틀리우는듯 한 모멸감을 느끼자 급기야 눈동자가 굳어지고 살빛이 해쓱하니 질렸다. 현심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두손으로 틀어막으며 핵 얼굴을 돌렸다. 가슴벽을 쇠갈구리로 박박 긁어내는 아픔에 입술을 짹 깨물었다.

비분에 몸이 달대로 달은 기남은 탁자우의 주전자를 쳐들어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

리고는 출입문을 향해 걸음을 질었다. 현심은 힘없는 목소리로 그를 멈춰세웠다.

《그래요. 저도 용서받지 못할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남동무, 내가 어찌 그 소나무를 한순간 인들 잊을수 있겠어요. 소나무는 그이이자 그의 님이고 저의 돌도없는 사랑이었어요. 장차 아들이가 크면 소나무앞에 세워 아버지의 푸른 기상을 보여주고싶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살리려고 그 몇번이나 다르게 설계해왔어요...》

현심은 잠시 고르롭지 못한 숨결을 내쉬었다. 가슴을 움켜쥐고 창가로 돌아서는 그의 걸음은 몹시 비청거렸다. 피기없는 얼굴에는 무서운 고통에 찢기는 서러운 눈물이 점점이 떨어졌다. 현심은 입술을 적시는 그 피물같은 눈물을 짓씹으며 떠듬떠듬 이어갔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속에는 그이가 찾아와...날 꾸짖는것만 같았어요. ...언제를 위해 한 목숨 바친 그이가 말예요. ...그래요.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최상의 언제를 바랐던 그이가... 그 소나무산정이, 그자리에 번듯한 언제길이 나졌다면 과연 자기가 한낱 쓸모없는 빈자리를 지켰다고 하겠어요? 안예요, 절대로!...》

현심은 도리머리를 세차게 떨었다. 그러더니 뿔어오르는 설분과 복받치는 오열을 막을수 없어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기남은 가슴을 치는 벽찬 충격에 머리가 핑 내돌렸다. 여태 부글거리던 울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일찍 체험해보지 못한 숭고한 느낌에 어리둥절해졌다. 뭔가 심오한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충돌하면서 혼동상태를 이루었다. 점차 너인의 결국한 지조가 안겨왔다. 분명 너인은 자신의 슬픔도 사랑도 추억도 그모든 소중한것들을 안고 살면서도 남편의 뜻을 따라 태일에만 달음치고있지 않는가! 기남은 한순간 무거운 가책에 뜨거운 피가 관자노리에서 툭툭 튀는것을 느꼈다. 그는 저려드는 눈길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리발톱》 으로 현심이가 오르 고있었다. 어느새 퍼그나 수그러든 눈보라는 간간이 갈개치며 산형을 휩쓸었다. 한무더기의 눈가루가 물매급한 경사턱을 오르는 현심의 잔등을 떠박지르면서 부서져날렸다. 현심은 잠시도 쉬지 않고 툭었다. 필경 너인은 마음속 피로움을 달랠길 없어 산정을 찾는듯싶었다. 기남은 심장이 쏘는듯 아팠다. 그는 더는 바라볼수 없어 뒤따라나섰다.

시간이 얼마큼 지나 기남은 소나무를 한손으로 질고 말없이 서있는 현심의 뒤로 다가섰다. 소나무와 하많은 말을 나누는듯 현심은 까딱않고있었다. 무슨 말을 할가? 아니면 남편의 넋을 호호하는것일까?... 기남은 목이 잠긴 소리로 뇌이었다.

《아주머니... 내가 너무 지나쳤군요.》

현심은 몸을 뒤로 돌렸다. 그의 초연한 눈빛에는 못잊어하는 추억의 그늘이 비쳤었다. 불길처럼 가버린 사람, 다시는 볼수 없는 남편에 대한 애절함이 어린듯한 그 눈빛은 이내 사려깊게 평온하고 밝아졌다.

《아니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애 아버지가 동지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것을 다시금 봤어요... 기남동무, 여기 좀 앉아요.》

현심은 무릎을 꿇고 먼저 소나무아래 앉았다. 기남이가 곁에 자리를 잡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번은 말예요. 이 소나무를 애들 길을 뽑아보려고 밤늦도록 설계판을 붙잡고있었어요. 길은 자꾸만 멀어지고 형편없이 우물구불해지더군요. 사실 난 이 소나무를 없앨가봐 얼마나 망설이고 겁냈었어요. 그런데 내가 겁내면 겁낼수록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야 할 언제는 안에서 점점 사라지잖겠어요. 그래요, 난 그이가 녀원했던 언제에서 물러나고있었어요. 바로 그이가 지켜섰던 이 자리에서 도망치더라란 말이에요!...》

《?!...》

기남의 가슴에는 세찬 격동이 확 물켜들었다. 심장은 터질듯 박동이 격렬해졌다. 남편이 섰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사는 녀인의 고결한 모습은 진정 영웅의 녀으로 숨쉬는 산정의 푸르른 소나무였고 그의 삶은 그대로 이 땅에 솟아오르는 거창한 시대의 기념비처럼 우뚝이 안겨왔다. 불현듯 기남은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환희의 웨침과도 같은 충동에 휩싸였다. 산정의 소나무는 결코 꺾을수도 없앨수도 없는 생명체였다. 그것은 녀인의 생활과 녀속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래일에도 영원히 푸르게 솟아 세찬 박동으로 숨쉴것이다!... 그리고 여태 소나무를

부둥켜안고있는것으로 영웅의 녀과 동지의 의리를 지키는줄 여겼던 그 어리석은 믿음에 대한 쓰디쓴 회오와 함께 온몸이 수치심에 화끈 달아올랐다. 좁전에 있었던 언제콩크리트타입경기일들이 가슴을 찢러서였다. 돌이켜보면 자기가 20미리자갈을 주장한것은 언제가 걱정되어서가 아니었다. 소대가 불미스러운 명예를 지닐가봐 겁냈던것이다. 얼마나 큰일을 저지른번했는가. 그는 한갓 《우승》이라는 영예도 위훈도 영웅중대장의 삶과 이어져야 한다는것을 비로소 알수 있었다.

《뭘 생각해요?》

《난 지금껏 중대장동질 잊고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소나무를 꺾어버리고있는줄 몰랐단 말입니다.》

《아이참, 무슨 말을 그렇게... 기남동무, 저언제를 좀 보세요.》

현심은 기남이를 가볍게 나무리더니 기분을 돌려 그윽한 눈빛으로 장엄히 일어서는 언제를 가리켰다. 언제 안벽웃면에는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자!》 라는 대문짝같은 흰 글발이 쪽 가로새겨졌었다. 현심은 그 글발에 생각깊은 시선을 멈추고 뒤를 이었다.

《이제 언제에 푸른 물이 출렁일 때면 저 글발도 보이지 않을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훈들이 묻히겠어요. 그렇다고 조국이 잊을까요?...》

기남은 흥파이 빠근해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젖어드는 눈길로 새삼스레 드넓은 언제바닥을 굽어보았다.

콩크리트혼합기들이 기운차게 돌아가는 언제바닥에서는 화물차들이 물길굴에서 나온 버력들을 싣고 드바빠 달렸다. 양지바른 등성이마다 즐비하게 늘어선 여러 건설지휘부건물들과 아담한 숙소들...

기남은 지나온 투쟁과 생활의 자취들도 더듬어졌다.

천년세월 잠든 계곡을 깨우던 첫 발파의 장쾌한 울림이며 밥먹는 시간마저 아까와 선자리에서 씹으면서도 얼음물속에 뛰어들어 일판을 벌리던 간고한 나날들과 별무리 흐르는 밤이면 우등불가에서 기타반주에 맞추어 심장의 노래를 부르던 잊지 못할 화폭들이며... 그 모든 생활의 흔적들은 미구에 언제의 호수속에 잠길것이다.

빛나는 위훈과 수많은 투쟁의 자취들을 포근히 감싸안고 굶니며 흥떡일 대호수의 물빛!... 그것은 도시와 마을들을 불야경으로, 공장과 탄광들의 거센 숨결로, 휴양지와 수백만 가정들의 행복의 불빛으로 될것이었다.

잠시 잠자코있던 현심은 자리를 일었다. 녀인은 머리를 쳐들어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름할수 없는 정겨운것이 가득차있었다. 현심은 그 푸른 잎새 하나하나를 눈속에 새겨넣으려는듯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다 속삭이듯 말했다.

《기남동무, 난 빨리 가봐야겠어요. 도로측량공들이 기다리고있을거예요.》

현심은 정다운 미소를 남기고 바빠 산정을 내렸다. 기남은 어인일인지 울컥 목이 메어 아무 말도 না가지 않았다.

녀인이 걸어가는 언덕에는 눈부신 흰눈이 반짝이고 멀리 산경사면에서는 대형불도젤들이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언땅을 파헤쳤다. 길을 내고있었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동구호에서-

실화문학

바쁜 사람

리준길

오랜 세월 못사람들한테서 거의나 알려져 있지 않던 창주땅이 요즘에 와서 갑자기 유명해졌다. 학생이 불과 21명밖에 되지 않는 여기 벽동군 송련중학교 창주분교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자랑스러운 교원, 선군시대의 숨은 영웅이 새로이 태어난것이다.

내가 소문을 듣고 달려간것은 지난해 마가을, 김경수교원이 평양에서 열린 선군시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대회에 이어 전국교육일군대회에 참가하고 돌아간지 얼마 안되어서였다,

나로서는 험치 않은 취재길이였다. 렬차로 수종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렬객선을 갈아타고 벽동으로, 그다음 창주까지는 자동차로, 도보로, 나중엔 쪽배로...

그런데 그보다 실상 더 어려운것은 주인공들을 만나 취재하는 일이었다. 오전에는 시간표대로 맞물려 이어지는 수업, 오후에도 두어시간씩은 피외활동으로 지나갔다.

그다음엔 시간을 좀 내주었으면 했건만 일은 내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았다. 어쩌다 나와 마주앉았다가도 그는 불과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나에게 량해를 구하곤 했다. 급한 일이 생겨 그러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이 잠간이지 그렇게 나가서는 해를 지우기가 일쑤였다. 교재립에 나무도 더 심고 피외학습터의 공식관들도 새것으로 더 보충했다. 어찌 그뿐이라,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 개별교양, 교재연구, 교편물만들기... 그는 잠시도 쉴새없이 돌아갔다. 정말 바쁜 사람이였다.

그동안 일이 밀려그러는가보다 생각하고 나는 이틀사흘을 기다렸다가 만날 작정을 했다.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실책이였다. 김경수교원이 회의차로 갑자기 도에 올라가게 되는 바람에 그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였다.

부득이 나는 그의 안해 김정옥교원한테 매달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세대주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보다도 사실은 안해의 수고가 더 많았다고 하던데...》

나의 말에 김정옥은 당치않다는듯 고개를 저

었다.

《아닙니다. 얼마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원래 속통이 좁다나니...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대주한테 마음고생을 시킨적도 여러번이나 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두 세대주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기로 진출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의아해하자 그는 수줍은 웃음을 지었다.

《제가 겸손의 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진 세계가 다른 탓이였다고 할지... 함께 거기로 진출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둘의 정신세계는 스무해전 그때부터 같지 않았답니다.》

녀교원은 생각깊은 얼굴로 초롱초롱 말했다.

1

그것은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가 있는 직후 여름 어느날이였다.

그날 저녁 남편은 텔레비죤극도 보지 않고 벽에 기대앉은채 이윽도록 뭔가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무슨 근심거리라도 생겼는가 몰었더니 《근심은 무슨...》 하면서 머리를 찌는것이였으나 아무리 보아도 그의 얼굴빛이 여느때와는 달랐다.

《원참, 자긴 직통배기라더니 당신답지 않게 뭘 그러세요? 어시 말씀해요.》

정옥기 재차 물어서야 김경수는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더니 《정옥선생!》하고 사뭇 은근한 어조로 말을 하는것이였다.

정옥은 속으로 흠칫했다. 단들이 있을 때 남편은 웬간해서는 그렇게 부르는 법을 몰랐다. 그것은 혁명동지로서 안해에게 비판할게 있거나 교육사업을 놓고 무슨 신중한 론의를 할 때 간혹 쓰이곤 하는 부름이였다.

그런데 남편의 첫 말은 그가 예상했던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났다.

《내 깊이 생각해보구서 하는 말인데... 우리 같이 분교로 진출해가서 일해보지 않겠소?》

남편은 이 말을 범상한 어조로 했지만 정옥

은 대뜸 속이 덜컥했다.

《분교루요?…》

《그렇소. 송련중학교 창주분교로 말ियो.》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정옥은 가슴이 떨려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창주분교라면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제인가 남편한테서 이야기를 들어 그도 대략 알고는 있었다. 교동이 불리한 벽동군안에서도 제일 궁벽하고 외진 교장으로 알려져있는 창주땅, 그래 그곳 여라문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분교가 세워졌다. 하지만 생겨난지 여섯해가 넘도록 거기에는 아직 정해진 교원이 없다고 한다. 그 외진데로 선뜻 가겠다고 나서는 교원이 없어 부득이 그곳 분교의 수업은 송련중학교의 처녀교원들로 둘씩 짝을 무어 한두달씩 교대로 내보내어 보장하고있다고 한다. 정옥은 벌써 두해전에 그것을 남편에게서 들어 알고있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던 어느날 남편이 걱정스런 어조로 그 말을 했던것이다. 그러고보면 남편은 그때 벌써 그리로 진출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왜? 겁이 나오?》

남편이 물었으나 그는 입술만 잘근잘근 씹었다. 그러다가 남편의 결심이 더 굳어지기 전에 허물어버려야지 이리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생각으로 분연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교육사업을 하면 땀지 거긴 왜 가자구 그래요? 난 싫어요.》

그러자 남편은 입을 꼭 다문채 사뭇 피로운 시선으로 이쪽을 본다.

《싫다는 이유는 뭐요?》

《그걸 뭐 몰라서 물어요? 난 그런 외진데 가선 살고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 한몸만 생각해서 그러는구만. 거기 아이들 생각두 좀 해야지. 그 애들한테는 <우리 선생님> 이라고 부를 정해진 담임선생님 두 없겠으니… 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알찌근해서 도무지… 두달짜리 립시담임선생이 그 애들한테 정을 주면 얼마나 주겠소. 아무래두 그애들한테 고정된 담임선생이 있어야겠기에… 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살뜰한 담임선생이 돼줄수 없을가 해서 그러는거요.》

그 말에 정옥은 가슴이 저릿했다. 그 역시 아이들에게 자꾸 동정이 갔다. 하지만 창주분교는 송련중학교에 속해있는 분교이다. 그리로 가려면 웅당 송련중학교의 교원들이 가야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정옥선생, 내 맘을 알겠지?》

《알아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거야 송련중학교가 맡아 할 일이 아닌가요. 난 지금 맡은 애들하군 못떨어지겠어요.》

《그러니 여기 애들한테 정이 들어 그렇다는 거요?》

김정수는 고개를 기웃해보이더니 말을 이었다.

《자기의 리기심을 그런 비단보자기로 감싸지 마오. 그럴내기면 남서의 애들과는 어떻게 헤어졌소? 어떻게 그 애들을 두구 여기로 시집올 수 있었는가 말ियो?》

남편이 자기의 약점을 면바로 찌르고드는 통에 정옥은 그만 말문이 막혀 더 말을 번지지 못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답답한 숨만 호-하고 내쉬었다.

《내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을 받아내자는건 아니요. 잘 생각해보오. 그런데 되도록 빨리 결심을 내려주오. 갈바하군 하루라도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새학년도 첫날부터 수업을 보장할수 있을게 아니요.》

그리고나서 남편은 제먼저 자리에 누웠다.

정옥은 오도카니 앉은채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이제보니 그것은 남편이 그저 한마디 건네본 말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속엔 벌써 결심이 굳건히 뿌리박힌것 같았다. 그러니 이걸 어찌면 종단 말인가?

5 분도 안되어 남편은 코를 드렁드렁 골기 시작했다. 어찌면… 그런 무서운 말을 해놓고 어찌면 저렇게 태평스레 코를 골수 있담.

김정옥은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니 간밤의 일이 꿈속에서 있던 일처럼 느껴졌다. 정말이지 그것이 꿈속에서 있던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남편의 결심이 더 굳건해지기 전에… 그것을 조직적으로 제기하기 전에 어서 빨리 남편의 마음을 돌려세워알텐데 그 수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학교에 출근해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새학년도 교수준비를 할 작정으로 책상에 마주 앉았으나 글줄이 통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별안간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교장선생을 통하면 될수 있을것만 같았다. 여태껏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달음으로 교장선생을 찾아갔다.

교장 고득규는 원래 그가 처녀시절에 일하던 남서중학교에서 소년단지도원으로 있던 사람이였다. 세해전에 이곳 교장으로 소환되어왔는데 헤여지던 날 그는 정옥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옥선생, 이거 섭섭하게 뻘구만. 정옥선생

과 같은 능력있는 교원이 두세명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는 말만 그렇게 한것이 아니었다. 여기로 오자부터 제눈에 드는 총각교원 김경수를 어떻게 들쭉서놓았는지 드문히 편지를 보내오다못해 나중엔 직접 찾아오게까지 했다. 교장도 두번이나 그를 찾아와 김경수를 대단한 교원이라고 높이 추어올리면서 추기였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교장 고득규에 의해 맺어진 셈이었다.

그랬기때문에 결혼식날에 그는 자기가 마전에 온 이래 교장으로서의 첫 성과는 남서에서 한다하는 교원 김정옥을 데려온거라고 하면서 여간만 흠족해하지 않았다. 그러한 교장이고 보면 자기네 부부가 창주분교로 가겠다는것을 달가와할리 없을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고득규는 정옥의 말을 듣더니 펄쩍 뛰었다.

《그사람 머리가 돌지 않았소? 거야 송련중학교가 말아할 일이지 무엇때문에 선생들이 거기 나간단 말이요? 능력있는 교원 하나 데려왔다 했더니 이젠 한꺼번에 돌썩이나 잃어버릴 판이구만. 그건 절대로 안되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세대주를 잘 주물러놓을테니 걱정말라고 했다.

했건만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니 주물러지기는 커녕 그 결심이 더욱 굳어진듯싶었다.

《당신 교장선생한테 무슨 말 했소?》

하고 남편이 준절한 어조로 따져물을 때 정옥은 죄의식으로 하여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순간에 자기의 몸이 한줌만 하게 줄어드는것만 같았다.

《당신을 다시 보게 되는구만. 난 당신이 처녀 시절 남서에 있을 때 학생들을 제 친동생들처럼 사랑하구 교육사업을 아주 잘한다구 하기에... 그래서 마음이 끌렸던건데... 내가 잘못 봤는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정옥은 남편한테서 그때처럼 오랜 시간, 그때처럼 준절한 타이름을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무슨 말인들 안했으랴. 그가운데서도 제일 그의 가슴을 찢릿이 울려 준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의 한구절을 되새겨주며 남편이 침통한 어조로 하던 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한말씀에서 우리 교원들을 직업적혁명가로 불러주셨소. 그런데 그런 값높은 칭호로 불리울만큼 우리가 준비돼있소? 아니요. 후대들을 키우는 일보다 제한몸을 앞세워 생각할 때가 많았던 말이요. 무슨 일에서나 타산을 앞세우고, 일의 경중을 가리고...

이래가지고야 그게 무슨 직업적혁명가겠소?

그래 이제부터라도 일을 좀 잘해볼 결심으로 당신한테 그 말을 꺼냈던건데... 함께 손잡아서 그곳 아이들을 도시아이들 못지 않게 잘 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런데 내 맘을 너무나 몰라주는구만.》

남편의 어조는 침통하기까지 했다.

정옥의 눈에도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 어리었다.

《용서하세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의 빛이 번뜩이였다.

《고맙소!》

김경수는 뜨겁게 안해의 손을 부여잡았다.

둘의 제기는 군당에까지 반영되였다.

마침내 그들은 교장을 포함한 온 학교 교원, 학생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창주분교로 떠났다.

2

그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 일요일이였다.

김정옥은 본교의 파수원으로 정한 교사옷권의 등성이밭에서 땀을 철철 흘리며 일하고있었다. 오전에 파놓은 나무구멍이들에 부식토를 날라다 넣는 일이었다. 해떨어지기 전에 끝내려고 쫓싸게 다그쳤더니 이젠 여라문구멍이밖에 남지 않았다. 그담엔 파수나무모를 놓고 묻어주기만 하면 일은 다 되는것이다.

그런데 파수나무모를 가지러 리소재지마을에 간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있다. 어찌된 일인가? 일이 제대로 안되어 그러는게 아닐까?

그는 벌써 세번째로 허리를 펴고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서쪽으로 쭉 기울어진 저녁해빛이 수면우에서 눈부시게 번쩍인다. 갈매기들이 너울거리며 날아간다. 그 기슭에 그림처럼 펼쳐진 창주마을...

처음 이사해왔을 때는 얼마나 마음불지 않고 서먹서먹하기만 한 고장이였던가. 그때는 이 고장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고독한 섬마을처럼 생각되였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수풍호의 한 기슭에 호젓이 자리잡고있는 창주마을은 산간벽지로 알려진 벽동땅치고도 제일 인적 드문 외진 고장이였다. 여기서 리소재지까지만 가자고 해도 30 리. 그나마 길은 오불꼬불한 길이었다. 둘러보면 시야에 안겨드는것은 오직 물과 산뿐이였다. 앞편으로는 바다처럼 넓은 수풍호의 푸른 물, 뒤편으로는 록음 우거진 험준한 사리봉...

하지만 이제 와서는 조금도 설퐁하지 않았다.

맨먼저 학생들한테 정을 불이고나자 그담엔 얼마안되는 마을사람들과도 자연히 친척처럼 가까와졌다. 그러자 산에도 물에도 차츰차츰 정이 갔다. 정말이지 저 산과 물이 없어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랴.

물가의 봄빛서린 나무숲속에 묻힌 분교가 오늘따라 별로 애뜻한 정을 자아낸다. 궁지롭고 자랑스러웠다. 휴양각을 방불케 하는 아담하고 산뜻한 교사며 체육기재가 그득히 들어찬 널찍한 운동장, 재미있게 꾸러진 교재원과 야외학습터... 그것들을 마련하느라 오늘까지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내왔던가.

그런데 남편은 그 좁한것으로는 성차지 않는 모양이었다. 파수원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문히 하곤하더니 며칠전에 갑자기 이 부업발을 분교의 파수원으로 꾸리자고 하는것이였다.

정옥은 기가 막혔다. 어떻게 힘들여 일군거라고 그것을 파수원으로 한단 말인가?

그러나 남편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교생스럽더라도 부업발을 다른데다 일구기로 하고 이 발은 분교의 파수원으로 들여놓자면서 한결음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정옥은 남편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남편은 말했다.

《여보, 이 교장엔 파일이 없어 내 속상해서 그러질 않소. 내 그래서 그러는데 여보, 한번 크게 마음써주오. 응?》

이 말에 그만 정옥의 마음도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아이들을 위하는 그 뜨거운 지성에 그도 감동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파수원이였다. 이젠 나무모만 심으면 된다. 그런데 남편은 어째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것일까?...

기다리던 남편은 해질녘에야 집으로 들어섰다. 크게 묶은 파수나무모를 두묶음이나 쪽배에 싣고온 그는 온몸이 땀에 떠가지고도 지친 기색이란 조금도 찾아볼수 없이 싱글벙글했다.

웬걸 이렇게 많이 구해왔는가고 묻자 그는 말했다.

《이번에 리당비서동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소.》

《리당비서동지가요?》

《그렇소.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파수작업반에다 말해뒀더구만. 오는 길에 사람을 붙여서 강기슭까지 운반해주구 쪽배에 실어주구 하는 통에 그만하면 험하게 왔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벌써 소문이 난바에는 파수원을 아주 멋지게 꾸려보자고 했다.

《그러자요. 이걸 오늘중으로 다 심자요.》

정옥은 제먼저 파수나무모를 한단 지고 일어났다.

인차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깃을 드리웠다.

그러나 그들은 달빛을 동무삼아 하던 일을 다 하고서야 손을 털고 집으로 내려왔다.

느즈막이 저녁을 지어 먹고나니 벌써 10시가 가까와 오고있었다. 온몸이 노그라쳐왔다.

그런데도 김경수는 책상앞에 마주앉아 책을 펴들었다.

정옥은 얼른 그의 곁으로 다가가 책을 빼앗으려들었다.

《오늘은 그만두세요. 먼길을 다녀와 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보던 책을 손으로 꼭 누른채 놓아주지 않았다. 한시간쯤만 공부를 하고 자겠다는것이였다.

《아니, 힘들지두 않아요?》

《힘이야 들지. 그렇지만 공부야 해야지 어찌겠소. 한자를 가르치자면 천자를 알아야 하는것이 우리 교원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원들이 백과사전이 돼야 되는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 그렇게 준비돼있소?... 먼저 자오. 온종일 나무구멍이를 파느라 당신은 더 힘들텐데...》

그러나 정옥은 잠자리에 들수 없었다. 세대주에 비하면 자신은 아는것이 더 적다고 할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누울 생각만 하다니?...

그도 살머시 방바닥에 내려앉아 《학생과학문고》를 펼쳐들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과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버린 그들은 이제 저들의 앞에 어떤 가혹한 시련이 다닥치게 되겠는지 꿈에도 알수 없었다.

3

그해 따라 끔찍이도 많은 비가 내렸다. 밤낮없이 퍼붓는 폭우에 수풍호의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높아갔다. 이렇게 물이 많이 나보기는 창주땅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면서 사람들은 누구나없이 모두 불안해했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불안하기는 창주분교의 주인들이였다. 야외학습터가 먼저 물에 잠기더니 잇달아 교재원과 운동장까지 물바다가 되버리고말았다. 교사가 위태롭구나 하는 생각에 그들부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폭우는 줄곧 사흘을 퍼붓고서야 멎더니 마침내 하늘이 열리였다. 이젠 댕구나! 그날 밤에야 그들은 시름을 놓고 발편잠을 잘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놓기엔 일렀다. 이튿날

날이 밝은 뒤 밖으로 나가본 그들은 눈을 흠뜨며 놀랐다. 물이 찌면서 드러난 기슭이 말할 수 없이 처참했던것이다. 몰살에 흠이 패워버린 탓으로 야외학습터와 교재원은 거의나 흔적조차 찾을길 없고 운동장과 파수원마저 절반나마 무너져내리었다. 넘어져 나뉘고는 체육기자재들, 뿌리채 뽑히워 떠내려가다 남은나무들...

이 놀라운 살풍경앞에서 정옥은 너무나도 억이 막혀 가슴을 쳤다. 웬간해서는 눈물을 모르던 남편도 이때만은 몹시 상심해하는 표정이었다.

언덕아래편에서 아이들의 말소리가 났다. 분교가 이렇게 된줄도 모르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이 팔굽을 툭툭 건드렸다.

《학생들이 오는구만. 얼른 눈물을 닦소.》

그러나 정옥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학생들이 보겠소. 응? 우리야 교원들이 아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걸 보면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겠소? 그걸 생각해야지 응? 자, 어서!!》

그 말에야 정옥은 강인히 눈물을 씹어삼키었다. 남편의 말이 옳다. 학생들에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러니 교원은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마음껏 울수도 없단 말인가?

그들은 애써 태연한 자세로 학생들을 맞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그러는 그들에게 김정수는 말했다.

《학생들, 자연시간에 배웠지요? 강물이 흐르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었지요?》

아이들은 대답했다.

전기도 일구고 때목도 나르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강물은 좋은데도 많이 쓰이지만 때로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나쁜 일도 적지 않게 합니다. 보십시오. 이번 무더기비에 불어난 강물이 우리 분교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학생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교원이 묻는 뜻을 알아차리고 어른스럽게들 대답했다. 강물의 피해를 가셔야 한다고, 그러자면 흙을 날라다 패운 자리를 메워서 운동장도 다시 닦고 나무들도 다시 심어야 한다고...

《잘 대답했습니다. 우린 강물의 피해를 가지고 우리 학교를 원래대로 꼭 되살려야 합니다.》

김정수는 혼연스러운 표정으로 학생들을 교실로 들여보냈다.

그리고는 안해에게 어서 수업준비를 갖추라

고 했다.

정옥은 입이 딱 벌어졌다. 이런판에 수업은 무슨 수업이란 말인가. 더구나 그들은 아직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오늘두 수업을 해야겠어요?》

마뜩지 않은 투로 정옥이 한마디 하자 김정수는 그에게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었다.

《무슨 소릴 하오? 재난을 당했어두 수업이야 해야지. 학생들을 가르치는거야 우리 교원들의 본분이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제시간에 울려야 하오.》

정옥은 한숨만 호-하고 내쉬었다. 남편의 말이 다 옳은데야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그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의 뒤를 따라나섰다. 그와 함께 한동안 주변을 정리하고는 시간이 되자 제때에 종을 울리었다.

그리하여 이날에도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랬지만 이날 마을에는 뜻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창주분교가 이제 없어지게 될거라는 것이었다. 몇몇 마을사람들이 지나다가 분교의 한심한 상태를 보고 제집작대로 말을 내돌린 모양이었다. 하긴 분교의 피해상황을 제논으로 직접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없이 그렇게 말할만도 했다.

점심식사 뒤끝에 정옥은 괜히 그 말을 남편에게 한마디 비쳤다가 된욕을 보았다. 누가 그런 되지도 않은 소리를 망탕 하는가?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있었는가?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는건가?...

이튿날 오후였다. 뜻밖에도 리당비서가 쪽배를 타고 그들을 찾아왔다.

말없이 한동안 분교주변을 돌아보고난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과 마주앉았다.

《선생들 생각은 어떻소? 마을사람들 말마따나 아무래두 분교를 원상대로 복구하긴 틀린게 아니요?》

그러니 그도 떠도는 소문을 벌써 다 들은 모양이었다.

김정수는 무슨 말이나는듯 턱을 건듯 쳐들었다.

《틀리다니요? 복구해야 합니다.》

리당비서는 고개를 기웃했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해서 그러는거요. 토량만 해두 엄청나겠는데...》

《그래두 할거야 해야지 어찌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꼭 분교를 복구하겠습니다.》

《복구하겠다? 그런데 그게 견뎌내겠소? 이다음 큰비가 내리면 또 다 씻겨내려서 저쪽이 될

텐데...》

리당비서가 걱정스레 뇌이는 말에 김경수는 자기도 그것때문에 어제부터 속을 태웠는데 방도를 찾았노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리 물이 범람해도 흙이 씻겨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교사는 물론 파수원과 교재원, 운동장과 야외학습터... 그 모든것들을 물살로부터 끄떡없이 막아낼수 있도록 든든히 《돌성》을 쌓으면 될거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듣는 당비서의 눈에는 돌연히 눈물이 어리었다.

《고맙소. 난 선생들이 맥을 놓구 앉아 눈물을 흘리구있으면 어찌나 해서 내려왔는데 아니구만. 선생들의 역센 모습을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소. 정말 고맙소.》

떠나면서 그는 부부교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분교를 원상대로 꼭 복구하자고, 이제 마을에서도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겠다고...

그랬지만 김경수는 안해에게 될수록이면 자기들의 힘으로 일을 해내자고 했다. 마을사람들한테는 농사를 잘 지어야 할 더 중요하고 절실한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가고 하면서 농사문제 때문에 당에서 근심이 여간 크지 않은데 그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정옥은 남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들은 《돌성》을 쌓는 일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하군 했다.

든든히 각오는 하고 나섰지만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힘겨웠다. 500 메터도 넘는 돌박산에서 바위돌들을 굴러내려다 쪽배에 실는 일도 빠근했지만 그것을 싣고와서 부리우고 돌담 쌓을 자리까지 끌어올려다 석축을 하는 일은 이루 말할수 없이 더 고되었다.

힘한 바위돌을 다루다나니 매일같이 낡은 옷을 뜯어 장갑을 만들어야 했다. 집고 또 기워도 장갑은 인차 판이 나군 했다.

《돌성》을 쌓아나가는 한편으로 그들은 물살에 씻겨내려 불꿀없이 된 교재원과 운동장, 야외학습터에 강바닥의 흙을 파올려다 퍼는 일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여러날이 지나서야 그들이 벌써 일을 벌려놓은 것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이 때없이 찾아와 일손을 도왔다.

《돌성》은 한치 또 한치 간고하게 전진해갔고 분교는 차츰차츰 면모가 잡혀졌다.

그 나날 정옥은 연약했던 자기가 어떻게 그런 힘에 겨운 일을 끝까지 해낼수 있었던지 스스로도 놀라왔다. 손은 농장원들의 손보다 훨씬

더 투박했고 어깨에는 덩이 들다못해 두렵게 굳은 살이 박히었다. 어찌나 지쳤던지 그는 부뚜막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그 짧은 사이에도 끄덕끄덕 졸군 했다. 그러다 밥을 태운적도 많았다.

그렇게 간고분투하여 그들은 《돌성》만 해도 500 여메터나 쌓았다.

4

몇해전 어느 여름날이었다.

김정옥은 프락의 살구나무그늘에 앉아 이윽도록 물가를 지켜보고있었다. 오늘쫘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겠나 해서였다.

남편이 견학차로 평양에 올라간것이 오늘까지 벌써 닷새째였다. 떠나면서 남편은 오래 떨어져있게 되거나 하는것처럼 첫째, 둘째 하면서 술한 일감을 그의 어깨에 지워놓았다. 교재연구를 해야 할 제목들을 짚어주고 새로 만들어야 할 교편물명세를 적어주었는가 하면 실력이 높지 못한 이러이러한 학생들은 하루 한두시간씩 개별지도를 해라, 품행이 바르지 못한 아무아무학생들은 꼭 가정방문을 해보라... 이런 과업까지 세세히 주고 갔다.

그 모든 일감을 다 치우느라고 그는 방학기간이지만 어느 하루도 편히 쉬여보지 못했다.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남편은 일욕심이 높아도 지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좀 쉬엄쉬엄 해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의 시선은 분교로 돌아갔다. 산뜻한 교실도 마음에 들고 체육기재가 그득히 들어찬 운동장과 갖가지 수목이 울창한 교재원, 탐스런 열매들이 주렁진 파수원, 정가롭게 꾸러진 과외학습터 그리고 그것들을 강물의 침습으로부터 끄떡없이 막아주며 물가를 따라 성벽마냥 쭉 물러선 든든한 돌담... 그 모든것에 하나같이 정이 갔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였던가, 얼마나 많은 땀을 바쳤던가.

그 결과로 이제 갓출것은 다 갖추어놓았다.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히 자랑할만 하다.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도 그만하면 이제 꽤찮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자부할만 하다.

그런데도 남편은 언제한번 자기 사업에 대해 만족을 느껴보는것 같지 않았다. 한가지 일을 마무리하기가 바쁘게 다른 새 일감을 연해연방 만들어내군 하였다. 어디 가서 무엇이든 본받을만 한 좋은것을 한가지 보기만 하면 그 즉시로 분교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하였다.

하기에 지금도 김정옥은 마음이 가볍지 않았

다. 남편이 평양전학을 하고 돌아와 또 무슨 엉뚱한 일을 벌여놓기라도 하면 어쩔담 하는 한가닥 불안때문이었다.

저녁해가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저쪽 굽인돌이에 마침내 쪽배 한척이 나타났다. 혹시나 해서 목을 빼들고 보던 김정옥은 이윽고 용수철마냥 튕겨일어났다. 쪽배에 앉은것이 틀림없는 남편이었다.

얼른 물가로 달려 내려갔다. 어떻게 벌써 알았는지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부르며 그를 앞서 달려 내려갔다.

무더위에 지쳐 그런지 남편은 그동안에 퍼그나 몸이 축간것 같았다. 그런데도 지친 기색이란 꼬물만치도 없이 싱글벙글 웃는 낯으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그가 지고온 목직한 배낭안에는 학생들을 위한 과외도서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들쳐보며 좋아라 웃고 떠들어댔다.

그날 저녁이었다. 저녁을 치르고나서 김정옥은 피곤하겠는데 일찌기 누우라고 남편에게 자리를 깔아주었다.

그런데 실것이를 다 끝내고 들어와 보니 벽에 등을 기대인채 그냥 앉아만 있다. 무슨 근심거리라도 생겼는지 퍼그나 시름겨운 기색이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옥이 물었으나 그저 고개만 저을뿐이었다.

어째 그러냐고 재차 물어서야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옥선생, 이번에 가보니... 우린 아직 멀었소.》

그리고는 다시 입을 다문다.

《멀다니요? 뭐가 멀었다는거예요?》

가까이 다가왔으며 캐물어서야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 정말 많은걸 배우고 돌아왔소. 특히 평양제 1 중학교를 돌아보면서 난 큰 충격을 받았소. 교육수준이 정말 상당하더구만. 록하기, 컴퓨터와 같은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가지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번에 정신이 번쩍 들질 않겠소. 그러니 거기서 훌륭한 인재들이 쏟아져나올거야 뻔하지 않소. 정말 본보기학교답게 잘 꾸려졌더구만. 우리두 하루빨리 그런 수준에 올라서야겠는데...》

그리고는 눈을 찡뜨리고 초조한 기색으로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것이였다.

정옥은 남편의 심정이 이해되였다. 하지만 온 나라 학교들이 어떻게 일제히 그런 수준에 올라설수가 있겠는가. 그 학교를 본보기로 하여 다음에는 도의 제 1 중학교들이, 다음에는 군의

제 1 중학교들이, 다음에는 다른 일반 중학교들이, 그다음에는 소학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분교의 교육수준까지 그만한 높이에 이르면 퍼그나 시일이 흘러야 할것이였다.

김정옥이 그렇게 말하자 김경수는 무슨 말을 하느냐는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런 때가 오기를 팔짱 찌르구 기다리는수밖에 없다는거요? 아니, 그럴수는 없소. 그래서 난 가능한것 우리 힘으로 한가지한가지 해결해나가자는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한다는거예요?》

《맘먹구 하면 하는거지 못할건 뭐요? 우선 설비가 문젠데... 좀 고생을 해서라도 해결해보자구. 약초두 많은 고장이니 우리가 부지런하면 큰 보탬이 될거요.》

정옥은 가슴이 덜컥했다. 남편이 도착하기 전부터 가슴속에 서려돌던 불안이 공연한것이 아니였음을 그는 깨달았다.

《선희 아버지, 그건 지나친 욕심이예요.》

《지나친 욕심이라니? 그게 어째서 지나친 욕심이란 말이요?》

남편은 이해할수 없다는듯 눈이 둥그래서 이쪽을 본다.

그러건말건 정옥은 맞바로 보면서 조용조용 말했다.

《그게 지나친거 아니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본교에서두 아직 그런건 차려놓지 못한 형편인데 우리같은 조그만 분교에서 그런것까지 해야 맞이예요? 우리 분교의 교육수준이 뭐 어떻다구 그래요? 그만하면 상당한 수준인데 뭘 그래요?》

정옥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45 분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도 얼마나 아글타글 애써왔는지 모른다. 술한 걸그림들과 광물표본, 동식물들의 액침표본, 박제표본... 그것들을 하나하나 마련하는데 바친 수고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지난해부터는 산간벽지에 사는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수학여행도 꼭꼭 조직해주곤 한다. 지난 봄에는 멀리 삭주까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발전소를 견학시키고 식료공장과 직물공장의 생산공정을 눈에 익혀주었다. 산촌의 자그마한 분교로서야 이만하면 상당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걸루 만족하다는거요?》

김경수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래선 안되오. 나라의 앞날은 그것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에게 달렸소. 그래서 당에서 그처럼 교육을 중시하는거란 말이요. 현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데 우리가 그썸한걸루 만족해서야 되겠소? 우에서 뭘 다 갖추어줄 때까지

기다리고있을순 없소. 그러다간 늦소. 이 창주 땅에서두 한다 하는 인재가 빨리 나와야 할게 아니겠소. 힘들더라도 또 한차례 뛰어봅시다. 해야 할 일이야 해야지 어찌겠소. 안그렇소?》

정옥은 더는 었서지 않았다. 엇설래야 엇설수가 없었다. 그런다고 물려 앓을 남편이 아닌것이였다.

그의 속을 들여다본듯 남편은 밝은 얼굴빛으로 말했다.

《힘은 들겠지만 이번 일두 되도록이면 빨리 해냅시다. 그리구 그런걸 다루는 방법두 미리미리 배우기요. 군에 올라가는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짬을 내서 컴퓨터기술두 배우구, 록화기를 통한 교수방법두 배우구...》

《합시다, 해야 할 일이야 해야지요.》

정옥은 마침내 혼연한 투로 응해나섰다.

그래서야 남편은 빙긋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이튿날부터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바쁘게 뛰었다. 매일같이 남모르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어떻게 김새를 했는지 그것이 한입건너 두입건너 소문이 나다못해 군에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이무렵 군에 국가적으로 배정된 갖가지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와닿게 되었는데 군의 일군들은 그것을 먼저 창주분교에 보내기로 하였다. 교육수준이 높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된 교원들에게 먼저 내려보내주는것이 옳겠다고 의견일치를 본것이였다.

《그것을 받아안고 우린 정말 기쁘기도 했지만 어깨가 무겁기도 했습니다. 외진 벽촌의 자그마한 분교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말고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리라고 우린 굳게굳게 다짐했답니다.》

김정옥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렇게 마련된 교육설비들도 돌아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생동한 직관교수도 참관하였다...

영웅교원과 그 안해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이뿐이라. 학생들의 생일이면 잊지 않고 집에 데려다 꼭꼭 생일상을 차려준 이야기, 굶은 날이면 학생들이 추운세라 비맞을세라 집에서 재우면서 공부시킨 이야기, 그들의 건강에까지 관심을 돌리고 몸이 약하거나 어찌다 병이 나기라도 하면 친자식처럼 제때에 치료대책을 세워주고 몸을 추세워주곤 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할수는 없다.

그러느라고 그들은 스무해 긴긴 날을 하루같이 바쁘게 뛰어왔다.

《이렇게 분교를 잘 꾸리고 교육사업이 잘 자리잡혔으니 이제부터야 좀 헐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김정옥은 무슨 소리냐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구보로만 달려온 사람이 그렇다고 걸음발을 늦출게 뭍니까. 틀림없이 더 빨리 뛰자고 할겁니다. 이제 무슨 일감을 또 만들어낼지 모르지요.》

하지만 전 두렵지 않습니다. 저두 이젠 세대주의 속을 썩이지 않을만큼은 준비되었답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저두 이제부턴 세대주와 발걸음을 잘 맞춰나갈 결심입니다.》

김정옥은 이런 말로 자기의 이야기를 마쳤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원부부인가!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다. 스무해동안 아글타글한 그들의 숨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군에 제 1 중학교가 생긴 첫해에 있는 일이였다. 그때 이곳 분교의 5 명졸업생전원이 거기로 가서 입학시험을 쳤는데 1 등부터 5 등까지는 놀랍게도 그들이 모두 차지하였다.

그 비결을 알기 위해 창주분교를 찾아가본 군의 일군들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래학년 학생들의 실력 역시 그렇게 하나같이 모두 뛰어나게 높았던것이다.

이때부터 창주분교가 외딴 소문이 났다.

하기에 지금 벽동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창주 땅을 궁벽한 고장으로 생각지 않는다. 촌티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아이들, 도시아이들 못지 않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이 땅이 어떻게 궁벽한 고장이겠는가.

지금 벽동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름없던 창주땅에서 이제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들도 많이 나오고 박사들도 많이 나오테니 두고 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후대교육에 바친 이들의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여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남편인 김정수에게는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선군시대의 숨은 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작가들에게 있어 좋은 사람을 알게 된것이상 큰 기쁨은 없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객선에 올랐다.

창주땅의 숨은 영웅이 하도 자랑스러워서인가, 거기서 태여날 앞날의 미더운 인재들을 축복해서인가, 수풍호는 출렁출렁 물결치며 설레인다. 우뚝 솟은 사리봉의 울창한 숲도 춤추듯 설레인다.

조국땅 멀리에서

염득복

어머니의 당부

내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 언제나 떠오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남들보다 꼭 앞서야 한다고
그리고 뜨겁게 하시던 그 당부

유치원의 작은 그네터에서
하늘에 날고싶던 흘러간 동요시절
그때에도 어머니 나에게 당부했지
그날 배운 셈세기는
그날로 꼭 기억해야 한다고...

소학교의 키낮은 책상앞에 앉아
우리 글을 배우던 그때에도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지
오늘 배운것은
오늘에 다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용히 레사롭게 하는 말이여도
언제나 곧바른 길로만 이끌어주던
어머니의 그 당부
공부를 해도 뛰어나라고
내 등을 떠밀어주던 어머니의 목소리여!

최우등성적을 안고온 저녁에도

어머니의 진정어린 뜨거운 당부는
내 귀전에 그대로 들려와라
자만하지 말아
세계와 어깨를 겨루어야 하기에-

먼 대륙의 낯설은 땅에서도
순간마다 이어지는 어머니의 당부
우리 장군님께서 너를 지켜보신다!-
그 당부, 그 기대안고
나는 단연 1등을 할수 있었더라
제노라고 뽑내는 세계의 수재들을
발밑에 보란듯이 누르고

안아키워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장군님 사랑에 보답하라고
더 큰 걸음으로 나를 떠밀어주는
어머니의 당부
그것은 고향의 당부였고 조국의 당부였다

조국땅 멀리에 내 있어도
내 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의 당부
오늘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당부 안고
탐구의 밤을 새워갑니다
공화국기발은 시상대에서만 오르지 않기에

조선김치

남의 나라 산해진미 그 무엇이라
조선김치와는 대비도 안돼
내 어머니 정성들여 만들어주던

시원한 김치가 왜 그리 생각나는지
아, 내 어머니곁에 있다면

이 아들을 위해
시원하고도 향기로운 김치를 담그어
내게 한그릇 떠주시려니

고추가루에 마늘양념을 한
우리 김치 조선김치
아무리 달디단 음식 있어도
물맑고 아름다운 내 나라 향취가
그대로 배여있는 이름난 김치

내 몸의 살이 되고 피가 된탕에
때없이 그리도 생각나는거나
떨어져선 못사는 조국의 향취이기에
진수성찬앞에서도 내 가슴속에
뜨겁게 안아보는 민족의 향기여!

나라마다 특산이 많고 많아도
민족마다 특식이 많다 하여도
어림도 없어
이 세상 어디 가도 조선김치 으뜸이야!

우리 장군님 그리워

낮설고 물설은
이역땅의 아침에도 저녁에도
마음은 언제나 달려가네
장군님 계시는 그리운 조국으로

이 시각도 우리 장군님
병사들을 찾아
전선길 천만리를 달리고계시리라
어느 초소 어느 병실에서
병사들이 준비한 소박한 노래 들어주시며
환하게 웃고계시리라

아니면
새로 정리한 무연한 들이 익힌
오곡이 설레는 소리 들으시고계실가
어느 공장 기대공처녀의
앞날을 축복해주고계실가

그러면 이 순간
귀전에 들려오는
우리 장군님 야전차의 동음소리
허나 깨어나보니 아니구나
여기는 내 조국에서 수만리 떨어진 곳

낮선 땅
낮선 하늘아래서
이밤 내 마음은 구름너머 대륙너머

장군님 계신 곳으로 날아가노라
달리는 야전차에서
이 한밤도 지새우실 우리 장군님
전선길 굽이굽이 그이 가는 앞길에
내 별빛 되어 밝혀드릴수만 있다면...

아,
우리 장군님 생각으로 잠 못드는 이 밤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
이역만리 나의 요람에도 비쳐와
그래서 더더욱 그리운 장군님 생각

내 공부하는 책상에도
내 잠자는 침대 머리맡에도
우리 장군님 언제나 계시기에
내 마음 조국의 품에 안겨있는듯
낮설은 땅에서도 마음은 든든하여라

지구의 한끝에 있어도
머리를 높이 쳐들고
세계를 굽어보며 살게 해준
아버이장군님 모신 궁지
이 가슴에 차오르는 그리움의 밤
우리 장군님 위하여
지혜와 정열과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갈
불타는 맹세로 깊어가는 밤이여!

자유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적해명

-장편소설 《자유》를 논함-

리정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에게 있어서 종자가 발견중의 발견으로 되어야 한다면 그에 기초하여 펼쳐지는 인간성격과 사건, 세부와 일화도 새롭고 독창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문학이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 되자면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종자에 기초하여서만이 작품의 인간성격과 사건, 세부와 일화 그리고 언어형상까지도 새롭고 독창적인것으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작품들은 작가의 창작과정과 작품의 형상체계안에서 종자가 노는 주도적역할을 실천적경험으로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자유》(김정)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에 대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인물들의 성격형상으로부터 세부형상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게 구현한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1. 발견중의 발견

자유!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우리의 항일혁명선렬들이 피어린 혈전만리를 헤쳐온것은 바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서가 아니었던가!

어느 한 시인은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겠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내 사랑도 서슴없이 바치겠노라고 노래하였다.

그렇다면 소설의 주인공- 비전향장기수 오세형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이었던가.

소설의 첫 장면을 펼쳐보자.

오세형이 갇힌 감방안에 최종호가 함께 있다. 그의 남쪽에 온 리유란 자유를 찾아왔다는것이다.

《소라껍질》과 같은 《한국》에 자유를 찾으러 왔다는 기막힌 사나이의 사연은 참으로 어이없는것이였다.

그는 정전후 맥주공장 발효직장에서 일하였다.

종호는 늘쌍 《구속》을 느끼며 살았다. 그로

하여 불만속에 살다나니 당치않은 불만도 터뜨려보고 그 일로해서 구역민청(당시)에 불려다니며 된육도 먹어보았다.

그러던 종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종호가 출근도 하지 않고 일부 불량청년들과 밀려다니며 술집출입을 하던 중 자기를 찾아온 작업반장을 만나게 된다. 종호가 반장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리는데 화가 난 반장은 그의 뺨을 후려쳤던것이다. 진정으로 참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속깊은 마음이 담긴 《매》였다.

그러나 이때 옆에 있던 한 불량청년이 반장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반장은 머리를 세게 다치였다. 당황한 종호는 반장을 병원에 업어다주는 그 후파가 두려워 도망쳐버리고만다.

이것이 종호가 남으로 나가게 된 동기이다.

《자유, 자유... 어떤것이 과연 참다운 자유일까요?》

이것이 오세형에게 묻는 종호의 물음이자 작품에서 사회앞에 제기한 기본문제이다.

그러면 종호는 남조선에 와서 참다운 자유를 찾았는가?

남쪽땅에는 사창가에 갈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즐겁지 않았다. 그것은 북에 있을 때의 그 《부자유》가 참다운 자유였다는것을 남쪽땅에 와서 체험해보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때문이다.

그러면 참다운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주인공 오세형이 북에로의 송환마당에서 외사촌동생 천삼룡과 김오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뜻이 깊다.

《<...내가 북으로 가면 북남으로 오가는 길이 내가 밟고 지나간것만큼 더 넓어지고 탄탄해질게 아니냐. 혼자서 가던 길을 둘이서 가고 둘이서 가던 길을 열이서 가고 열이서 가던 길을 백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느라면 통일외의 대로가 생길텐데 이런걸 마다해서야 안되지...>

...

그렇다. 민족의 자유는 통일이고 통일은 민족의 자유이다.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민족도 통일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수 없다. 그 자

유를 위해서라면 이 아들은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리라!》

바로 이것이 오세형이 31년간의 철창속에서 피로써 새긴 생활의 진리이며 작품의 전반에 관통되어있는 사상적알맹이 종자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세형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곧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으며 자유를 둘러싼 인간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이었다.

소설의 기본인간관계는 오세형을 축으로 하여 그의 외사촌동생 천삼룡, 대구교도소 교무과장이며 후에 대전교도소 부소장인 주인공의 소꿉친구 라진태와 그의 딸 라영, 주인공의 어머니인 천각순, 최종호, 광만적익살군인 강종팔로 이루어져있으며 또한 천삼룡을 또 하나의 축으로 《감초령감》 김오돌과 그의 안해 주장월, 미망인 송선주로 얹혀져있다.

물론 후자의 인간관계는 천삼룡이 오세형의 선에 복종되어 작품의 이야기줄거리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놓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소설을 《다성음악곡》으로 보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천삼룡, 라진태, 라영의 《3중창》에 기타의 반주가 오세형의 《선창》에 합쳐지고있음을 알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설에서는 각이한 부주제선물들이 《자유교향곡》의 주제선물에 조화를 맞추고있다. ...

이 《교향곡》의 사상정서적흐름이 다름아닌 작품의 종자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2. 새롭고 특색있는 형상

1) 한 독자와 나눈 이야기

우연하게도 필자는 이 소설을 읽고있는 한 여성독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확실히 이 소설은 인상깊은 작품들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까?》

《우선 인물들의 성격형상이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온 비전향장기수형상 소설들과 좀 다른것이 인물들을 다 아름답게 그리었다고 할지...》

우리 민족은 원래 정의감과 의협심이 강한 슬기로운 민족이 아닙니까. 남의 나라를 강탈하려는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몇몇 반역자들이 나쁜놈이지 조선사람은 원래 선량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때 반통일의 길을 가던 사람들도 종당에는 주인공과 손잡고 진정한 자유의 길-통일애국의 길에 들어서게 형상한것이 제일 마

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새롭고 세부와 언어형상도 훌륭한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남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작품은 인간생활의 정의인 자유를 형상함에 있어서 보다 생활을 폭넓은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민족적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거창한 흐름에 맞추어 민족의 참다운 자유인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선다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2) 성격과 갈등

소설은 주요인물의 성격을 형상함에 있어서 이미 나온 다른 비전향장기수형상 소설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주요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주요인물들이 처음에는 주인공과 통일에 대하여 의혹과 회의, 불신을 가지고 대하다가 마지막에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에 공감되어 투쟁의 길에 나서는 형상들이라는것이다.

주인공의 외사촌동생인 천삼룡의 형상을 보자.

천삼룡은 어릴 때부터 반공의식이 골수에 찬 청년이었다.

그가 쓴 단편소설 《거꾸로 흐르는 한강》은 서울동부지역에서 《인민군대》한테 《학살》당한 사람들의 원혼이 통분함을 금치 못해 서해로부터 한강을 거슬러 서울로 올라온다는 내용의 반공소설이다.

이 소설이 신춘문예 현상모집에 1등으로 당선되었을 때 천삼룡에게 소설작법을 가르쳐주고 반공의 씨를 뿌려준 김진학은 《춘원 리광수선생과 같은 소설가가 되어라》고 하였고 고향마을의 리장은 아무쪼록 톨스토이와 같은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 《국회의원을 낸 고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웃마를 놔팽이들이 다시는 우쭐렁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찬사를 늘어놓는다.

《영치에 바람주머니를 단것 같은 기분》으로 삼룡이가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있었던가.

장지문의 웃부분에 끼운 통유리가 박살나고 아래쪽의 나무판자들도 무슨 벼락을 맞았는지 모조리 부러졌다.

그날밤 《정체를 알수 없는 돌벼락》이 또 다시 삼룡이네 집을 들부시었다.

다음날 아침, 삼룡의 집 담벽에 붙은 대자보는 삼룡에게 새로운 의문을 안겨주었고 그때로부터 두달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며 남긴 유언은 모든것을 명백히 해준다.

《삼룡아, 너의 고종사촌형을 경찰에 신고한건

이 에미다.

세형형을 만날 기회가 생기거들랑 날 대신해서 사죄를 해다구. 그래야 저승에 가서라도 눈을 감겠다.》

천삼룡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상상하기조차 저어하던 흑막속의 사실이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보였다.

두번에 걸쳐 날아든 돌벼락은 당국에 혈육을 신고하여 사경에 밀어넣은 어머니의 처사에 대한 징벌이었던것이다.

그후 천삼룡은 자기의 로동생활체험과정에 특히는 《거꾸로 흐르는 한강》의 소재가 실제로 미군의 지휘하에 한짓임을 확인하고 오세형의 영향을 받으며 《삼천리회》를 못하고 통일애국운동에 분연히 떨쳐나서는것이다.

이것은 반공사상으로 머리끝까지 철저히 물들었던 천삼룡이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공감하고 민족의 자유-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는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정신적변화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된다.

소설에서 라진태를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세형의 《옛친구》요, 사상정치적면에서는 세형이 간혀있는 교도소의 교무과장이며 후에는 교도소부소장으로까지 승진하는 주인공의 갈등인물이다.

결국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는 결국 라진태의 오세형전향공작과정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그러면 진태와는 적대적갈등인가?

진태는 권력과 오세형의 중간에서 두편에 다리롭게 처신하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초기에 진태는 통일운동을 꿈같은 일로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해 애쓰는 오세형을 이해하지 못하였었다. 진태가 오세형을 이해하기까지는 곡절많은 운명의 먼길이 놓여있었다.

결국 진태의 《중립》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그런 식의 처신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오세형을 잃고 권력의 버림을 받는 이중적인 비극을 겪게 하였다.

사회정치관계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로정에는 중립이라는것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반미만이 딸의 죽음(자폭)은 물론 자기 인생까지 빛내여주며 이 땅의 자유, 새 역사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진태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길에 들어선다.

오세형과 라진태가 나눈 다음의 대사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진태 《무서운 일이지, 무서운 일이야. 그 량심선언만 아니였더라면 난 어쩔번 했는가. 자네를 잃을번 하지 않았는가.》

세형 《왜 나만 잃겠다. 통일을 잃지, 라영이도 잃을거구. 자네 그 량심선언으로 통일도 얻고 라영이도 얻은셈이야.》

진태 《내가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네 영영 대구쪽을 돌아보지도 않았겠지?》

세형 《아니, 한번정도는 와서 자네를 위로했을걸세. 이렇든저렇든 자네 라영렬사의 아버지가 아닌가. 라영인 또 나의 은인이구. 난 친구나 동지로서가 아니라 보통시민으로서 자네를 방문했을거네.》

오세형과 라진태-북과 남!... 대결의 힘보다 결합의 힘이 더 컸다. 통일은 분열보다 더 크다. 승리는 언제나 통일의 편에 있다!

하기에 오세형은 라진태를 끌어안으며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는것이다.

《진태, 정말 반갑네! 함께 걷자구, 숨이 진할 때까지.》

이처럼 오세형은 반공의 길을 가던 천삼룡과도, 옛친구 라진태와도 손을 잡았다.

이것이 오세형이 감옥에서 줄기차게 벌려온 《북조선강좌》의 결실이다.

작품은 이처럼 나날이 장성강화되고있는 우리 혁명의 동력, 통일세력의 거대한 힘과 통일성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힘있게 보여주었다.

3) 세부와 언어형상

언어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

소설에서 기지있는 언어구사는 익살군 강종팔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그가 대통령만 되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온통 순대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순대대국》세부는 그야말로 웃지 않고서는 배겨낼수 없게 한다.

단순한 해학인가. 아니다. 이것은 반통일적인 남조선 《군사정권》에 대한 혹독한 말이었다.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자기에게 표를 찍어달라는 종팔의 말에 선거표도 순대토막으로 하자고 하는 대답은 야유와 조소로 충만되어있는것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을 알수 있고 말은 새길수록 뜻을 알수 있다. 그것은 말뒤에 말이 있기 때문이다.

종팔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한감방에 갇힌 현병대위 송가며 춘천특무대 지부장들이 《리론식사강좌》를 펼치는것도 《천인혈》로 살찌운 그들의 《옥반가호》와 《금준미주》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되며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비렬한자들에 대한 형상적규탄으로 되는것이다.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능란한 언어솜씨에 매혹되어 한문장, 한문장 눈을 밝혀가며 새겨나갈수 있도록 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작품은 자유라는 인간의 본성적이며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세부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는바 능숙한 언어구사로써 독자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수십년간에 걸친 주인공의 감옥생활을 무리없이 묘사하고있다.

오세형이 감옥에서 동지들과 함께 집단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어머니 천각순이 면회를 왔다. 제손으로 밥을 떠먹이고싶어 왔다는 어머니의 말에 오세형은 찰밥과 찬을 불이 미여지게 입안에 넣었다가 성급하게 뱉어버린다.

《<왜 그러니? 밥에 돌이 섞였니?>

천각순은 두번째 밥덩이를 손가락에 떠든채 사뭇 랑패 비슷한 표정으로 아들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이 밥을 먹을수 없는 몸입니다.>

<먹을수 없는 몸이라니. 그건 또 무슨 생똥같은 소리냐? 도적밥도 아니고 제 에미가 해준 밥이 아니냐? 과파장도 허락한거구.>

<그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어머니, 우린 지금 나흘째 단식을 하고있는중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밥을 굶으면서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내가 교무과장방에 앉아 찰밥 한숫바리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뿔로 보겠나요. 아마 내 얼굴에 침을 뱉을겁니다.>

<단식을 한다구 제 어미가 해온 밥도 못먹는단 말이나.>

<내가 이 밥을 먹으면 리완용과 같은 인간이 됩니다.>》

천각순은 그 밥을 먹이고싶어 불원천리 혈떡이며 찾아온 제 마음보다 단식이 더 중한가고 느껴워한다.

천각순이 정녕 단식도중에 밥을 먹는것이 동지들에 대한 배신으로 되고 적들에 대한 굴욕으로 된다는것을 모르단 말인가.

모든것은 분렬의 탓이다. 통일이 아닌 분렬이 피를 나눈 어머니와 자식사이에 넘을수 없는 장벽을 쌓았다.

우리의 주인공이 정녕 감옥안에서 인간의 감정마저 다 말라버렸단 말인가!

《부모의 정도 몰라주는 단식을 해서 뭘하고 혁명은 해서 뭘 하나. 나도 어머니 못지 않게 섭섭하단 말이야. 어머니가 살면 이제 몇해를 더 살겠나.》

진태의 이 말은 외견상 옳은것 같기도 하고 십분 리해도 간다.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참다운 의미를 리해못한 인간에게 단식에 대한 리해를 주자면 어떤 말이 필요하겠는가.

《나한텐 지금 밥을 먹는 자유보다도 단식을 하는 자유가 더 필요해.》

오세형의 이 말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 비전향장기수의 철학적신념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밥을 먹는 자유란 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교도소측의 요구에 순응하는 길이며 나아가서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무릎을 꿇는 《자유》이다.

그러면 단식을 하는 자유,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보다도 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며 하여 오세형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자유》보다도 더 자유로운것이 아니겠는가.

소설의 경험은 훌륭한 세부도 세련된 언어형상과 결합될 때만이 진실로 훌륭한 예술적가치를 가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아, 산등성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처럼 자꾸만 커가는 통일! 남조선전역에서 통일의 힘은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유-통일 만세!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온 겨레의 대합창이다.

바로 이것을 사상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한 여기에 장편소설 《자유》의 종자해명에 대한 현실적의의가 있다.

경구격언

● 사람은 사고할 때에는 의심을 가지되 행동으로 넘어갈 때에는 신심을 가져라

● 진정한 학자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것을 알기때문에 겸손하다.

● 거대한 결과를 낳는 모든 사상은 언제나

단순하다.

● 위대한 예술작품은 그것이 알기쉽고 누구에게나 리해되기때문에 위대한것이다.

● 지식 그자체는 수단일뿐 목적은 아니다.

● 사람들의 행복은 생활에 있고 생활은 노동에 있다.

작가일화

시 한수로 나라의 존엄을 과시한 시인

14세기전반기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학자이며 문인이었던 리곡(1298~1351)이 아들을 데리고 얼마간 어느 한 나라에 가있은적이 있었다.

어느날 리곡은 그 나라 문인들과 마주앉아 시짓기경기를 하였다. 그때 그 나라의 한 시인이 우리 나라 문학을 찬시하면서 이렇게 조롱하였다.

잔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큰줄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나 어린 리곡의 아들을 얕잡아 보고 이에 화답할것을 요구하였다.

어린 마음에도 자기 나라 문학만을 《정통문학》으로 여기며 우리 문학을 깔보는 그 나라 문인들의 그릇된 관점에 격분한 리곡의 아들은 즉석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시 한수를 지어 그에 응수하였다.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는
하늘이 작다고 한다네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그의 애국심과 뛰어난 창작적재능에 탄복한 그 나라 문인들은 감히 다시는 뒤를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가 바로 고려말기에 포은 정몽주, 도은 리승인과 함께 《삼은》의 한사람으로 이름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학자시인 목은 리색(1328~1396)이었다.

그는 생애의 전기간 200여편의 애국적인 시를 지었으며 나라의 부강을 위한 대책적인 의견들도 수많은 제기하였다.

이러한 그였기에 고려를 멸망시킨 리성계와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대부가 살아있을수 없다. 뼈다귀나 걷어가지고 조상무덤이 있는 산에 가서 묻히고저 할뿐이다.》라고 하면서 신념과 충의를 지켜 그들의 동참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리색은 1396년 5월 러강의 벽란도 나루에서 리성계일파가 보낸 독술을 마시고 68세에 피살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목은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가 창작한 수천수의 시작품들이 들어있다.

류하명